OPEN
출처표시
상업적금지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MAGAZINE

KOICA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혁신

스페셜 테마
기술 격차로 심화되는 기후위기 대응

인포그래픽
기후위기 현황과 코이카의 역할

글로벌 동향
점점 줄어드는 개발재원

콘퍼런스
국제개발 파트너십 주간 2025



2026 VOL.8



12



22

리더스 레터

04 “MAGAZINE KOICA에 할 말 있어요!”
독자 목소리

ODA TRENDS

06 “개발재원 줄고, 기후·식량 위기도 늘어…”
개발협력 분야 글로벌 동향

스페셜 테마 I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혁신 기술

10 기술 격차로 심화되는 기후변화 불평등 ‘글로벌 모두의 AI’에서 답을 찾다!
김경아 코이카 기후환경경제개발팀 과장 특별 기고

12 전 지구적 과제 ‘기후위기’ 그리고 코이카의 역할
ODA 인포그래픽

14 인공지능 어워드 최종 우승 “AI 기술 도입한 라오스 농촌 기대돼”
알리사 루앙그라트 유역통합관리연구원 국제협력팀 팀장 인터뷰

17 찌따룸강에 홍수 예경보 시스템 구축해 “ODA가 바꾼 물의 길, 사람의 마음”
이수연 재난 심리 및 사회영향평가 박사 인터뷰

20 태국 청소년들이 꿈꾸는 청명한 하늘
‘푸른 하늘의 날’ 포스터 공모전 수상작

22 ‘재배 시기 계획부터 작물 무게 측정까지 AI와 함께’ AI 농업 정보 시스템으로 달라진 바누아투 농가
전종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 기후변화분석과장 기고

스페셜 테마 II 국제개발 파트너십 주간 2025

28 “세비야 약속에서 서울 해법으로… 모범적 개발협력 모델을 제시할 것”
제18회 서울 ODA 국제회의

32 “한국만의 정(情) 있는 ODA… 우리만의 강점 살린 어젠다 발굴해야”
김영완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인터뷰

36 “ODA 방향 바로잡아야 미래 비용 줄일 수 있다”
카르스텐 스타우르 OECD DAC 의장 인터뷰

41 신흥공여국과의 새로운 파트너십 가능성
GPEDC LAP

44 “사람이 우선! 인프라 건설보다 교육·보건에 집중할 것”
알레한드라 델 모랄 벨라 멕시코 국제개발협력청장 인터뷰



41

레귤러 피처스 코이카는 지금

50 “여성 소외시킨 개발협력은 지속 불가능”
김은미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명예교수·이화학당 이사장 인터뷰

53 “아이들 급식비를 제 손으로 낼 수 있어 좋아요”
네팔 카말라마이시 소농 커뮤니티의 디지털 및 그린전환을 통한 낙농 생산성 향상 지원 사업

56 “깨끗한 물 마시고, 재활치료 받으며 건강한 일상 되찾았어요"
팔레스타인 서안지구 공공 재활치료센터 건립 및 역량 강화 사업 외

59 ‘무엇을 했나’에서 ‘무엇이 바뀌었나’로… 영향평가, 개발협력 사업의 차원을 높이다
코이카 개발협력 평가 포럼

62 “지속 가능한 국제기구 취업 지원, 청년들 커리어에 큰 도움”
코이카 국제기구 진출 지원사업 참가자 인터뷰

66 엘살바도르 경제 재건을 돕는 손길
조소희 코이카 엘살바도르사무소 소장 기고

68 ‘아프리카의 진주’ 우간다에 종자를 심다
조숭호 코이카 평가실 과장 기고

70 고익하, 잇츠마이플레저!(KOICA, It’s my pleasure)
가장 나다운 자기개발, 가장 우리다운 개발협력!

73 고익하와 위코 7기가 만났다! ‘위코랑 함께 고익하씨네’
고익하 브랜드 필름 시사회 & 코이카 글로벌 서포터스 위코 7기 성과공유회



50



53



56

기관소식

76 KOICA NEWS 모아보기

맺는말

82 개발협력으로 ‘모두의 AI’의 실현과 기후위기 해결에 앞장설 것
장원삼 코이카 이사장



73

독자 목소리

"MAGAZINE KOICA에 할 말 있어요!"

코이카의
다양한 현장 사업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 비하인드'
코너가 생기면 좋겠습니다. 사업 담당자, 현지
파트너, 수혜자 등 다양한 시각에서 들려주는 이야기를
통해 국제개발이 단순한 지원이 아닌 '협력의 여정'임을
느끼고 싶습니다. 또 청년 독자들이 코이카와 함께할 수 있는
진로·참여 기회(인턴십, ODA 아카데미 등)에 대한
안내도 정기적으로 소개되면 좋겠습니다.
- 휴대폰 뒷자리 9030님

현장
중심의 이야기를 더
깊이 있게 담아주면 좋겠습니다. 해외
봉사단원들의 실제 하루 루틴이나 고민도
소개되면 흥미로울 것 같아요. 사진과 인터뷰를
결합한 콘텐츠가 특히 기대됩니다.
- 휴대폰 뒷자리 6406님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콘텐츠가
추가되면 좋겠어요. 사업 소개도
좋지만 일단 독자 입장에선 '그래서
뭐가 어떻게 되는 건데?'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국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다
이 정도로 가볍게 읽을 수 있는 내용도 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현장에서 보내는 생생한
이야기도 읽고 싶고요.
- 휴대폰 뒷자리 4820님

개발 협력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와 주민들의
목소리를 더 자주 소개해주면 좋겠습니다.
청년과 일반 독자가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참여형 콘텐츠도 추가되길 바랍니다.
- 휴대폰 뒷자리 3764님

MAGAZINE
KOICA를 읽을 때마다
낯선 나라의 이름이 더 이상 멀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내일을 위해
흙먼지 나는 길 위에서 웃고 있는 코이카 사람들의
모습이 진한 여운을 남깁니다. 앞으로는 개발협력
현장의 어려움뿐 아니라, 그 속에서 피어난 희망의
순간들을 짧은 에세이나 사진으로 더 자주 만나보고
싶습니다. 그 이야기들이 쌓여 '지속 가능한
마음의 교류'를 만들어갈 것이라 믿습니다.
- 휴대폰 뒷자리 9030님

안녕하세요,
현재 해외 사무소에서
열심히 업무하고 있는 코디네이터입니다.
늘 카카오톡, 메일과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MAGAZINE KOICA와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 국가에서
수행하는 여러 사업을 만나볼 수 있어 식견이 넓어지고
우리 사무소의 발전에도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늘
타지에서 맡은 업무를 열심히, 그리고 묵묵히 수행하는
모든 YP, 코디네이터, 부소장님과 소장님들
응원합니다!
- 휴대폰 뒷자리 7746님

독자들이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관심'을 넘어 '참여'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 프로그램의 목적, 지원 자격, 활동
내용 등을 Q&A 형식으로 자세히 다뤄주시면
좋겠습니다.
- 휴대폰 뒷자리 1506님

전문 용어나
정책 설명이 좀 더 알기 쉽게
풀어져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진출하고자 하는 청년들을 위한 멘토 인터뷰,
실전 경험 조언 등을 포함한 커리어 지원
콘텐츠가 추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휴대폰 뒷자리 2201님

해당
지역의 직원들이
다양한 에피소드를 전달해주는
콘텐츠를 보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문화권이
달라서 발생할 수 있는 해프닝이나 그 국가를
방문할 분들을 위한 조언과 관광 정보도 함께
전달해주는 콘텐츠면 더 재미있을 것 같네요.
- 휴대폰 뒷자리 3961님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기다립니다

MAGAZINE KOICA VOL.8을 읽고 느낀 점이나 바라는 점, 그밖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언제든 알려주세요. 늘 독자 여러분의 의견에 귀 기울여 더 나은 MAGAZINE KOICA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은 VOL.9 독자 목소리 페이지에 게재해 드리고 음료 교환권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 의견 보내주실 곳: press@koica.go.kr**
QR코드로도 의견을 보내주세요.



•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가 개발도상국의 기후적응 재원을 2035년까지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화석연료 단계적 퇴출 사안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개발협력 분야 글로벌 동향

“개발재원 줄고, 기후·식량 위기도 늘어…”

COP30 11월 22일 폐막
“기후변화 적응 재원 최소 3배 확대”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가 2025년 11월 22일 공식적으로 막을 내렸다. 이번 총회의 가장 큰 성과는 개발도상국의 기후적응 재원을 2025년까지 2배, 2035년까지 3배로 확대하기로 합의한 점이다. 이외에도 COP30 결정문에 따르면, 2035년까지 연간 1조 3,000억 달러 규모의 기후 재원 조달 로드맵을 재확인하고, 손실 및 피해 기금의 재원 보충 주기 확정 등을 포함했다. 다만 ‘화석연료 단계적 퇴출’ 관련 사안에서는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UN) 사무총장은 “기후 목표 달성 지연과 현재의 온실가스 배출 수준을 고려할 때 지구 온도가 1.5℃를 넘어서는 ‘오버슈팅(Overshooting)’이 불가피해졌다”며 “COP는 파리협정에서 합의된 조치에 대해 한층 더 강력한 실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OECD, 주요 공여국 ODA 동반 삭감으로
글로벌 개발 재원 위축 전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25년 전 세계 ODA(공적개발원조)가 전년 대비 약 9~17%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2024년 한 차례 9% 감소한 데 이어 추가 하락한 수치다. 특히 2027년에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제기했다. OECD는 “미국·영국·독일·프랑스 등 4대 공여국이 2년 연속 동시 ODA 감축을 예고한 것은 사상 처음”이라며 “이들 국가는 전체 ODA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핵심 공여국으로, 이번 재원 축소는 최빈개도국과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보건 분야 원조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분석했다.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 이행 가속 촉구
“복합 위기 대응 위한 국제 공조 필요”

유엔은 2025년 7월 14일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보고서 2025’를 발표하며, 불과 5년 앞으로 다가온 2030년 목표 달성을 위해 국제사회의 대응 강화를 촉구했다. 보고서는 2015년 이후 ▲교육 접근성 확대 ▲모자 보건 지표 개선 ▲HIV·말라리아 등 감염병 부담 감소 ▲디지털 격차 완화 등의 분야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극심한 빈곤과 기아, 열악한 주거환경 문제는 여전히 전 세계 수백만 명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여성·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불평등도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기후위기와 인도주의적 위기, 인권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상황 속에서 다자간 협력을 통한 통합적 대응과 행동의 가속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4차 개발재원총회 개최
기후 재원, 국제 금융 개편 논의 본격화

제4차 개발재원총회(FfD4)가 2025년 6월 30일~7월 3일 스페인 세비야에서 열려 지속가능발전과 기후 대응을 위한 국제 재원 논의가 진행됐다. 이 총회는 처음으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결정과 개발 재원 의제를 실질적으로 연계한 점이 특징이다. 최종 합의문인 ‘세비야 약속(Sevilla Commitment)’에는 기존 ‘아디스아바바 행동의제(Addis Ababa Action Agenda)’를 넘어 기후 재원을 개발금융의 핵심 틀에 통합하고,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재원 동원과 제공 등의 내용이 명시됐다. 또 개발도상국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국가적 대응 전략인 국가적응계획(NAP)을 이행하는 데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됐다.



• 미국, 영국 등 4대 공여국이 사상 처음으로 2년 연속 동시 ODA 감축을 예고했다.



• ‘기후행동을 위한 인공지능(AI) 어워드 2025’에서 라오스의 알리사 루앙그라트 씨가 이끈 한국 유역통합관리연구원 팀이 최종 우승했다.

AI 기술 국제 공모전 개최
한국팀 최종 수상

AI 기술 국제 공모전 ‘기후행동을 위한 인공지능(AI) 어워드 2025(AI for Climate Action Award 2025)’의 최종 우승은 한국의 유역통합관리연구원(IWMI) 팀이 차지했다. 시상식은 2025년 10월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에서 열린 ‘기후행동을 위한 인공지능(AI) 포럼 2025(AI for Climate Action Forum 2025)’의 일환으로, 개발도상국과 군소도서 개도국에서 효과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AI 설루션을 찾기 위해 개최됐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기술집행위원회와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CTCN), 코이카가 공동 주관한 이번 행사에서는 탄자니아, 우간다, 잠비아, 라오스 대상 설루션을 제출한 4개 결선 진출팀의 프로젝트 성과 발표가 진행됐다. 최종 우승은 라오스의 알리사 루앙그라트 씨가 이끈 한국 유역통합관리연구원팀의 ‘AI 기반 스마트 농업 및 관개 시스템’이 차지했다. 알리사 루앙그라트 씨는 “이번 시스템은 AI가 라오스의 수십 년 경력의 농부처럼 데이터를 학습해 스스로 설루션을 찾아내는 기술”이라며 “라오스 농업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평가받은 것 같아 너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GPEDC 포럼 한국서 개최
개발 재원 효과성·다자협력 강화 논의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포럼(GPEDC)’이 한국에서 2025년 9월 30일~10월 1일 개최됐다. 해당 포럼은 2025년 6월 스페인 세비야에서 열린 제4차 개발재원총회(FfD4) 이후 처음 열리는 주요 국제 논의의 장으로 개발 재원 효과성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을 위한 국제 협력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참가국들은 FfD4 성과를 실제 개발 현장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 과제를 논의하고, GPEDC 모니터링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이행 성과를 점검했다. 또 데이터와 증거 기반 정책의 효과, 국가 차원의 개발협력 생태계 강화 경험을 공유하고, 2026~2027년 개최할 고위급회의 준비를 위한 논의도 했다.

“국경 넘는 동물 질병 확산으로 식량 안보 위협 커져”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2025년 11월 28일 로마 본부에서 열린 ‘국경 간 동물 질병 대응 글로벌 파트너십(GPP-TAD)’ 정보세션에서 동물 질병 예방과 통제를 위한 국제 협력 강화를 촉구했다.

FAO 사무총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럽에서 발생한 구제역(FMD) 등을 주요 사례로 언급하며 자금 삭감으로 기존 대응 체계가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동물 질병은 연간 최대 3,300억 달러의 축산 피해를 발생시키며 소규모 농가의 생계와 국제 교역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FAO 관계자는 “각국 정부와 금융기관, 민간 부문이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공동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 등 세계 각국에서 동물 질병의 위협이 커지고 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동물 질병 예방과 통제를 위한 국제 협력 강화를 촉구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혁신 기술

“AI, 주목할 만한 대안이 되다”

극심한 폭염, 대형 산불, 기록적 폭우, 이어지는 가뭄…
전 세계에 걸쳐 우리 삶에 스며들고 있는 기후위기의 징후들.
국제사회와 코이카는 국경 없는 기후위기에
어떤 혁신 기술로 대응하고 있을까.














• 코이카-UNFCCC '기후 미래 파트너십' 등 국제사회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AI 기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김경아 코이카 기후환경경제개발팀 과장 특별 기고

기술 격차로 심화되는 기후변화 불평등 '글로벌 모두의 AI'에서 답을 찾다!

전 세계 곳곳에서 기후위기 현상이 목격되고 있다. 기후위기 영향은 기술과 자본 격차에 따라 더 크게 벌어진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기술문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선진국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재난경보, 기후 예측, 에너지 효율화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많은 개발도상국은 데이터·인프라 부족과 역량 미비로 기술적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 AI가 새로운 기회의 도구가 되는 동시에, 막대한 에너지 및 냉각수 사용과 전력소비 증가로 기후위기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된다. 이러한 불평등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AI 시대의 기후 불평등과 기술 격차

UNFCCC 기술문서는 '개발도상국이 AI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려면 신뢰성 있는 데이터 확보, 사이버 안전 강화, 성별·지역별 편향 제거, 에너지 효율 개선 등 복합적 과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기후 관련 데이터를 수집·저장하는 센서와 위성, 이를 분석하는 컴퓨팅 자원 대부분이 선진국에 집중돼 있다. 심지어 AI 모델의 학습과 추론에는 막대한 전력과 냉각수가 필요해 데이터센터의 탄소 배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AI가 기후위기를 완화할지 악화할지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 효율이 높은 알고리즘과 녹색 데이터센터 구축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기술 격차는 AI 적용 단계에서도 발생한다. 선진국은 위성·사물인터넷(IoT) 데이터를 이용해 홍수·가뭄·산불을 예측하고 식량 생산을 최적화하는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예컨대 AI 기반 홍수 조기경보 시스템은 강우·수위 센서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피해를 예측, 주민 대피를 돕는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기상·해양 데이터를 분석해 허리케인 경로를 정확히 예측하고, 일본은 농업 분야에서 AI를 통해 최적의 재배 시기와 수자원 관리를 제안하고 있으며, 캐나다는 산불 예측 모델을 개발해 피해를 줄이고 있다. UNFCCC의 기술수요평가(TNA)에 따르면 많은 개발도상국은 기후 데이터 플랫폼, 디지털 MRV(측정·보고·검증) 시스템, 재해 위험 분석 등 AI 관련 기술 수요가 급증하는 것에 비해 데이터 보안, 인력 부족, 비용 부담으로 도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격차가 지속되면 기후변화 대응력에 관한 불평등이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기후행동을 위한 인공지능(AI) 이니셔티브: 기술 격차를 메우는 전략

기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은 현재진행형이다. 2024년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UNFCCC 당사국총회 'COP29'에서 코이카와 UNFCCC는 '기후 미래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기후 미래 파트너십은 개발도상국을 위한 AI 기반 기후 설루션을 공동 개발·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표 프로그램인 '기후행동을 위한 인공지능(AI) 이니셔티브(AI for Climate Action Initiative)'는 2025년 10월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에서 아프리카 최초의 '기후행동을 위한 인공지능(AI) 포럼 2025(AI for Climate Action Forum 2025)'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 200여 명의 아프리카 정부·국제기구·학계 관계자가 모여 AI를 활용한 기후



김경아 코이카 기후환경경제개발팀 과장

적응·감축 사례를 공유했으며, 대규모·고에너지 AI 시스템보다 각 국가의 상황에 맞는 소형·경량 AI 모델이 실질적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공감했다. 코이카가 운영하는 '기후행동을 위한 인공지능(AI) 어워드(AI for Climate Action Award·AICA Award)'는 혁신적인 AI 기후 설루션을 발굴하는 기술 공모전으로 2025 AICA Award에 전 세계 634개 팀이 참가하며 열띤 경연을 펼쳤다. 최종 우승은 라오스 출신 알리사 루앙그라트(Alisa Luangrath) 씨가 이끄는 한국 유역통합관리연구원(IWMI) 팀의 AI 농업 설루션 '사피르(SAFIR)'가 차지했다. SAFIR는 기상·토양·지하수 데이터를 수집해 단기·중기 농업 생산을 예측하고 효율적으로 물 자원 관리를 돕는 AI 모델로, 재해 위험을 줄이고 농가 소득을 높여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신정부 국정과제: 글로벌 모두의 AI

한국도 AI를 국가의 핵심 성장엔진으로 삼고 있다. 2025년 6월 출범한 새 정부는 AI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선정, 대통령실에 최초로 'AI 미래기획수석'을 뒀고 AI를 활용한 3% 잠재성장률 달성 전략을 발표했다. 기후·환경 분야에서도 국정과제가 대폭 강화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5년 9월, 새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를 확정하면서 기후·환경 분야 5대 과제(탄소중립 실현,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 기후적응 역량 강화 등)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가 기후적응 역량 강화를 위해 기후적응 정보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마련해 기후변화 감시·예측 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5년 11월 11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순배출량 대비 53~61% 감축하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는 당초 제안됐던 50~60% 범위보다 상향된 목표로, 2030년 40% 감축 목표와 함께 탄소중립 산업법 제정, 기후적응 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 등 국정과제 이행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한국의 AI·기후 정책은 상호 보완적이며, 국제사회에서 기술과 기후 두 분야를 주도하려는 의지가 강하게 엿보인다.

기술을 넘어 협력과 포용이 필요한 시대

AI는 기후변화 대응의 강력한 도구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위험과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어 기술 개발과 함께 포용적 거버넌스, 역량 구축, 에너지 효율 개선이 필수적이다. 개발도상국의 데이터·인프라 접근성을 높이는 지원, 지역 맞춤형 AI 설루션, 녹색 데이터센터 조성, 윤리적 AI 기준 마련 등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

한국의 새 정부가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며 기후와 AI를 국정 핵심과제로 삼은 만큼 코이카는 UNFCCC와 협력해 기술 격차가 만들어내는 기후 불평등을 조명하고 AI 기술 격차를 줄이는 데 중심 역할을 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AI가 인류 공동의 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재가 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연대가 필요하다는 공감도 이끌어내고 있다. 기후미래 파트너십의 두 축인 'AI 협력 사업'과 '기후 재원 협력 사업'을 관통하는 키워드 또한 '연대와 협력'이다. 2025 탄자니아 AICA 포럼을 통해 '기술이 진정한 가치를 발휘하려면 국제사회가 서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한 코이카는 앞으로도 'K-AI for Climate Action' 브랜드를 국제사회에 적극 확산하며, AI 기술과 ODA(공적개발원조)가 함께 기여하는 글로벌 협력 생태계를 강화해 간다는 방침이다. K

ODA 인포그래픽

전 지구적 과제 '기후위기' 그리고 코이카의 역할

국제사회가 식량 불안정, 자연재해, 난민 증가 등 기후위기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기후위기는 국경을 초월한 인류 공동의 문제로, 특히 인프라, 재정 여력, 적응 역량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에서 더욱 심각하다. 코이카는 개발도상국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는 가운데, 혁신 기술을 갖춘 우리 기업과 협력해 나가고 있다.

<숫자로 보는 기후위기의 현주소>



산업화 이전 대비 상승한 지구 평균 기온(202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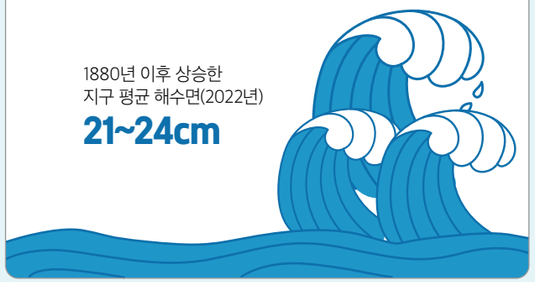
약 1.55℃ 상승

* **1.5℃**는 2015년 파리협정에서 합의한 기후 마지노선



자연재해로 인한 강제 이주민 수(2022년)

약 2,220만 명



1880년 이후 상승한
지구 평균 해수면(2022년)

21~24cm

출처: 세계기상기구(WMO), 미국국립해양대기청(NOAA), 독립적자료모니터링위원회(IDMC)

<개발도상국의 취약성과 대응 격차>

1인당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2023년)



G20 (세계 주요 20개국 협의체)	SIDS* (군소도서국)	LDCs** (최빈개도국)
7.9 tCO_2e/인	**4.2** tCO_2e/인	**2.2** tCO_2e/인

*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 Least Developed Countries

기후위기 중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률

세계 평균 10만 명당 **0.79**명(2014~2023년)

SIDS 10만 명당	LDCs 10만 명당
2.80명 (2013~2023년)	**2.19**명 (2013~2023년)
➡ 세계 평균의 약 **3.54배**	➡ 세계 평균의 약 **2.77배**



다중 위험 조기 경보 시스템(MHEWS) 보급률(2024년)



세계 평균	SIDS	LDCs
55%	**38%**	**44%**

출처: 유엔환경계획(UNEP), 유엔재난위험경감사무국(UNDRR)

<코이카 CTS를 통해 개발도상국 기후위기 대응에 나선 우리 기업들>

* CTS란? 코이카의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Creative Technology Solution)의 약자로 예비창업가, 스타트업 등 혁신가들의 설루션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난제를 해결하는 사업

주식회사 어밸브

문제

전체 노동인구의 47%가 농업에 종사하는 베트남이 **환경오염과 기후위기**로 작물 재배에 영향을 받고 있으나, 낮은 교육 수준으로 인해 지속 가능한 대응이 어려움

설루션

인공지능(AI) 기반의 스마트팜 기술 보급으로 작물 재배 환경 자동 제어 기술 및 다양한 정보 제공, 초보 농부도 고부가가치 작물 재배가 수월

대표적 임팩트 성과

현지 중소농의 1인당 월소득 증가율 **10**%	현지에 구축한 스마트팜 시설 **30**개
현지 중소농 스마트팜 전문교육 이수생 수 **154**명	현지 중소농 신규 농업 판로 개척 **5**곳

㈜티알

문제

극심한 대기오염으로 베트남의 COPD(만성 폐쇄성 폐 질환)* 사망자 수가 타 OECD 국가 대비 4배이나, COPD 유병자 중 진단 미실시율이 94%에 달해 조기 진단이 어려움

*COPD(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만성 폐쇄성 폐 질환**): 유해가스나 미세입자에 기인한 염증으로 인해 폐 기능이 저하되는 만성 호흡기 질환으로, 전 세계 사망원인 3위이다. 주요 원인은 대기오염과 흡연이며, 초기 증상이 미약해 조기 진단이 매우 중요하다.

설루션

간편하면서 정확하게 COPD를 조기 진단하는 AI 기반의 호흡기 질환 검사기 '더 스피로킷(The Spirokit)' 지원

대표적 임팩트 성과

베트남 현지 COPD 의심환자 선별률 **10**%	베트남 의료기관에 보급한 검사기 **100**대
호흡기 질환 검진을 받은 수혜자 수 **907**명	베트남 현지 의료진 진단기기 사용 교육 진행 **2**회

㈜위코테크

문제

베트남은 **수질 오염**으로 **수질 모니터링** 시스템이 필요하나 자체 기술 부재, 높은 도입 비용, 운영 기술 부족 등의 이유로 문제 해결에 난항

설루션

최대 11개의 수질 항목을 동시에 측정하면서 현지에 최적화된 IoT 기반 자동 수질 측정기를 지원해 데이터 기반의 체계적인 수질 관리가 가능하도록 함

대표적 임팩트 성과

현지에 개발 및 보급 완료한 수질 모니터링 제품 수 **5**개	수질 모니터링 제품이 설치된 사업장의 방류수질 기준 준수 여부 **99.5**%
설루션을 통해 수질이 개선된 수 처리장 인근 주민 수 **66만 9,380**명	수질 관리 방법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 대상자 수 **50**명

㈜위플랫

문제

물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도네시아는 특히 관로의 노후화로 인해 연간 약 15억 1,000만㎥의 **물 손실**과 약 6,200억 원의 경제적 손실 초래

설루션

AI와 IoT 기술을 활용해 수도관에서 전달되는 누수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상수도 관리 시스템 'NELOW' 지원

대표적 임팩트 성과

감소한 물 손실량 **100만**㎥	누수 탐사를 통해 찾은 누수 지점 개수 **79**지점
NELOW를 이용해 감축한 물 손실 비율 **32**%	현지에 양성한 누수관리 전문가 **52**명

알리사 루앙그라트 유역통합관리연구원 국제협력팀 팀장 인터뷰

인공지능 어워드 최종 우승 “AI 기술 도입한 라오스 농촌 기대돼”



• 유역통합관리연구원 국제협력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알리사 루앙그라트(Alisa Luangrath) 팀장은 자신들이 개발한 AI 기반의 SAFIR가 농민들의 지혜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을 돕는 조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AI 기술 국제공모전 ‘기후행동을 위한 인공지능(AI) 어워드 2025(AI for Climate Action Award 2025)’ 시상식이 지난해 10월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에서 열렸다. 2024년에 첫 개최 이후 두 번째로 진행된 이 공모전은 최빈개도국(LDCs)과 군소도서국(SIDS)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AI 설루션 제안을 주제로 4개월간 펼쳐졌다. 심사위원은 유엔 및 다국가 AI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됐다. 2025년에는 총 634개의 설루션이 접수됐으며 이 중 라오스·탄자니아·우간다·잠비아에 대한 설루션을 제출한 4개 팀이 결승에 진출해 자웅을 겨뤘다. 우승은 라오스인 알리사 루앙그라트 팀장이 이끄는 한국의 유역통합관리연구원(IWMI) 팀이 제안한 ‘사피르(Smart AI-based Farming & Irrigation for RResilience·SAFIR)’ 설루션이 차지했다. SAFIR는 개발도상국의 농업과 수자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AI 기반 설루션이다. 다음은 알리사 루앙그라트 팀장과의 일문일답.

Q 2025 AI 기술 국제 공모전에서 우승했는데 소감이 궁금합니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과 유엔 기후기술센터(CTCN)가 저희 가능성을 인정해 주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했어요. 이 무대를 만들어 준 코이카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설루션이 라오스 농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평가받았다고 생각합니다.

Q SAFIR는 어떤 설루션인가요?

SAFIR는 AI 기반 농업·관개 관리 시스템입니다. 농민에게는 라오스어 음성 챗봇을 포함한 모바일 앱을 통해 ‘언제, 얼마나 물을 줄지’를 안내하고, 정부와 지방 물 관리자가 광범위한 데이터를 통해 지역 전체의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결과적으로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의 물 안보와 기후 회복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Q 이 설루션에서 AI는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나요?

토양 수분, 기상, 지하수위 데이터를 AI 모델로 분석합니다. 머신러닝을 통해 가뭄과 토양 건조 시점을 예측하고, 강화 학습을 통해 최적의 물 관리 전략을 찾아냅니다. AI가 수십 년 경력의 농부처럼 데이터를 학습해 ‘언제 물을 줘야 수확량이 극대화되는지’ 스스로 찾아내는 거죠.

Q 아이디어를 개발한 배경이 궁금합니다.

라오스 국립대학교에서 환경과학을 전공한 후 한국으로 유학을 왔습니다. 지금은 고려대학교에서 석사 과정을 마치고 유역통합관리연구원(IWMI)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저는 라오스 출신으로서 기후변화가 라오스 농업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한국에서 일하며 기후 및 농업 분야의 뛰어난 기술들을 접할 때마다, 이런 선진 기술을 나의 고향 라오스의 기후변화에 취약한 농민들이 활용하면 좋겠다고 꿈꾸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의 기술력을 라오스에 적용해 보자고 제안했어요. 이 제안이 이번 공모전에서 우승한 SAFIR 구상으로 이어졌고요. 즉 SAFIR는 저의 절실함과 연구원의 기술력이 만나 시작된, 희망을 만드는 설루션입니다.

Q 한국에서 연구하며 느낀 한국의 AI 기술 수준은 어떤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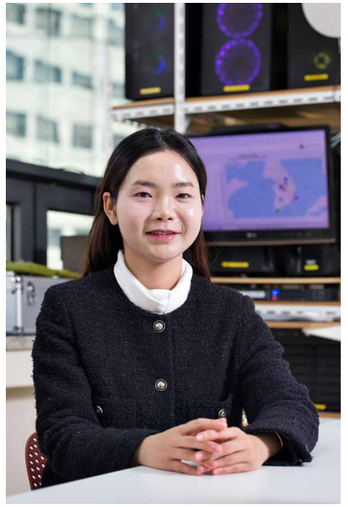
한국에 와서 가장 놀랐던 점 중 하나가 바로 AI 기술이 이미 생활 곳곳에 깊이 들어와 있다는 것이었어요. 스마트팜에서 농작물의 상태를 분석하고, 공장에서는 생산 효율을 높이고, 병원에서는 질병 진단에 AI를 활용하는 등 한국은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AI를 빠르게 도입하고 있더라고요. 저에게 한국의 AI 생태계는 단순히 ‘기술을 배우는 곳’을 넘어, ‘기술이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지를 직접 볼 수 있는 배움의 현장’이었습니다.

Q SAFIR 설루션을 준비하며 가장 어려웠거나 조심스러웠던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가장 고민이 많았던 부분은 ‘현장 유지 보수 체계’를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현지 기술자와 농민 리더들이 스스로 장비를 점검하고 고칠 수 있게끔 교육과 역량 강화가 충분히 필요할 거예요. 또한 현지 농민들과의 신뢰 구축도 조심스럽게 접근할 부분입니다. 라오스 농민들은 세대에 걸친 경험과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술이 그 지혜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을 돕는 조수’로 작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활발한 소통으로 꾸준히 농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기술의 효과를 투명하게 보여주는 과정이 필수라고 생각해요.

Q 라오스를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이 기후위기 대응에 AI 기술을 도입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동남아시아 지역은 예측하기 어려운 이상기후에 매우 취약한 지역입니다. AI 기반 예측 기술은 이런 위험에 미리 대비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여전히 많은 아시아 국가의 경제 근간은 농업이에요. 많은 사람이 생계를 이어가는 중요한 산업이죠. AI를 활용하면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농업 생산성도 안정적으로 높일 수 있어요.



알리사 루앙그라트 유역통합관리연구원 국제협력팀 팀장

농가 소득을 늘리고 빈곤을 퇴치하는 방법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AI 기술은 농업 시스템을 큰 인프라 투자 없이 적은 비용으로도 훨씬 똑똑하게 바꿀 수 있어요.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몇 년씩 걸렸던 발전 단계를 뛰어넘어, 한 번에 지속 가능한 농업 구조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Q 비슷한 길을 가려는 후배 연구자들에게 조언한다면요?

중요한 점을 세 가지 꼽자면 먼저 해결하려는 사회 문제를 정확히 정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을 다루는 사람이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가져도 무용지물이라 생각해요. 둘째는 가장 적합한 도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기술이나 익숙한 방법을 먼저 떠올리기보다 이 문제에 정말 맞는 도구가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협력입니다. 저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할 때 더 좋은 설루션이 나온다고 느꼈습니다. 서로의 전문성이 모일 때 비로소 하나의 완성된 해결책이 만들어진다고 믿습니다.

Mini Interview

“데이터로 기후 정보 불평등을 줄입니다”



최예지 디아이랩 연구소장

‘기후행동을 위한 인공지능(AI) 어워드 2025’에 AI 기반 기후환경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아이랩의 최예지 소장이 심사위원으로 함께했다. 다음은 최 연구소장과의 일문일답.

Q 2025 AI 기술 국제 공모전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는데, 이번에 우승한 설루션을 어떻게 평가하나요?

SAFIR는 기술적 완성도뿐 아니라 현장성과 실행 가능성에서 돋보였습니다. 단순히 좋은 아이디어에 그치지 않고, 라오스의 기후 리스크와 농업 관개 문제를 실제로 어떻게 풀 것인지 데이터 흐름부터 AI 모델의 작동 원리까지 설계돼 있었습니다. 또 농민이 실제로 쓸 수 있는 서비스 형태로 구현됐다는 점도 인상적이었고요. 마지막 우승자를 결정할 때 ‘타깃 국가의 현실을 얼마나 정확히 반영했는지’와 ‘실제 문제 해결에 얼마나 초점을 맞췄는지’를 중요한 요소로 봤는데, 그런 면에서 SAFIR는 매우 훌륭한 사례였다고 생각합니다.

Q 소장님이 기후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배경이 궁금합니다.

기상학을 전공하면서 자연스럽게 기후변화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기후위기는 더 이상 먼 미래가 아님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명백한 과학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안타까웠습니다. 이는 기후 정보의 문제이기도 해요. 정보 격차가 잘못된 판단과 무관심을 낳는다는 것을 실감하자, 데이터를 알리는 것이 기후위기와 정보 불평등 해결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구가 보내는 위험 신호를 과학적으로 먼저 이해하고, 더 많은 사람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돕고 싶은 마음입니다.

Q AI는 어떤 점에서 기후위기 해결의 도구가 될 수 있을까요?

기후, 특히 기상 분야는 오랫동안 데이터를 축적해 온 대표적인 과학 영역입니다. 매일 전 세계에서 수백 테라바이트에 달하는 기상·기후 데이터가 생성되고 있죠.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순식간에 읽어내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연구를 하면서 특히 위성 데이터와 AI의 결합이 기후위기 해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위성은 전 지구를 고르게 관측할 수 있기 때문에 관측 장비가 특정 지역에만 몰려 있는 편중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 AI는 단순히 예측 정확도를 높이는 기술을 넘어 기후 데이터를 더욱 공평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기후 대응 도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개발도상국에서 AI 사업을 수행하며 가장 고민했던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역량 강화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를 고민했습니다. 국제개발협력 사업에서는 보통 사업 막바지에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 시스템 사용 교육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AI 기술은 발전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 단기 교육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초기부터 AI 개념과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이해를 함께 높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현지 파트너들이 기술 원리를 이해해 프로젝트 전 과정에서 스스로 적용하고 응용할 수 있도록 말이죠. 또 자국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도 무척 고민했습니다. 지역에 적합한 AI 모델을 만들고 신뢰도를 높이려면 결국 현지 데이터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를 위해 데이터 공유·활용에 관한 법적 제약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이후 공식 문서 교환을 통해 데이터 사용 근거를 명확히 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이 과정은 행정 절차상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알맞은 일정 관리 등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죠.

Q 코이카 같은 개발협력기관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코이카는 ODA 사업을 통해 개발도상국에 단순한 장비 지원을 넘어 데이터가 실제 정책과 산업 분야로 이어지도록 거대한 구조를 설계할 수 있게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AI 기반 기후 대응 사업은 단순히 기술을 이전하는 것보다 현지에서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만드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 현지 파트너와 장기적으로 협력하며 프로젝트를 지속하는 일은 여러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르죠. 이런 측면에서 코이카 같은 기관의 공적 지원은 큰 힘이 됩니다. 정부 간 협력이 뒷받침된다면, 개발도상국이 한국의 선진 기술을 기반으로 자국 내에서 AI 시스템을 직접 운영하고 개선하며, 나아가 독자적 기술 역량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보여줄 수 있는 리더십의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K

이수연 재난 심리 및 사회영향평가 박사 인터뷰

찌따룸강에 홍수 예경보 시스템 구축해 “ODA가 바꾼 물의 길, 사람의 마음”



• 이수연 재난 심리 및 사회영향평가 박사는 반복된 홍수로 인해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찌따룸강 유역 주민들이 ‘찌따룸강 유역 홍수 예경보 시스템 구축 사업’을 통해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겪는지 객관적 데이터로 증명하기 위해 이번 사업에 참여했다.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 인근에 흐르는 찌따룸강은 두 얼굴을 가진 강이다. 자카르타 생활 용수의 80%를 공급하고 인근 2,500만 주민이 쓰는 수자원과 전력을 책임지는 젖줄이면서, 매년 강 유역 주민에게 막대한 홍수 피해를 입히는 고민의 대상이다. 이러한 찌따룸강의 모습이 이제 달라질 전망이다. 코이카가 지난 12년간 펼친 ‘찌따룸강 유역 홍수 예경보 시스템 구축 사업’이 2025년에 마무리됐기 때문이다. 이 사업은 찌따룸강 유역 주민들의 홍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강 유역 85개 지점에 자동 유량계, 수위계 등 관측·경보 장비를 설치해 정보를 수집하고 홍수에 선제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코이카가 구축한 홍수 예경보 시스템이 본격 가동되면 찌따룸강 유역 주민들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 그들과 직접 만나 고충을 듣고 사업 성과 관리와 평가에 참여한 재난 심리 및 사회영향평가 전문가인 이수연 박사를 만나 사업지 주민들의 반응과 평가 과정 등을 물었다.

Q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재난 심리 및 사회영향평가 전문가로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성과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찌따룸강 유역 홍수 예경보 시스템 구축 사업'에서 홍수 예경보 시스템 구축이 주민들의 심리적 안정과 재난 대응 행동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분석하고, 그들의 경험에 공감하며 사업 전반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Q 코이카 사업에 참여하게 된 배경이 궁금합니다.
첨단 홍수 예경보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해도 주민들이 그 정보를 신뢰하지 않거나 정보에 따른 지침을 실천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사업 이전에 찌따룸강 유역 주민들은 반복된 홍수로 인해 물리적 피해뿐만 아니라 심각한 심리적 트라우마와 무력감을 겪고 있었습니다. 저는 재난 심리 전문가로서 주민들의 심리적 장벽과 필요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생각했습니다. 또한 성과 관리 전문가로서 이 사업이 주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왔는지 객관적인 데이터로 증명하고자 참여하게 됐습니다.

Q 찌따룸강은 어떤 강이고 그동안 홍수 피해는 어느 정도였나요? 홍수 원인도 궁금합니다.
찌따룸강은 서부 자바 주민 수천만 명의 삶의 터전이지만, 정작 이곳 주민들은 매년 홍수로 큰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홍수 원인은 기후변화, 도시화 등 복합적입니다. 하지만 제가 주목한 것은 '지역별 대피 훈련의 필요성'이었습니다. 일부 지역은 경보 시스템이 갖춰진 상태였지만,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대피 훈련과 교육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진행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피해가 더 심해졌다고 생각합니다.

Q 코이카가 구축한 홍수 예경보 시스템은 어떤 것인가요?
기술적으로는 최신 관측 장비와 예측 모델을 활용한 통합 시스템입니다. 핵심은 실시간 데이터 수집과 과학적 예측에 있습니다. 강 상류부터 하류까지 주요 지점에 자동 강우량계와 수위계를 촘촘하게 설치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관측합니다. 이 데이터들은 무선 통신망을 통해 중앙 서버로 전송되고, 첨단 홍수 예측 모델을 통해 분석됩니다. 이 모델은 강우량, 수위, 지형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언제,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 규모의 홍수가 발생할지 예측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측된 위험 정보는 재난관리청 상황실은 물론, 관계 기관 담당자와 주민들에게 모바일 앱, 문자 메시지, 자동 경보 사이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신속하게 전파됩니다.

Q 홍수 예경보 시스템 구축 후 달라진 변화가 궁금합니다.
가장 중요한 효과는 바로 '골든타임 확보'입니다. 과거에는 비가 많이 오다가 갑자기 물이 집 앞까지 들이닥쳐야 홍수를 인지했습니다. 대피할 시간적 여유가 거의 없었죠. 하지만 시스템 구축 후에는 홍수 발생 최소 3~6시간 전에 예측 경보를 발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은 주민들이 귀중품을 옮기고, 노약자와 함께 안전한 대피소로 이동하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Q 사업 추진 중 가장 어려웠거나 인상 깊었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반복적인 재난을 경험한 주민들은 외부에서 온 저희에게 마음을 열고 솔직한 심정을 이야기하는 것을 꺼리기도 했습니다. 초기에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 정확한 데이터를 얻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저희의 성과 데이터가 실제로 주민들의 삶의 변화를 증명했을 때입니다.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자 주민들은 놀라운 잠재력을 보여줬고, 스스로 변화의 주체가 되는 모습을 보며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 홍수가 난 찌따룸강 하류 지역의 모습



• 찌따룸강 유역 홍수 예경보 시스템 종합상황실 모습

Q 재난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도 많이 사라졌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불안의 가장 큰 원인은 '불확실성'과 '통제 불가능성'입니다. 홍수 예경보 시스템은 예측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불확실성을 줄여줬고, 주민들이 사전에 대피 계획을 세우고 실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통제감을 높여줬습니다. 이는 심리적 안정감과 삶의 질 향상으로 직결됐습니다.

Q 이 사업 후 인도네시아 주민들이 코이카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됐을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코이카와 대한민국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압도적이었습니다. 특히 주민들은 코이카가 자신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저희가 실시한 의견 수렴 과정이 주민들에게는 자신들의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불안)에 진심으로 공감하고 해결책을 함께 찾아가는 과정으로 인식된 것으로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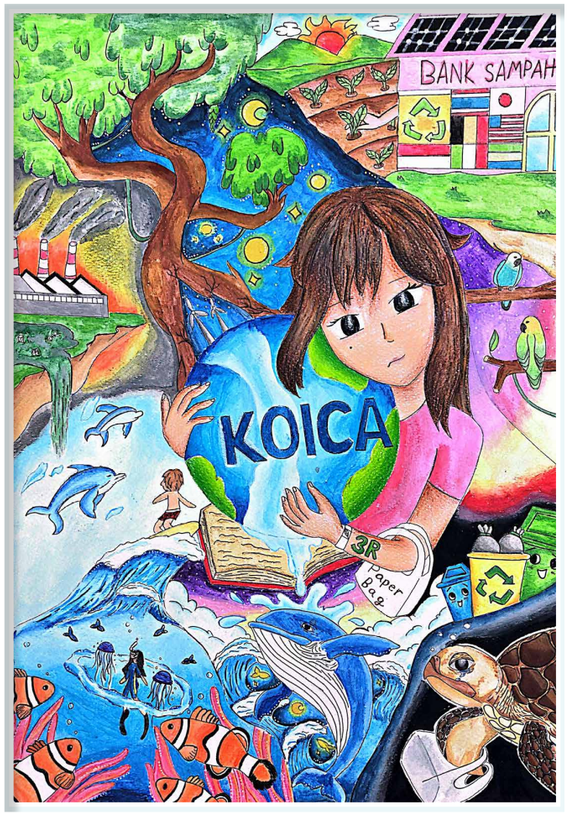
Q 현지에는 다른 나라와 기관도 ODA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펼쳤을 텐데, 그들과 코이카 사업의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제가 생각하는 코이카 사업의 가장 큰 차별점은 '인간 중심의 접근(Human-Centered Approach)'과 '철저한 성과 중심의 관리'입니다. 많은 ODA 사업이 인프라 구축 같은 하드웨어 제공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업은 초기부터 저희와 같은 성과 관리 전문가들을 투입해 주민들의 심리·사회적 요인을 깊이 고려했습니다. 또한 명확한 성과 관리 체계를 수립해 단순 장비 설치가 아닌, 실제 주민들의 행동 변화나 불안감 감소와 같은 실질적인 성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입증했다는 점이 큰 강점입니다.

Q 이번 사업에 참여한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이번 사업은 재난 관리에서 기술과 더불어 주민들의 심리와 행동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준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또한 성과 관리가 단순히 사업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넘어, 주민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계속해서 지속 가능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프로젝트를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푸른 하늘의 날’ 포스터 공모전 수상작

태국 청소년들이 꿈꾸는 청명한 하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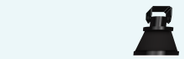
매년 9월 7일은 한국이 유엔(UN)에 제안해서 채택된 국제기념일 ‘푸른 하늘의 날’이다. 숨 쉬는 공기와 마시는 물의 소중함을 함께 생각해보자는 의미를 담아 2019년 제정됐다. 코이카 태국사무소는 이 뜻깊은 날을 맞아 봉사단원들과 함께 ‘2025 코이카 푸른 하늘의 날 사업’을 통해 태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환경보호 포스터 공모전’을 진행했다. 방콕에 있는 12개 학교와 코이카 봉사단원이 파견된 13개 대학교 등 25개 학교의 많은 학생들이 참가해 ‘우리 공기와 물 보호’라는 주제에 걸맞게 깨끗한 지구 환경을 염원하는 마음을 하얀 캔버스 위에 수놓았다.



<대상> ‘KOICA Green Hea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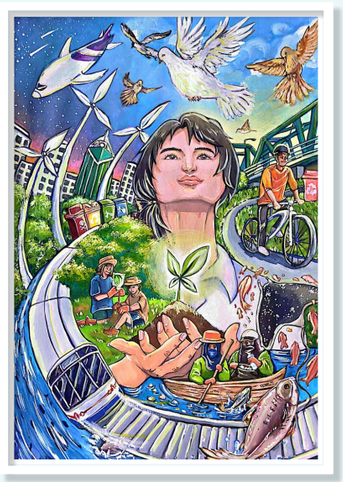












<2등> 왼쪽부터 ‘A Whole New World’, ‘Every Green Begins with a Small Point in Our Heart’, ‘Protecting Our Air and Water’





<3등>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Eco Echo’, ‘Forest’s Breath’, ‘Join Together to Preserve the World’









<장려상1>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KOICA for Earth’, ‘Protect the Environment’, ‘Together, We Protect Water and Air’, ‘Reduce Air Pollution for Fresh Air’







<장려상2> 왼쪽부터 ‘Impact of Air and Water Pollution’, ‘KOICA Green Step’, ‘The Crack We Call Progress’



• 바누아투 농민들이 ToT 프로그램 관련 워크숍에 참가해 태블릿PC 카메라로 타로와 카사바의 무게를 측정하는 방법을 교육받고 있다.

전종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 기후변화분석과장 기고

‘재배 시기 계획부터 작물 무게 측정까지 AI와 함께’ AI 농업 정보 시스템으로 달라진 바누아투 농가

태평양의 작은 섬나라 바누아투는 지속적인 해수면 상승과 해마다 반복되는 사이클론으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 2020년 사이클론 ‘해럴드’가 바누아투와 통가, 솔로몬제도를 강타해 이 지역 주민들은 재난을 겪어야 했다. 바누아투는 국민 대부분이 농업·어업·관광업 등 자연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는 산업에 종사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기후변화는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생존의 문제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APCC, 이하 아태기후센터)는 녹색기후기금(GCF)의 지원을 받아 ‘바누아투 회복력 향상을 위한 기후 정보 서비스 개발 사업(이하 VanKIRAP 사업)’을 2018년부터 수행하고 있다. VanKIRAP 사업은 바누아투 국민이 스스로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한국이 GCF로부터 처음 수주한 국제 협력 프로젝트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큰 사업이다.

기후변화 대응은 더 이상 개별 국가의 역량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GCF와 같은 국제 기후기금은 개발도상국이 기후변화의 피해를 완화하고 적응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 메커니즘이다. 기후기금을 통해 기술과 자본이 결합하면 취약한 지역에서도 지속 가능한 변화가 가능하다. VanKIRAP 사업은 GCF를 통해 현지 기후정보 서비스 구축과 인재 양성, 자립 시스템 운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다.

맞춤형 농업 기후 정보 서비스 ‘OSCAR’ AI와 만나 농가 효율 극대화

VanKIRAP 사업의 핵심 성과는 ‘OSCAR(tailOred System of Climate services for AgRiculture, 농업 기후 정보 서비스 시스템)’의 개발과 이양이다. OSCAR는 기상·기후 예보, 토양 정보, 농업 기후 지수, 가뭄 및 폭염 조기 경보 지수 등을 통합해 바누아투 농민과 정책 결정자에게 실시간 제공하는 맞춤형 농업 기후 정보 서비스 시스템이다. 또한 바누아투 주요 섬을 대상으로 최초의 전자토양도를 구축해 서비스하고 있다. 실제로 OSCAR를 소개하는 SNS 게시물에 많은 농민과 관계자들의 질문, 댓글이 이어지는 등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아태기후센터는 기술 중심이 아닌 현지 수요 중심의 접근 방식을 채택했다. OSCAR 활용에 능숙한 농민이 이웃 농민을 교육할 수 있도록 설계한 ToT(Training of Trainers) 프로그램을 통해 바누아투 정부 공무원, 농업 지도관, 데이터 수집자들이 스스로 시스템을 운영하고 유지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했다. 그 결과 바누아투 정부는 독립적으로 기후 정보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다. 현재는 아태기후센터의 직접적인 개입 없이도 OSCAR를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이 바누아투 정부 주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 내용이 SNS를 통해 활발히 공유되고 있다.

VanKIRAP 사업은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성공적으로 적용한 대표 사례로도 평가된다. 개발도상국은 기상·대기 관측소 등 현장 데이터를 확보할 인프라가 미비하고, 비용이 높은 고해상도 위성 영상에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아태기후센터는 이런 기술 및 데이터 접근성 격차를 AI 기술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AI 기반 초해상도(Super Resolution) 기법으로 저해상도의 위성 자료를 고해상도로 복원해, OSCAR만의 독자적인 고해상도 지도를 구축한 것이다. 농민은 이 지도를 통해 바누아투의 복잡한 지형과 다양한 농업 환경을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고, 작물 재배와 토양 관리에 더욱 정확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됐다.

OSCAR와 함께 개발된 CCD(Crop-Climate Diary)에는 현장 친화적인 AI 기능이 탑재됐다. 특히 아태기후센터는 태블릿PC의 카메라 기능을 활용해 열대성 작물 타로와 카사바의 무게를 AI 기반으로 자동 추정하는 기능을 개발했다. 이 기능을 통해 바누아투 농민은 별도 장비 없이도 작물 생육 상태를 정량적으로 기록할 수 있어 농업 데이터의 품질이 크게 향상됐다. 이 기능은 바누아투 현지 워크숍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많은 농민이 타로와 카사바의 무게를 직접 측정하며 실습에 적극 참여했고, 현장에서는 “AI가 우리 작물의 무게를 재주는 시대가 왔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AI 기술이 현지인의 삶에 스며들며 기후 정보가 생활 도구로 자리 잡는 뜻깊은 결과이다.

기후 정보는 ‘생존 언어’ 바누아투 사례 본보기로 삼아야

OSCAR의 또 다른 차별점은 새로운 정보뿐만 아니라 바누아투 농민들이 기존에 해오던 전통 지식(Traditional Knowlege) 기반의 대처법도 함께 제공했다는 것이다. 농민들이 OSCAR의 정보를 직접 활용하기 시작하자 바누아투의 농업 현장에는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났다. 가뭄이 예보되면 농민들은 ‘멀칭(Mulching)’* 등 전통 지식 기



• 아태기후센터-바누아투 정부의 맞춤형 농업 기후 정보 서비스 시스템 ‘OSCAR’ 이양식. 오른쪽이 필자인 전종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 기후변화분석과장이다.

* 작물 주변의 토양 표면을 짚, 비닐, 낙엽, 나무껍질 등으로 덮어 수분 증발을 줄이고 잡초 발생을 억제하며 토양 온도를 조절하는 기술



• 맞춤형 농업 기후 정보 서비스 시스템 'OSCAR' 활용에 능숙한 농민이 이웃 농민을 교육할 수 있도록 설계한 ToT 프로그램이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ToT 프로그램 관련 워크숍에 바누아투 농민들이 열정적으로 함께했다.

반 농법으로 대비하고, '농업기후정보지(Agromet-Bulletin)'의 예측 정보를 활용해 타로와 카사바의 재배 시기를 조정하는 등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도 함께 하는 것이다. 한 현지 농민은 "OSCAR의 생산량 예측 기능을 통해 작물 수확량을 미리 알 수 있고, 이에 따라 적절하게 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시스템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 도구가 됐으며, 결과적으로 바누아투의 식량 안보와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했다. 아태기후센터는 여러 나라의 기후 모델을 종합해 예측성이 한층 뛰어난 기후 정보를 생산하는 '다중모델앙상블(Multi-Model Ensemble) 기법'을 통해 1~6개월 앞의 계절 예측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바누아투는 이 예측 정보로 강수량과 기온의 변화를 미리 파악해 농업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기후 회복력 있는 농업 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다.

VanKIRAP 사업의 성과는 태평양기후전망포럼(PICOF), 태평양기상위원회(PMC), 그리고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COP29, COP30) 등에서 발표되며 국제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 특히 바누아투 기후변화부(MOCC)와 농림수산부(MALFFB)는 OSCAR의 성공적 운영에 깊은 신뢰를 보이며, 후속 사업 추진에 공식 합의했다. 현재 아태기후센터와 태평양환경계획사무국(SPREP)은 GCF 기금을 추가 확보해 OSCAR를 고도화하고, 다른 태평양 도서국으로 확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제개발협력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 '모든 일은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점을 함께 이해하는 일이다. 수원국의 이해관계자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함께 판단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VanKIRAP 사업의 주요 이해관계자들은 "여러 국가 기관들과 협력하고 있는데, 아태기후센터 팀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논의하고 의사결정을 함께 한다"고 말하며 진심 어린 감사를 전하기도 했다. 이러한 신뢰와 공감의 협력 관계가 있었기에 기술적 성과 이상의 지속 가능한 변화가 가능했다.

VanKIRAP 사업의 진정한 성과는 단순히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데 있지 않다. 이 사업은 기후 정보를 통한 자립과 연대의 모델을 제시했다. 기후 정보가 현지인의 언어로 번역되고, 농민의 삶 속에 스며들면서 '기후 정보는 생존의 언어'가 됐다.

기후변화는 국경을 초월한 인류 공동의 위기다. 바누아투의 경험은 곧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다.

한국은 기후 정보 서비스와 인공지능 기술, 그리고 GCF를 통한 협력 체계를 결합해 태평양 도서국과 함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며, 기후위기 대응 선도국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것이다. K

KOICA
피코프렌즈 첫 출동 기념 찰칵!
Peko FRIENDS
피코프렌즈를 소개합니다!









국제개발 파트너십 주간 2025

“국제개발협력 도전 과제와 발전 방향을 논의하다”

코이카가 2025년 9월 21일부터 10월 3일까지 외교부와 공동으로 '국제개발 파트너십 주간 2025'를 개최했다. 자리를 함께한 세계 각계각층의 인사들은 제18회 서울 ODA 국제회의, 제8차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 포럼 등 다양한 회의에 참석하며 개발도상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제18회 서울 ODA 국제회의

“세비야 약속에서 서울 해법으로… 모범적 개발협력 모델을 제시할 것”



• 코이카와 외교부가 공동 주최한 ‘제18회 서울 ODA 국제회의’가 2025년 9월 29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렸다. 장원삼 코이카 이사장,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 이윤영 코이카 이사, 카르스텐 스타우어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 의장, 줄리아 벤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총공적지원 사무국장 등이 개막식에 참석했다.

2025년 9월 29일 코이카와 외교부가 공동 주최한 ‘제18회 서울 ODA 국제회의’가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렸다. 2007년을 시작으로 ‘국제개발 파트너십 주간 2025’의 일환으로 열린 서울 ODA 국제회의는 정부·민간·학계 등 개발협력의 다양한 구성원이 모여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글로벌 대화의 장이다.

‘개발재원 파트너십: 미래를 위한 논의’를 주제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ODA(공적개발원조) 공여국·수원국 등 각국 정부 및 개발 전담 기관, 주요 국제기구, 시민사회, 학계, 주한 외교단, 일반 시민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코이카는 국제회의를 온라인 생중계해 세계 각국에서 행사를 함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회의는 ‘세비야 약속(Compromiso de Sevilla)’의 연장선상에서 논의가 주로 이뤄졌다. 세비야 약속은 2025년 6월 국제사회가 복합위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스페인 세비야에서 개최한 제4차 개발재원총회(FfD4)의 ‘개발재원의 효과적 동원과 활용 방안’에 관한 회의 결과 문서다. 이번 회의는 국제사회가 ‘세비야 약속’을 실행하는 실질적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장원삼 코이카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개발협력 주체 간 연대와 협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지금, 연속적인 논의의 장을 통해 ODA 중심 개발재원의 한계를 넘어서는 해법을 함께 모색하고, 실질적 협력을 도모하는 뜻깊은 자리를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은 환영사를 통해 “제4차 개발재원총회는 다자간 개발협력의 진전을 마련한 중요한 자리였다”며 “세비야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한 구체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카르스텐 스타우어(Carsten Staur)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의장도 기조연설을 통해 “세비야 약속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점으로, 우리 모두 리더십을 발휘해 국제사회 공동의 목표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실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세비야 약속’ 이행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

박종한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이 좌장으로 나선 첫 번째 세션은 ‘제4차 개발재원총회 결과와 한국의 기여’를 중심으로 총회 주요 결과 공유, 향후 전망, 시사점 등을 논의했다.

첫 번째 연사로 나선 줄리아 벤(Julia Benn)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총공적지원(TOSSD) 사무국장은 ‘주인의식 강화’, ‘투명성 개선’, ‘포용적인 거버넌스’ 등 TOSSD의 핵심 가치와 목표를 소개하며 “TOSSD가 추구하는 핵심 축이 결국 글로벌 파트너십의 개발 효과성 원칙과 맥락을 같이하며, 전통적 방식의 ODA를 넘어선 다양한 방법을 통해 선진국과 개도국이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올리버 슈뱅크(Oliver Schwank) 유엔 경제사회국 지속가능발전재원국 정책분석 과장은 세비야 약속 이행의 전반적인 상황, 이에 따른 유엔의 역할과 전략을 소개하며 국제사회가 당면한 도전 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자간, 다자주의적 파트너십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연사로 나선 송지선 국립외교원 교수는 ‘한국의 ODA 전략 및 개발 효과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송 교수는 급변하는 국제개발협력 환경 속에서 한국 정부가 ‘세비야 약속’을 계승하기 위해 포괄적·효과적 ODA 구축을 목표로 양적 확대와 질적 제고를 동시 추진하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ODA를 통해 평화·안보·기후환경 등 글로벌 도전 과제에 다차원적으로 대응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개회사를 하는 장원삼 코이카 이사장. 장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ODA 중심 개발재원의 한계를 넘어서는 해법을 함께 모색하자고 말했다.



•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이 환영사를 통해 세비야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한 구체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공동 행동을 위한 세 가지 우선순위를 강조했다.

혁신적인 협력 모델 기반, 각국 성공 사례 공유

박경렬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가 좌장으로 나선 두 번째 세션에서는 ‘개발재원과 파트너십: 동원, 연계, 조정의 전략’을 주제로 발표가 이어졌다. 특히 이 세션에서는 노르웨이 개발협력청(Norad), 멕시코



• (왼쪽부터) 박종한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을 좌장으로 줄리아 벤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총공적지원 사무국장, 올리버 슈뱅크 유엔 경제사회국 지속가능발전재원국 정책분석 과장, 송지선 국립외교원 교수가 연사로 참석한 가운데 ‘제4차 개발재원총회 결과와 한국의 기여’를 주제로 첫 번째 세션이 진행됐다.



• 올리버 슈뱅크 유엔 경제사회국 지속가능발전재원국 정책분석 과장이 세비야 약속 이행을 가로막는 도전 과제에 대해 언급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여국과 수원국 간 시각차 축소,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한 다자주의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크리스토퍼 클럽 컨버전스 블렌디드 파이낸스 전무이사는 민간투자 확대를 통한 혼합금융 조성의 핵심 요소로 사업화의 콘텐츠 정립, 표준 설루션 개발, 프로젝트 투자 확대 및 효과성 확보를 강조했다.

국제개발협력청(AMEXCID), 페루 국제개발협력청(APCI), 유엔개발계획(UNDP), 컨버전스 블렌디드 파이낸스(Convergence Blended Finance)의 개발협력 파트너들이 연사로 나와 각 기관의 성공 사례를 공유했다.



• 박경렬 한국과학기술원 교수를 좌장으로 열린 두 번째 세션 주제는 '개발재원과 파트너십: 동원, 연계, 조정의 전략'으로 5명의 연사가 나와 각국의 개발협력 성공 사례를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안데르스 아보(Anders Aabo) 노르웨이 개발협력청 기후·자연 및 민간부문국 수석고문은 기후 및 식량안보 분야에서 혁신적인 재원 조달 및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한 개발 효과 증진 사례를 발표했다. 그중 코이카와의 공동 협력 사업인 아프리카 내 농업 중소기업 대상의 금융 지원을 강화하는 'FASA(Financing for Agri-SMEs in Africa)'와 같은 이니셔티브를 통해 농촌 개발 및 식량안보에 기여하는 전략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다자협력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언급한 안데르스 아보 수석고문은 "서울 ODA 국제회의 같은 다양한 만남의 장이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새로운 협력 기회를 창출하는 중요한 플랫폼이 되어준다"며 코이카와 외교부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노엘라 판토하 크레스포(Noela Pantoja Crespo) 페루 국제개발협력청 사무총장은 개발도상국 간의 자원, 기술, 지식 교환을 통해 상호 이익과 연대를 추구하는 '남남협력', 개발도상국이 선진국 또는 국제기구의 지원을 받아 개발협력을 추진하는 '삼각협력', 남남협력과 삼각협력을 혼합·확대한 '순환협력' 등 다양하고 혁신적인 협력 모델을 통한 페루의 개발재원 확보 사례를 공유했다.

팀 스트로슨(Tim Strawson) 유엔개발계획 지속가능금융 허브 팀장은 '통합 국가금융 프레임워크(INFF)'를 통한 지속가능개발목표 재원 동원과 개발 효과성 전략을, 크리스토퍼 클럽(Christopher Clubb) 컨버전스 블렌디드 파이낸스 전무이사는 SDGs 달성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민간 부문의 자본을 개발 프로젝트로 유입시키는 '혼합금융의 역할과 과제'를 제시했다.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시간이 지날수록 회의는 더욱 무르익어 갔다. 마지막 세 번째 세션에서는 2011년 부산세계총회에서 시작한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GPEDC)'이 변화하는 개발협력 환경 속에서 어떻게 재해석되고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이었다. 'GPEDC 원칙으로 본 개발재원 거버넌스의 미래'를 주제로 김지현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연구위원이 좌장으로 나섰다. 크리스티나 하틀러(Christina Hartler)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청 부청장 직무대리와 데바프리야 바타차리야(Debapriya Bhattacharya) 정책대화센터 명예석학이 연사로 나와 발표를 이어갔다.

크리스티나 하틀러 부청장 직무대리는 "ODA 중심 개발협력의 핵심 가치인 개발효과성이 현재의 복잡하고 제한된 재원 환경 속에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촉진하는 필수적 요소"라고 말했다. 또한 "GPEDC 원칙을 통해 재원 확대는 물론 투입된 재원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개발재원 거버넌스의 핵심 방향이며, 이를 위해 글로벌 파트너십의 강화가 더욱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제18회 서울 ODA 국제회의에서 마지막 연사로 나선 데바프리야 바타차리야 정책대화센터 명예석학은 남반구의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을 일컫는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관점에서 개발 효과성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복잡·다변화하는 개발재원 환경 속에서 GPEDC 원칙의 적용과 확장의 필요성, 거버넌스 강화 등을 강조했다. 덧붙여 다층적 위기 속 개발협력의 생존법이자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간극을 좁힐 수 있는 무기로 '대화'를 꼽아 청중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 회의를 함께한 참석자들은 매 시간 연사들의 열띤 이야기를 메모해가며 큰 관심을 드러냈다.

각 세션 마지막에는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 올라온 질문들을 해당 연사에게 직접 들어보는 Q&A 시간을 가져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나눴다.

이윤영 코이카 이사는 폐회식 폐회사를 통해 "제4차 개발재원총회 결과 문서인 '세비야 약속'을 단순한 선언이 아닌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실질적 방안들을 국제사회가 함께 모색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며 "혼합금융, 남남협력·삼각협력·순환협력 등 다양한 파트너십 기반 재원 조달 모델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협력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 논의한 다양한 혁신적 재원 조달 전략과 개발 효과성 원칙이 국제사회의 행동으로 이어져 더욱 지속 가능하고 공평한 미래를 건설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간절한 염원을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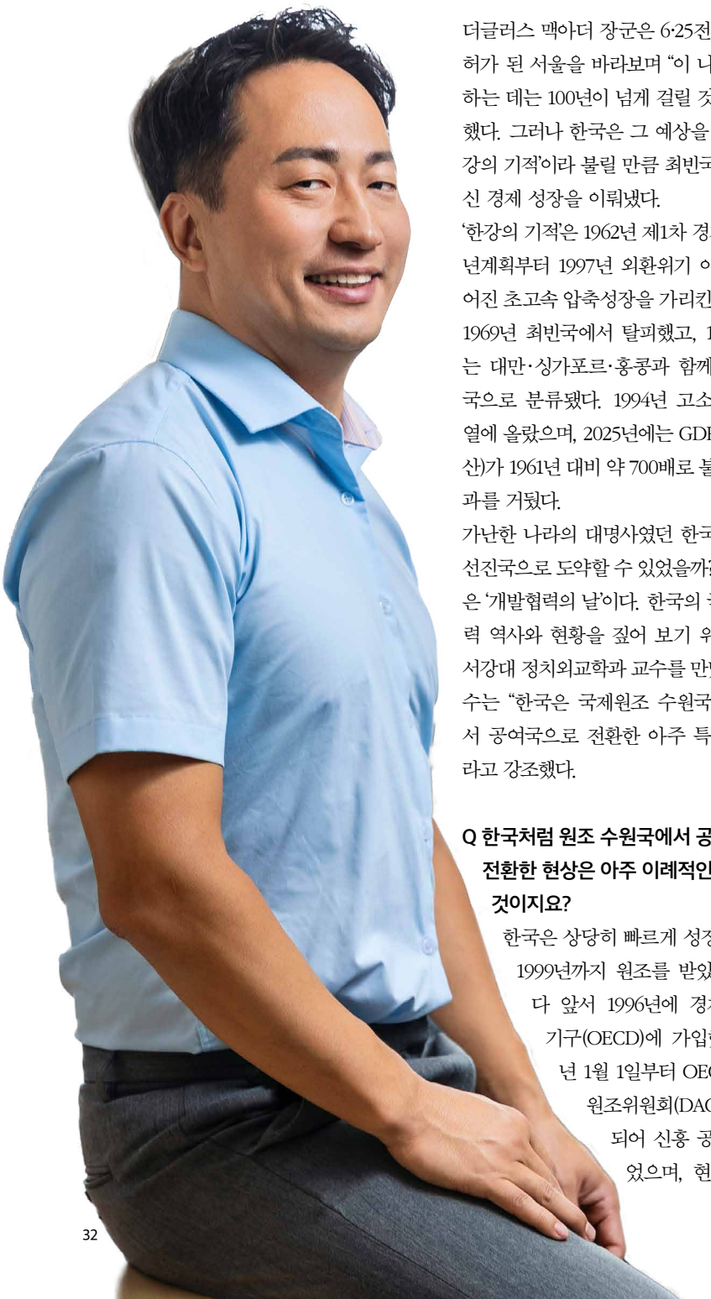
코이카와 외교부는 지난 9월 21일~10월 3일 '2025 국제개발 파트너십 주간'을 개최해 제18회 서울 ODA 국제회의, 제8차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 포럼, 믹타(MIKTA) 개발협력기관 협의회 고위급 회의, 제30차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GPEDC) 운영위원회' 등을 열고 국내외 개발협력 활동 주체들과 함께 국제개발협력 도전 과제와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장을 마련했다. K



• 크리스티나 하틀러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청 부청장 직무대리가 GPEDC 4가지 원칙(국가 주인의식, 결과 중심, 포용적 파트너십, 투명성과 상호책무성)을 발전시키는 것이 개발재원 거버넌스의 핵심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완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인터뷰

“한국만의 정(情) 있는 ODA… 우리만의 강점 살린 어젠다 발굴해야”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은 6·25전쟁 직후 폐허가 된 서울을 바라보며 “이 나라를 재건하는 데는 100년이 넘게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은 그 예상을 뒤엎고 ‘한강의 기적’이라 불릴 만큼 최빈국에서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뤄냈다.

‘한강의 기적’은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부터 1997년 외환위기 이전까지 이어진 초고속 압축성장을 가리킨다. 한국은 1969년 최빈국에서 탈피했고, 1980년대에는 대만·싱가포르·홍콩과 함께 신흥공업국으로 분류됐다. 1994년 고소득국가 반열에 올랐으며, 2025년에는 GDP(국내총생산)가 1961년 대비 약 700배로 불어나는 성과를 거뒀다.

가난한 나라의 대명사였던 한국이 어떻게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을까? 11월 25일은 ‘개발협력의 날’이다.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역사와 현황을 짚어 보기 위해 김영완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만났다. 김 교수는 “한국은 국제원조 수원국(受援國)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아주 특별한 국가”라고 강조했다.

Q 한국처럼 원조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현상은 아주 이례적인 것이지요?

한국은 상당히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1999년까지 원조를 받았지만 그보다 앞서 1996년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했고, 2010년 1월 1일부터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 멤버가 되어 신흥 공여국이 되었으며, 현재는 ‘전통공여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Q 현재 세계 속에서 한국 ODA (공적개발원조)의 규모와 성격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한국은 2024년 39억 4,000만 달러를 공여해, 총액으로 따지면 유럽연합(EU)을 포함한 33개 DAC 회원국 중 13위입니다. 하지만 GNI(국민총소득·Gross National Income) 대비 ODA 비율은 0.21%로 하위 7위 수준입니다. 그것도 2024년에 GNI 대비 ODA 비율이 처음으로 0.2%를 넘어선 것이고, 2015~2023년에는 0.14~0.17% 사이였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목표로 하는 GNI 대비 ODA 비율이 0.7%임을 감안하고 한국 ODA 총액을 고려한다면 아직은 주요 공여국으로 자리 잡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Q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활동은 어떤 주요 성과를 남겼나요?

한국 자체가 ODA를 통해 엄청나게 성장했습니다. ODA는 국가의 소프트파워와 국익을 증진시키는 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ODA 사업으로 다리나 도로가 건설되면 한국 국기가 함께 걸리지요. 그러면 그 나라 사람들이 ‘아, 이게 한국에서 지어준 거구나’ 하고 인식하게 되죠. 코이카는 ICT센터, 학교 등 커뮤니티 중심 개발협력 사업을 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특히 볼리비아 엘 알토(El Alto)의 ‘한국병원(Hospital Municipal Modelo Corea)’이 좋은 사례입니다. 기초의료시설이 취약했던 이 지역에 1998년 병원을 설립했고, 2차 지원을 통해 산부인과와 소아과를 추가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볼리비아 내에서 최고의 산모병원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곳에서 출산한 산모들 사이에 ‘한국병원이 최고’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한국의 이미지가 더 좋아졌죠. 이런 경험이 쌓이면 한국인과 한국 기업을 자연스럽게 반기는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Q ODA를 통해 한국의 위상이 긍정적으로 바뀌었군요.

당연합니다. 현지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구축되면 기업들이 활동하기도 좋아져요. 공공외교 성과를 말할 때 ‘공공외교 예산을 아무리 많이 써도 BTS 하나만 못하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국가 이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ODA가 한국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바꾸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은 식민 지배를 한 적 없는 공여국이기 때문에 한국 ODA의 의미가 더욱 특별합니다. 영국, 프랑스 등 대부분의 공여국은 식민 지배 경험이 있어서, 그들이 ODA를 하면 수원국 국민들은 그 이면에 숨겨진 의도가 있다고 의심하죠. 한국은 순수한 의도로 ODA를 시작했고, ODA는 한국의 이미지를 개선시켰습니다.

Q 한국형 개발협력의 가장 큰 문제점은 예산의 한계라고 하셨는데, 이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예산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중국은 자금력이 많아 아예 무상으로 도로나 빌딩을 지어 줍니다. 아프리카에 가보면 중국이 지은 빌딩은 휘황찬란해서 금방 알아볼 수 있어요. 그렇게 개발해 주고, 나오는 이익이나 자원은 중국의 것이 됩니다. 일본은 ‘장인정신’이 있어서 장기간 많은 예산을 투입해 특정 분야를 꾸준히 길게 파고듭니다. 이들에 비하면 한국이 제한된 예산으로 단기간에 눈에 띄는 성과를 내기에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죠.



• 김영완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왼쪽에서 두 번째)가 에티오피아에서 개발협력사업을 위해 현장조사 인터뷰하는 모습

Q 반대로 한국만의 강점은요?

가장 큰 장점은 성실함입니다. 무엇이든 맡기면 자기 일처럼 최선을 다하는 게 한국인이고 한국의 문화죠. 또 한국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 공여국으로 전환한 유일한 나라잖아요. 힘들었던 경험이 있으니 다른 개도국의 귀감이 됩니다. 성장 경험을 잘 살리면서 개도국의 심정을 이해하는 게 큰 강점이지요. 또, 제가 현장을 다니며 느낀 흥미로운 점 중 하나는 개도국 주민들의 한국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 대한 시선과는 다르다는 점입니다. 대체로 한국이 그들의 어려움을 잘 이해하고 개도국 사람들을 편견 없이 따뜻하게 대해 준다는 좋은 시선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 한국은 ‘정(情)이 있는 ODA’를 하는 국가다.

Q 다른 공여국 모델과 한국의 모델은 어떻게 차별화될 수 있을까요?

통합적 개발협력 사업을 한국형 ODA 모델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만의 ODA 전략 수립도 필요하지요. 아랄해 위기 대응 사업은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lobal Green Growth Institute·GGGI)와 협력한 사례인데 ‘녹색채권’을 발행해 민간 투자를 유치한 혁신적인 사업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접근 등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에서 우리나라가 선도적 역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Q 통합적 개발협력사업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통합적 개발협력 사업이란 개발협력 추진 시 하나의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섹터의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통합해 진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공동체 기반 개발협력 사업에서 이러한 통합적 접근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공동체 기반 개발협력은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도 높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국의 모델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을 개발 사업을 수행할 때 보건, 교육, 소득 증대, 갈등 완화, 여성 인권 증진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동시에 또는 단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마을 전체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의 장점은 서로 다른 사업 간의 상호 보완 효과를 통해 사업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Q 새로운 국제 어젠다가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요?

전 세계적으로 난민 문제는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난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그들이 정착하거나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난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으면 대부분 부정적으로 답합니다. 하지만 난민의 정의가 무엇인가를 질문하면 대부분 정확히 설명하지 못합니다. 난민은 정치적 이유 등으로 박해를 받아 자국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본국을 떠난 사람입니다. 실제로 난민들에게 물어보면 대부분은 고향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기에 난민이 된 것이죠. 그 누구도 스스로 난민이 되길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따라서 난민은 본



• 필리핀 이나와 학교(ICT 교육 사업장)에서 아이들과 함께한 김영완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필리핀 ICT 역량 강화 사업지인 라구따이 학교로 가는 길

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정치적 여건이 마련될 때까지 현재 머물고 있는 곳에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난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개발협력 사업을 한국이 주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과 친환경 정책 추진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GGGI는 한국에서 출범한 국제기구로, 환경 분야에서 한국이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플랫폼이자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Q 기후위기 대응 어젠다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후위기 대응 어젠다가 중요한 이유는 기후위기가 국제개발협력만의 과제가 아니라 전 인류가 직면한 공동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전 세계가 기후위기의 위협을 받고 있으며, 선진국의 시민들 또한 그 영향을 피할 수 없습니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우 경제 구조상 농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기후변화로 인한 타격이 더욱 직접적입니다. 기후위기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거나, 심지어 삶의 터전을 잃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환경 난민'이라는 개념이 등장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 세계가 협력하여 개발도상국이 겪고 있는 기후위기의 영향을 완화하고, 지속 가능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새로운 국제 어젠다에 기여하면 한국의 위상도 자연스럽게 올라가겠군요.

맞습니다. ODA는 단순히 '도와준다'는 개념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개발도상국 주민의 삶을 발전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면 한국 기업도 진출할 수 있고, 그렇게 하나의 ODA 생태계가 형성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많은 사람이 ODA를 '세금 낭비'로 보는 등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Q ODA가 예산 낭비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저는 'ODA는 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ODA가 예산 낭비라는 비판은 주로 두 가지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첫 번째 오해는 ODA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인식에서 발생합니다. 과거 일부 사례에서 ODA가 투명하게 집행되지 않았다고 알려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공여국도 마주한 문제였죠.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ODA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정책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문제이며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현재는 ODA의 집행 구조가 한층 투명해지고, 철저한 관리·감독 체계가 구축되어 사업의 신뢰성과 효과성이 꾸준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ODA가 국민의 삶과 무관하다는 생각입니다. ODA가 국익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고려한다면 이것 역시 오해에 지나지 않습니다.

Q 국내에 급한 예산도 많은데 굳이 ODA를 줘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국내의 긴급한 예산 사용도 분명 중요하지만, ODA를 꾸준히 제공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단기적 지출이 아니라 국가의 장기적 이익과 전략적 자산 구축에 직결되는 투자이기 때문입니다. ODA는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한국의 신뢰도와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는 핵심 외교 수단입니다. 한 국가의 이미지는 하루아침에 형성되지 않으며, 오랜 기간에 걸친 지속적이고 일관된 노력을 통해 구축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문화, 기술,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때 ODA는 우리나라의 긍정적 이미지를 공고히 하고, 상호 신뢰와 호감에 기반한 국제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효과적 수단이 됩니다. 결국 ODA는 해외를 위한 기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스스로의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입니다.

Q 여러 나라에서 ODA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어떻게 보나요?

미국이 이제까지 ODA를 국익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는 것은 여러 연구를 통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ODA가 예산 낭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국제개발처(USAID) 축소 결정은 이 기구가 전 세계에서 개발협력 사업을 하며 미국 이미지 개선과 소프트파워 형성에 기여한 점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입니다. 한국에서도 ODA가 얼마나 국가 이미지 개선과 소프트파워 제고에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지요. 우리나라 정부 예산에서 오랫동안 ODA는 사실상 1%도 안 됐습니다. 미국도 비슷하고요. 그 예산을 아끼려다 그간 쌓아 온 70~80년의 노력을 잃어버리는 셈입니다. 트럼프 이후 미국 정부에서는 상황이 변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Q 그럼에도 불구하고 ODA가 계속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제사회에서는 개발도상국의 성장을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인도주의적 차원입니다. 절대빈곤에 놓인 인구, 즉 생존에 필요한 의식주조차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는 인구는 전 세계 7억여 명으로, 2024년 기준 세계 인구의 약 8.5%에 달합니다. '왜 국내가 아니라 해외를 돕느냐'는 비판도 있지만, 절대빈곤이 거의 없는 한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개도국의 빈곤은 차원이 다릅니다. 또한 한국과 달리 개도국은 빈곤층에 대한 사회보장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기에 국제사회의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두 번째는 현실적 이유입니다. 분쟁과 빈곤은 결국 선진국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은 수출 중심 국가로, 원자재와 시장을 개도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들 국가를 돕지 않는다면 원자재 수입도 어려워질 수 있죠. 한국이 ODA 사업을 할 때 10을 주면 최소한 10을 돌려받고, 그 이상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ODA를 통해 개발도상국이 안정되고 성장하면 한국의 성장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양한 국가에 지원을 늘릴수록 더 많은 시장과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Q 이런 식으로 힘을 키우고 있는 국가는 어딘가요?

대표적인 사례는 중국입니다. 중국은 엄밀히 말하자면 ODA는 아니지만 원조의 형태로 다양한 재원을 활용해 아프리카에 막대한 투자를 하며 소프트파워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 국가가 54개국인데, 대만과 국교를 맺고 있는 에스와티니(옛 스와질랜드)를 제외하고 모두 중국-아프리카 정상 포럼에 참석합니다. 그만큼 관계를 밀착하니 아프리카에서 중국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도 되고, 자원 확보도 쉬워진 것이지요.

Q 일부 사람들은 아직도 '국제개발협력이 우리 국익에 어떤 도움이 되느냐'고 의문을 표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상 ODA는 곧 국익으로 직결됩니다. 개발도상국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면 언젠가 우리나라 제품을 구매하거나, 한국 기업과 협력하거나, 우리나라에 와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ODA를 하면 할수록 국익이 증진되고, 한국의 위상도 높아집니다.

Q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ODA는 우리나라의 국익 증진을 위한 마중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 기업이 해외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필요합니다. 우선 우리 기업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현지 정부의 협력이 필요하며, 또한 한국 기업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현지 주민들의 인식과 지지도 중요합니다. 정부나 민간 차원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은 매우 어려워집니다. 이 두 가지 요소를 확보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바로 ODA입니다. ODA는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현지 국민들의 신뢰와 호감을 얻는 데에도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한국 기업이 해외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자리 잡는다면, 이는 국내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Q 앞으로 한국 국제개발협력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한국이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합니다. 중국은 자본이 많고, 미국은 ODA 규모가 크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신 새로운 국제 어젠다를 제시하기에 좋은 나라입니다. 예컨대 기후위기 대응 같은 주제를 한국이 주도하면 국제사회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저는 'Zero ODA', 즉 'ODA가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ODA를 한다'는 슬로건을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ODA를 받아서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ODA를 공여하면서 좋은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있지만 한국만의 강점을 살려 특별한 어젠다를 담아낸다면 우리가 받았던 것처럼 국제사회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국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카르스텐 스타우르 OECD DAC 의장 인터뷰

“ODA 방향 바로잡아야 미래 비용 줄일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는 33개 주요 공여국이 참여하는 국제 협의체다. 이 협의체를 이끌고 있는 카르스텐 스타우르(Carsten Staur) OECD DAC 의장은 다자협력 분야에서 수십 년간 경험을 쌓은 인물로 2023년부터 의장직을 맡아 국제개발협력의 방향을 이끌고 있다. 그가 2025년 9월 21일 ~10월 3일 코이카와 외교부가 공동 주최한 ‘국제개발 파트너십 주간(Global Development Partnership Week)’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했다. 카르스텐 의장을 직접 만나 세계 공여국들이 직면한 도전과 책임, 그리고 그 속에서 변화하는 한국의 역할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 카르스텐 스타우르 OECD DAC 의장은 “가난하고 취약한 국가일수록 신속하고 단호하게 지원해야 세계가 직면한 문제를 더 쉽게 관리할 수 있다”고 전했다.

Q 기후변화와 지역 분쟁, 보건 위기 등으로 인해 국제개발 금융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공여국들은 ODA 예산을 감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 세계적 수요와 가용 자원 간의 격차를 어떻게 보십니까?

글로벌 개발 금융의 수요와 실제 가용 자원 간의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이러한 경향을 되돌리기는 쉽지 않겠지만 반드시 되돌려야 합니다. 원조 확대는 공여국들에 쉽지 않은 과제이며, 이들이 직면한 재정적·정치적 압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나아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전체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방위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압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세수를 확충하고 지출을 줄이는 등 재정 건전성을 회복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각국 정부가 ODA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지출에 더욱 신중해지는 것은 타당한 일입니다. ODA 예산뿐만 아니라 여러 정부 예산이 함께 삭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지금보다 더 넓은 시야로 상황을 바라봐야 합니다. ODA를 줄이는 것은 곧 인류 공동의 미래에 대한 필수 투자를 줄이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 문제는 러시아의 행동과 무관하게 여전히 우리 곁에 존재하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가 방향을 바로잡을수록 미래의 비용은 줄어듭니다. 이미 충분한 증거가 말해주듯, 기후행동은 시급하며 각국 정부는 적응과 완화를 위한 기후지원 등을 통해 이에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또 다른 과제는 빈곤과 불평등입니다. 많은 국가에서 두 문제가 동시에 심화되고 있습니다. 국가 간 불평등과 국가 내 불평등이 모두 확대되고 있으며 빈곤층의 수도 늘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심각한 흐름으로, 조속히 대응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글로벌 장기 과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해결을 위한 투자를 지속해야 합니다. 특히 가장 가난하고 취약한 국가들을 지원하는 데 있어 신속하고 단호하게 움직일수록 세계가 직면한 문제를 관리하기가 더 쉬워질 것입니다. 각국이 예산을 삭감한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개발협력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단기적인 감축은 장기적으로 훨씬 더 큰 비용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Q 개발 금융이 지속 가능하고 예측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DAC 회원국들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원칙이나 전략은 무엇입니까?

공여국 내부에서 개발협력의 필요성과 시급성, 그리고 다양한 현안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해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왜 개발협력에 투자해야 하는지, 왜 지금 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그 규모를 확대해야 하는지를 국민과 정치권이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반드시 해야 할 핵심 논의입니다.

또한 개발협력 투자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지원 초점은 특히 가난하고 취약하며 불안정한 국가들, 소규모 도서국가와 최빈개도국을 포함한 국가들에 맞춰져야 합니다. 이들 국가는 수출 수입이나 외국인 투자가 충분하지 않아 ODA 의존도가 높습니다. 보건, 교육, 인적 자본 등 여러 분야의 발전이 ODA에 크게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원은 앞으로도 최우선 과제로 유지돼야 합니다.

추가 재원을 동원하는 일도 매우 중요합니다. 혼합금융(Blended Finance)*은 비교적 새로운 개념이지만, 한정된 ODA를 활용해 더 큰 규모의 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점점 더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더 많은 자본을 확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ODA의 관리와 운영 방식도 개선해야 합니다. ‘원조 효과성 의제’는 여전히 핵심 과제입니다. 모든 달러와 유로, 스위스 프랑, 그리고 원화가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 원조 효과성을 저해하는 요인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원조 효과를 높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 혼합금융 : ODA와 같은 공공 재원과 민간 자본을 결합해 개발 목적을 달성하는 금융 구조

Q 개발원조가 더 효과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개발협력의 효과성을 저해하는 가장 뚜렷한 문제 중 하나는 ‘분절화(fragmentation)’입니다. OECD의 다양한 데이터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원조는 점점 더 많은 국가로 분산되고 있으며, 규모는 작아지고 전략적 접근도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별 프로젝트 중심의 접근이 강화되면서 국가 차원의 프로그램 단위 접근은 약화되고 있습니다. 공여국 간 협력이 줄어들고 수원국의 개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협의도 줄어들고 있다는 점 역시 문제로 지적됩니다. 이런 문제들은 여러 OECD 보고서와 분석에서도 명확히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우리는 더 잘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공여국 관점에서 ODA 효과성을 한층 높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핵심 요소는 협력 강화입니다. 여기에는 DAC 회원국인 전통적 공여국들, 예컨대 한국, 유럽연합, 미국, 캐나다, 호주뿐만 아니라 남남협력 공여국과 비전통적 파트너들을 모두 포함합니다. 라틴아메리카, 동남아시아, 아랍권, 터키 등도 오늘날 개발협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행위자들이 함께 모여 서로의 경험에서 배우고 조정하며 협력해 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돕고자 하는 국가와 사람들에게 더 효과적이고 의미 있는 개발협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Q 한국은 과거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성장한 대표 성공 사례로 자주 언급됩니다. 개발협력 역량을 강화하려는 다른 국가들에 어떤 방식으로 경험을 공유할 수 있을까요?

한국은 지금의 모습 자체로 이미 모범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이뤄낸 변화의 여정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뉴욕에서 재임하던 시절, 그는 종종 자신이 어렸던 1950~1960년대 한국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당시 한국은 여전히 개발도상국이었고, 그 시대의 많은 나라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높은 1인당 국민소득과 다양한 산업 분야의 성과를 바탕으로 역동적이고 활력 있는 경제 성장을 일궜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거둔 이 성장의 궤적은 매우 강력한 본보기가 됩니다. 한국은 싱가포르 등 일부 국가들과 함께, 국민 전체가 혜택을 누리는 개방적이고 확장적인 경제를 만들 수 있음을 세계에 입증했습니다.

물론 모든 나라에는 각자의 도전이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예로 들면, 한국 역시 녹색전환을 추진하며 자국 내 기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곧 ‘실천을 통한 학습’이며, 국가가 겪는 문제와 경험이 개발협력의 통찰



• 세계 ODA 관리 기구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OECD DAC)'를 이끌고 있는 카르스텐 스타우르 의장

과 영감으로 이어지는 순환적 과정입니다. 한국은 이런 경험과 정책이 실제로 결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믿을 수 있는 사례입니다. 이는 단순한 구호나 통계가 아니라 '비전과 제도가 함께 작동할 때 실질적인 진전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제 한국은 세계 주요 경제국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 지위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G20 회원국으로서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방향을 제시하고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한국이 튼튼한 경제 기반 위에서 국제적 역할을 강화하며, 글로벌 리더십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이러한 역할은 아시아를 넘어 다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제개발협력에서 한국의 리더십, 존재감, 참여가 확대되는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DAC의 동료 평가 결과에서도, 한국이 다자협력 분야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개발은행, 유엔체제,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양자협력뿐 아니라 다자협력의 폭을 넓혀간다면 한국의 영향력은 한층 강화될 것입니다.

Q DAC 회원국인 한국은 그 지위에 걸맞은 책임과 기대를 함께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한국과 코이카는 국제개발 금융 분야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으로 보십니까?

한국이 앞으로도 DAC의 주요 공여국이자 활발한 회원국으로서, 국제개발협력을 이끄는 기준과 규범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함께 협력 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그 성과를 더욱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한국은 주요 공여국으로서 그 지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국제개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규범, 기준, 보고 체계의 수립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한국이 이러한 책임을 다하고, 국제개발 금융의 효과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공동의 노력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길 기대합니다.

Q '국제개발 파트너십 주간 2025'가 개최되는 동안 '서울 ODA국제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회의는 공여국, 협력국, 전문가들이 개발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 포럼'도 열렸는데요. 이번 행사를 통해 어떤 성과나 메시지가 나오길 기대하십니까?

이번 회의는 마치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는 두 얼굴의 로마 신 '야누스(Janus)'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만큼 이 행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먼저 국내적 측면입니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한국이 개발협력 의제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이 국내 여론과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지기를 바랍니다. 이번 행사가 왜 개발협력이 중요한지, 왜 한국이 이에 지속적으로 참여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더 깊이 관여해야 하는지를 사회적으로 논의하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합니다. 이런 국내적 논의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이번 회의의 중요 성과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국제적 측면입니다. 한국은 이번 회의를 통해 공여국뿐만 아니라 협력국과 다양한 파트너들을 함께 초청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중남미와 아프리카에서 온 참가자들과 만날 것입니다. DAC 회원국과 기타 공여국, 그리고 협력국이 한자리에 모였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개발협력은 더욱 포용적인 방향으로, 공여국과 협력국, 새로운 개발 파트너들이 진정한 동반자로 함께 만들어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회의에 다양한 관계자가 참여했다는 점은 한국이 개발협력을 공동의 노력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분명히 전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개발협력은 자금과 기술을 제공하는 측과 그 지원을 자국의 우선순위와 발전 목표에 맞게 연계하는 측이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의 파트너십이어야 합니다.

Q 중남미, 아프리카의 파트너들과 만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요, 어떤 주제를 논의하실 계획이신가요?

현재 DAC의 주요 과제 중 하나는 조직 자체의 역할을 재검토하는 것입니다. DAC는 ODA의 관리기구로서, 무엇이 ODA에 포함되는지 아닌지를 규정하고,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DAC는 ODA가 개발협력의 실질적 실행 수단으로 제대로 성과를 거두게 만드는 중요한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는 이미 수년간 지속되어 왔으며, ODA의 운영 방식과 다른 개발금융 형태와의 연계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스페인 세비야에서 시작된 이번 검토는 오늘날 ODA의 역할을 더욱 심층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중점적으로 다루는 분야는 데이터와 통계입니다. DAC는 현재 제공 중인 데이터 수준을 점검하고, 단순히 과거 데이터를 회고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더 미래지향적인 분석과 전망을 포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는 회원국들의 인사이트와 의견을 바탕으로 현재 일어나고 있는 변화와 앞으로의 전개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는 이미 확보한 데이터와 분석 자료를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DAC의 작업은 주로 공여국의 필요에 초점을 맞추어 왔지만, 앞으로는 협력국의 요구에도 더욱 귀 기울이려 합니다. 협력국이 DAC의 데이터와 분석에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더 유용하게 제공할 수 있을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ODA를 더 넓은 맥락에서 바라보는 작업도 진행 중입니다. ODA는 다른 형태의 협력과 투자를 촉진하는 촉매이자 연결 고리 역할을 합니다. 민간 금융을 유도하고, 국내 재원 동원을 지원하며, ODA 자체를 넘어서는 폭넓은 협력을 가능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전 세계 송금 규모는 ODA보다 훨씬 크지만, ODA를 통해 이러한 송금이 더 효과적인 소득원이자 개발 동력이 되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민간 금융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혼합금융은 ODA를 활용해 민간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적인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DAC가 해야 할 일은 이를 더 잘, 그리고 더 크게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또 다른 주요 논의 주제는 ODA의 전반적 추세입니다. 2023년 전 세계 ODA 규모는 2,130억 달러에 달했지만, 최근 감소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 연설에서도 언급했듯이, 2023년이 정점이었다면 2024~2027년 급격한 하락이 예상됩니다. 최악의 경우 ODA가 약 30% 감소할 수 있으며, 이



• 카르스텐 스타우르 OECD DAC 의장은 "ODA 재원을 줄이는 것은 인류 공동의 미래에 대한 필수 투자를 줄이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미 2023년에서 2024년 사이 약 7~9% 줄어든 상황입니다. 2027년까지는 11~20% 추가 감소가 예상됩니다.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흐름을 반드시 되돌려야 합니다. 우리가 직면한 전 지구적 과제의 규모를 고려할 때, 이러한 상황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DAC는 회원국과 공여국이 ODA를 다시 확대할 수 있도록 설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철저한 분석, 정치적 리더십, 그리고 ODA가 단순한 자선이 아니라 전략적 투자라는 공동의 인식이 필요합니다. ODA는 국제협력의 다양한 형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Q 일부에서는 ODA를 '국민의 세금이 해외로 흘러나가는 것'으로 인식하며 부정적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정부가 국민들에게 개발협력의 가치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ODA의 가치를 국민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하려면 단순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빈곤이나 질병에서 벗어났는가'를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물론 그러한 성과는 매우 중요하며, ODA의 재원이 현명하게 사용되고 구체적 결과를 내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 국민들이 ODA가 인류가 함께 직면한 기후변화, 확산하는 불안정성, 팬데믹 등 전 지구적 문제 해결에 기여한다는 점을 이해하도록 돕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가 좋은 예입니다. 5년 전 세계를 강타한 팬데믹은 우리 대응 체계가 얼마나 취약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대응을 평가하는 새로운 보고서가 발표됩니다. 우리는 과거의 대응에서 무엇이 효과적이었고, 무엇이 그렇지 않았는지를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또 다른 팬데믹은 반드시 찾아올 것이며, 매년 1~2%의 확률로 코로나19와 같은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다시는 무방비로 맞이할 수 없습니다. ODA는 이러한 위기에 대비한 전 지구적 보건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5년 전보다 훨씬 효과적인 국제 협력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기술 분야 역시 ODA가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영역입니다. 인공지능과 데이터 기반 기술이 인간을 지배하는 도구가 아니라 인류를 위한 기술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진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물론 이 문제를 ODA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지만, 개발협력에 인공지능과 디지털 혁신을 어떻게 통합하느냐에 따라 기술이 인류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을 결정짓는 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도전은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권위주의의 부상입니다. 세계 여러 지역에서 민주적 참여가 약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개발 혜택에서 소외된 지역일수록 권위주의 체제가 강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바람직한 흐름이 아닙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와 사실에 대한 접근, 그리고 열린 공적 담론이 필수적입니다.

더불어 소셜미디어가 공공이익을 위한 언론의 자리를 대체하면서 발생하는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는 독립적이고 사실 기반의 언론을 지원하는 노력이 시급합니다. ODA는 유네스코 등 국제기구를 통해 공공이익을 위한 언론을 설립하고 유지하는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이러한 영역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ODA는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 그 진정한 가치는 인류가 더욱 협력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Q 미국은 정책적으로 ODA 예산 확대를 지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럽 여러 국가도 방위비를 늘리는 반면 다른 지출은 줄이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파트너들을 설득하는 일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미국은 아직 상황을 지켜보는 단계입니다. 최종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분명한 것은, 미국 정부가 일찍이 미국 국제개발처(USAID)를 폐지하고 그 기능의 상당 부분을 국무부로 이관하기로 결정했다는 점입니다. 워싱턴에서는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아직 아무도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미국의 개발정책 방향을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유럽에서는 매일 시급한 국내 현안과 단기 과제가 쏟아지는 가운데, 장기적이고 글로벌한 과제에 꾸준히 집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그로 인해 나토와 여러 유럽 국가에 가중되는 위협은 매우 심각하며, 방위비 증액의 필요성도 분명합니다. 이는 DAC 의장으로서의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유럽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필요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상황을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로 봐서는 안 됩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해내야 합니다. 유럽은 러시아라는 단기적이고 중대한 지역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해서, 장기적이고 글로벌한 목표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방위력을 강화하면서도 동시에 전 세계적 도전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유럽이 자국과 지역의 이익 방어에만 집중한다면, 세계적 문제를 제때 해결할 기회를 잃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응이 늦어질수록 문제 해결은 훨씬 더 어렵고 비용도 커질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능한 한 신속히 행동에 나서, 지역적 위협과 글로벌 위협이라는 두 과제 모두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K



• 코이카가 2025년 9월 24일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국제개발협력의 효과를 높이고 신흥공여국 간 학습과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프로그램 GPEDC LAP(Learning and Acceleration Program)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10개국 외교부 및 개발협력 담당기관 실무자 20여 명과 국내외 전문가가 함께해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GPEDC LAP

신흥공여국과의 새로운 파트너십 가능성

코이카가 2025년 9월 24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국제개발협력의 효과를 높이고 신흥공여국 간 실질적 학습과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GPEDC LAP(Learning and Acceleration Program)'을 개최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한국이 주도해 만든 다자협의체인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Global Partners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GPEDC)을 중심으로 각국이 공유해야 할 원칙과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GPEDC LAP은 ▲주인의식 ▲성과중심 ▲포용적 파트너십 ▲투명성 및 상호책무성 등 개발 효과성의 4대 원칙을 기반으로 국내외 개발협력 기관과 파트너 국가의 실무자들이 직면한 실제 도전과 경험을 교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프로그램에는 10개국의 외교부 및 개발협력 담당기관 실무자 20여 명과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석해 워크숍, 분임 토의, 사례 공유 등을 통해 새로운 협력 모델을 탐색했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신흥공여국의 역할 변화가 더욱 두드러졌다. 과거 ODA(공적개발원조)를 받는 나라가 개발원조에 도움 주는 국가로 본격적으로 전환하면서 글로벌 개발협력 체계에서 점차 중요한 주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튀르키예와 인도네시아는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있는 국가들로 각국의 경험과 전략을 GPEDC 원칙과 연계해 실천해 나가고 있다.

또한 행사를 이끈 유엔개발계획(UNDP)의 강사는 남남협력(South-South Cooperation·SSC)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국제적 논의의 흐름과 이를 둘러싼 최근의 제도적 접근을 소개했다.

강연은 두 세션으로 구성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전통적인 원조 효과성(Aid Effectiveness)과 개발 효과성(Development Effectiveness)의 차이, GPEDC의 형성과 모니터링 체계 등 효과적 개발협력의 역사와 기본 구조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남남협력의 실무적 접근, 개발 효과 측정의 필요성, 그리고 이 과정을 꾸준히 추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특히 해당 세션들을 통해 '이중 역할국(Dual Role Countries)'이 직면한 협력 과제 등을 공유하기도 했다.

Mini Interview 1

실행력과 유연성을 바탕으로 한 튀르키예의 개발협력



무자히드 보지엘
튀르키예 국제협력조정청 (TİKA) 전략개발국 보조 전문가

Q 튀르키예는 신흥공여국으로서 어떤 강점을 갖고 있으며, 개발협력 전략의 최우선 과제는 무엇인가요?
튀르키예의 강점은 오랜 인도적 지원 경험과 신속한 의사결정, 집행력에 있습니다. 또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하며 축적한 공감과 유연성에도 강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개발협력 전략의 최우선 과제는 현지 주도성과 사람 중심, 수요 기반 접근을 강화해 개발협력 효과와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것인데, 이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GPEDC 원칙과도 잘 부합합니다.

Q GPEDC LAP에서 인상 깊었던 점이 있었나요?
GPEDC LAP은 실용적이고 협력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ODA 재원이 감소하는 상황 속에서 ODA의 효과와 투명성,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Q 코이카의 ODA 시스템 중 튀르키예가 참고할 만한 부분이 있었나요?
코이카의 체계적이고 투명한 평가와 디지털 기반 모니터링, 이해관계자의 참여 방식 등은 튀르키예의 개발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데 매우 유용한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 GPEDC 프레임워크와 LAP은 튀르키예 전략에 어떻게 도움이 되나요?
GPEDC 프레임워크는 튀르키예 개발협력이 국가적 우선순위를 유지할 수 있게 도움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또 튀르키예의 개발협력이 효과성에 관한 글로벌 원칙과 방향을 같이하도록 기반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점들은 튀르키예가 중시해 왔던 수원국 주도성과 투명성 및 상호책무성의 중요성도 다시 한번 상기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튀르키예의 국민총소득 당 ODA 비율(ODA/GNI)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원조를 더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GPEDC 프레임워크와 LAP은 자원 활용 효과를 극대화하고, 국내외 이해관계자 간 조정을 강화하기 위한 실천적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Q 연수 기간 중에 기억에 남는 일이 있었는지요?
연수를 받으면서 태국 동료와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태국 동료는 튀르키예의 개발협력 성과 보고와 모니터링 방식에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동료와 함께 보고 체계나 모니터링 체계에 대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다 보니 향후 공동 프로젝트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Q 한국에서 기억에 남는 경험이 있었나요?
한국을 방문하는 동안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한국이 고난을 빨리 극복하고 번영했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전쟁을 경험한 나라면서 경제 위기도 극복한 나라입니다. 특히 이는 세계적으로도 빠르고 지속 가능한 발전 사례로 꼽히기도 합니다. 고난에서 번영으로 전환한 한국의 여정은 국가의 결단과 비전이 지닌 힘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Mini Interview 2

포용적 협력을 향한 인도네시아의 전략



무함마드 파트칸 하스피
인도네시아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지역 담당 실무자

Q 인도네시아는 신흥공여국으로서 어떤 강점이 있나요?
인도네시아의 강점은 수원국이자 공여국이라는 '이중 정체성'에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파트너국의 현실을 깊이 이해하고 실질적 협력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특히 개발협력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인 수요 기반, 포용적 협력 강화에 있어서 인도네시아는 강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Q GPEDC LAP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GPEDC LAP에서 참여적이고 포용적인 논의 구조가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신흥공여국들이 남남협력의 효과를 측정하고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 프레임워크를 함께 만들어 갔다는 점이 의미 있었습니다.

Q 코이카의 ODA 시스템에서 참고하고 싶은 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코이카의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평가 프레임워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방식이 인상 깊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외교부가 꼭 참고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Q GPEDC 프레임워크가 인도네시아의 전략적 방향에 어떤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을까요?
GPEDC의 주인의식, 포용적 파트너십, 상호책무성의 원칙은 인도네시아의 남남협력, 삼각협력 전략과 긴밀히 맞닿아 있습니다.
LAP은 이를 더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도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한국에 머무는 동안 기억나는 음식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솥밥을 가장 맛있게 먹었습니다. 음식 자체는 아주 소박해 보이지만 굉장히 특별한 느낌을 받았어요. 신선한 재료들이 함께 어우러져 풍성한 맛을 만들어 냈습니다. 또 음식이 서빙되는 방식 자체가 평범한 식사를 하나의 총체적인 경험으로 바꿔주는 느낌이었어요. 모든 것이 빨라진 오늘날 한 번쯤은 천천히 속도를 늦추고, 지금을 충분히 음미하게 만드는 요리라고 느꼈습니다.

Mini Interview 3

유엔개발계획이 바라본 신흥공여국의 도전과 기회



레베카 츄
유엔개발계획 효과적 개발협력팀 팀장

Q GPEDC LAP의 핵심 목적은 무엇인가요?
이번 GPEDC LAP의 핵심 목적은 신흥공여국이 현재 직면한 개발 효과의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는 데 있습니다. 참가국들은 자국이 직면한 가장 시급한 개발 효과성 도전을 공유하고, 남남협력의 의미와 역할을 자국의 맥락에서 성찰하며, 추후에 해당 사업의 결과나 효과를 어떻게 측정하고 개선할 것인지 구체적인 접근을 논의했습니다.

Q GPEDC LAP에서 유엔개발계획(UNDP)과 코이카는 각각 어떤 역할을 했나요?
UNDP와 코이카는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UNDP는 개발 효과 분야의 글로벌 전문성을 바탕으로 전체 프로그램의 내용적 설계와 기술적 지원을 담당했습니다. 반면 코이카는 GPEDC 설립 초기부터 개발 효과 관련 의제를 꾸준히 지지해 온 단체로서 이번 LAP의 공동 주최자이자 운영 파트너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제도적 리더십과 실행 플랫폼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Q 신흥공여국이 개발 효과성 논의에 참여하는 것은 어떤 점에서 중요할까요?
신흥공여국의 역할은 특히 남남협력을 통해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개발재원이 압박받고 있고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이 위기에 처한 이 시점에서는, 더욱 전략적이고, 투명해지며, 성과 중심으로 개발협력을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스페인 세비야에서 열린 FfD4(제4차 국제 개발재원회의) 행사에서도 강조됐다시피, 남남협력의 효과 강화를 국제적 과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흥공여국의 적극적 참여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Q GPEDC LAP에서 어떤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뤘나요?
프로그램은 두 개의 세션으로 진행됐습니다. 먼저 개발 효과성 논의의 역사를 짚어보고, 원조 효과와 개발 효과의 차이, GPEDC 모니터링 최신 동향 등을 다뤘습니다. 다음으로는 남남협력 효과를 실제로 측정하고 추적하기 위해 필요한 접근법이나 고려 사항, 딜레마에 대해 심층 토론하고, 향후 효과 측정 체계를 참가국이 직접 설계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Q GPEDC LAP이 신흥공여국의 역량 강화에 어떤 실질적 기여를 한다고 보나요?
신흥공여국은 이번 GPEDC LAP을 통해 다양한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참가국은 자국의 개발 효과성 관련 도전 과제를 성찰했습니다. 또 효과적 남남협력의 의미를 재정의하며, 이에 대한 효과를 점검하고 측정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각국의 사례를 공유하며 국가 차원의 최선의 실행 경험을 교류하는 기회도 누렸습니다. K

알레한드라 델 모랄 벨라 멕시코 국제개발협력청장 인터뷰

“사람이 우선! 인프라 건설보다 교육·보건에 집중할 것”



• 2025년 9월 ‘2025 국제개발 파트너십 주간’ 참석을 위해 알레한드라 델 모랄 벨라 멕시코 국제개발협력청장이 내한했다. 그녀는 “대규모 인프라 건설보다 교육과 보건, 식량안보 등 사람 중심의 정책을 중시하는 것이 멕시코 개발협력의 특징”이라고 말했다.

멕시코 국제개발협력청(AMEXCID[1])은 멕시코의 핵심 개발협력 기관이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고 중남미를 비롯한 여러 지역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외교부 산하 기관인 AMEXCID는 멕시코의 공적개발원조와 국제협력 사업을 총괄하며, 공동 번영·성평등·남남협력을 중점 가치로 두고 있다.

AMEXCID의 첫 여성 리더인 알레한드라 델 모랄 벨라(Alejandra del Moral Vela) 협력청장은 실용적 리더십과 탁월한 협상력으로 주목받는 인물이다. 그녀의 지휘 아래 AMEXCID는 기후행동, 공중보건, 교육, 디지털 전환 등 핵심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며 멕시코의 개발외교 역량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녀는 코이카와 외교부가 주최한 ‘국제개발 파트너십 주간’ 참석차 서울을 방문한 자리에서 포용적 발전에 대한 멕시코의 비전과 신흥 공여국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Q 멕시코는 사상 첫 여성 대통령으로 클라우디아 셰인바움(Claudia Sheinbaum)을 선출했으며, AMEXCID 역시 여성 리더가 이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멕시코의 국제개발 협력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멕시코는 지금 중대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이 국정을 이끌고, 제가 AMEXCID를 이끌고 있다는 사실은 여성 리더십이 외교와 국제개발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번 변화는 단순한 상징을 넘어 평등·지속가능성·연대라는 가치를 협력의 중심에 두는 전환점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국제개발협력이 ‘멕시코식 휴머니즘(Humanismo Mexicano)[2]’의 원칙을 반영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 핵심에는 사람과 존엄성이 있습니다. 여성들이 리더십의 전면에 서면서 협력은 더욱 공감적이고 포용적이며 실행 중심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3] 전역에 분명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리더십의 다양성은 중요하며, 그것이 협력 정책의 설계와 실행 방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셰인바움 대통령은 기후 회복력, 성평등, 사회적 포용을 멕시코 개발 의제의 핵심 축으로 제시했습니다. AMEXCID는 이러한 국가적 우선순위를 국제협력 사업으로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식량 안보를 강화하고, 여성 농민을 지원하며, 청년을 교육하고, 기후 적응력을 높이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그 예입니다.

여성이 선두에 선다는 것은 단순한 대표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협력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고, 글로벌 파트너십이 사람들의 실제 삶과 경험을 기반으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일입니다.

Q 국제 외교 무대에 여성 리더로서 활동하면서 가장 큰 도전은 무엇이었고,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는 글로벌 사우스의 신흥공여국과 협력 파트너들의 목소리가 기존 주요 공여국들과 동등하게 반영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개발협력의 구조는 소수의 주요 행위자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새로운 관점을 받아들이려면 지속적인 노력과 외교 역량, 그리고 연대 구축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국제개발협력이 ‘멕시코식 휴머니즘(Humanismo Mexicano)[2]’의 원칙을 반영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 핵심에는 사람과 존엄성이 있습니다. 여성들이 리더십의 전면에 서면서 협력은 더욱 공감적이고 포용적이며 실행 중심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3] 전역에 분명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리더십의 다양성은 중요하며, 그것이 협력 정책의 설계와 실행 방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셰인바움 대통령은 기후 회복력, 성평등, 사회적 포용을 멕시코 개발 의제의 핵심 축으로 제시했습니다. AMEXCID는 이러한 국가적 우선순위를 국제협력 사업으로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식량 안보를 강화하고, 여성 농민을 지원하며, 청년을 교육하고, 기후 적응력을 높이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그 예입니다.

여성이 선두에 선다는 것은 단순한 대표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협력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고, 글로벌 파트너십이 사람들의 실제 삶과 경험을 기반으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일입니다.

Q 국제 정치와 경제 분야에서 ‘글로벌 사우스’라는 용어가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국제개발협력의 구도를 어떻게 바꾸고 있다고 보십니까?

글로벌 사우스의 부상은 세계가 다극화되고 상호 연결된 구조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개발협력은 더 이상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흐르는 일방향 형태가 아니라 수평적이고 포용적이며 상호 학습에 기반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멕시코와 같은 국가는 국제 협력이 위계가 아닌 연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지역의 주도성과 현지 경험, 그리고 세계적 지식을 결합한 삼각협력(Triangular Cooperation)[6]과 순환협력(Circular Cooperation)[7] 같은 혁신적 모델의 확산을 통해 개발협력의 구조를 새롭게 바꾸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또한 우리와 같은 국가들이 자국의 경험에서 얻은 해법을 다른 나라들과 공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멕시코에서 시작된 ‘Jóvenes Construyendo el Futuro[8]’와 ‘Sembrando Vida’ 프로그램은 중미와 카리브 지역에서도 성공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개발이 북반구에서 일방적으로 수출되는 획일적 모델이 아니라, 각 지역의 현실에 뿌리를 둔 협력적 과정임을 보여줍니다.

Q 신흥공여국으로 성장한 멕시코는 자체적인 개발협력 전략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멕시코의 개발협력은 어떤 점에서 다른 나라들과 구별된다고 보십니까?

멕시코의 개발협력은 연대, 수평성, 그리고 주권 존중의 원칙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AMEXCID는 특정 발전 모델을 강요하기보다 지식과 경험을 상호 공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멕시코 협력의 가장 큰 특징은 사람 중심의 정책에 있습니다. 대규모 인프라 건설이나 단순한 재정 지원보다 지역사회의 복지와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향상시키는 사업을 우선합니다. 대표적인 분야로는 교육, 보건, 식량안보, 그리고 기후 회복력 강화가

1 Agencia Mexicana de Cooperación Internacional para el Desarrollo
2 모든 인간의 존엄, 평등, 포용, 연대 그리고 인도주의적 책임을 중심에 둔 외교 철학
3 상대적으로 경제가 덜 발전한 나라들, 즉 개발도상국, 신흥국, 저소득국가를 가리킨다
4 AMEXCID가 중남미 지역의 교육 발전과 멕시코-지역 간 협력 강화를 위해 운영하는 대표 개발협력 사업으로 학생·교직원 인센티브 및 인프라 지원을 제공하는 교육 협력 프로그램
5 멕시코 연방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촌 빈곤과 환경 문제 심화라는 두 가지 상호 연관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계됨. 소농들에게 직접적인 소득 지원과 기술·자원 지원 교육을 제공해 지속 가능한 농업과 지역공동체의 회복을 도모하는 프로그램
6 주요 공여국, 신흥공여국, 개발도상국이 참여해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개발협력 방식
7 선진국, 신흥공여국, 개발도상국 등 모든 참여국 간에 지식·기술·해법이 단방향이 아닌 순환적으로 공유되는 새로운 개발협력 방식
8 청년의 사회 참여와 경제적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멕시코 정부의 대표 청년 역량 강화 프로그램



• 알레한드라 델 모랄 벨라 멕시코 국제개발협력청장은 "멕시코와 코이카가 기후 회복력 강화와 디지털 분야에서 협력을 더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있습니다.

'Jóvenes Construyendo el Futuro'와 'Sembrando Vida' 같은 프로그램은 이미 중미와 카리브해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글로벌 사우스에서 출발한 해법이 다른 지역에서도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멕시코는 정책을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파트너 국가의 주도권과 개발 우선순위를 존중하며 함께 해법을 만들어가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Q 멕시코를 비롯한 신흥공여국들이 국제개발협력 파트너십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도전과 기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흥공여국들이 직면한 주요 도전 중 하나는 기존 주요 공여국들에 비해 제한된 재원과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모니터링·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 다른 과제는 가시성의 문제입니다. 대형 공여국 중심의 담론이 주도하는 다자 무대에서 신흥공여국들의 기여가 제대로 인식되고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재적인 기회는 매우 큽니다. 신흥공여국들은 더 빠르게 혁신하고, 유연한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하며, 협력국이 공감할 수 있는 지역적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멕시코는 독일, 스페인, 일본, 그리고 한국과의 삼각협력을 통해 이러한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로의 강점을 결합할 때 더욱 효과적이고 포용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멕시코는 스페인 및 중미 국가들과의 삼각협력을 통해 교육과 보건 분야의 혁신적 프로젝트를 추진해왔습니다. 독일과는 지속 가능 에너지 및 기후 대응 협력을 모색하고 있으며, 한국과는 재생에너지, 디지털 혁신, 여성 역량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의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Q '2025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 포럼'의 주요 목표를 바탕으로, AMEXCID는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멕시코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협력 대상국의 자율성과 주인의식을 존중함으로써 개발협력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전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산 포럼에서도 개발협력이 각국의 수요와 국가개발계획에 맞춰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AMEXCID는 투입하는 모든 예산이 사회적 효과로 이어지는 협력 모델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효과성'이란 단순한 재정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협력이 실제로 사람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결과로 이어지는지를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 평가 체계를 강화하고, 사업 모니터링을 위한 디지털 도구를 개발하며, 시민사회와 지역 공동체와의 소통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개발협력은 정부 간 협력을 넘어 시민과 학계, 민간 부문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의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Q 믹타(MIKTA)는 중견국 협력의 중요한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으며, 2024년 멕시코가 의장국을 맡았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5차 고위급 회의에 참석한 소회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MIKTA는 한국·멕시코·인도네시아·튀르키예·호주 등 5개국의 지역과 경제, 문화를 이어주는 협력 플랫폼입니다. 의장국으로 활동한 경험은 글로벌 논의의 장에서 멕시코가 다양한 국가와 협력을 조율하며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제5차 고위급 회의에서는 특히 전 세계적인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기에 중견국들이 합의를 도출하고 혁신적 협력을 촉진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멕시코에 MIKTA는 중견국 간 협력이 실용적이고 균형 잡힌 방식으로 글로벌 의제를 진전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멕시코는 기후, 보건, 디지털 전환 등 다양한 글로벌 현안에 대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경험을 모두 반영한 현실적이고 실행 중심의 관점을 제시하며 국제 논의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Q 멕시코는 삼각협력, 청년과 여성의 역량 강화, 그리고 'Sembrando Vida'로 불리는 식량안보 프로그램 등 대표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선과제들이 MIKTA의 공동 의제에 어떤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러한 구상들은 실용성, 포용성, 혁신성을 중시하는 MIKTA의 정신을 잘 보여줍니다. 멕시코는 청년과 여성의 역량 강화를 통해 더 회복력 있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Sembrando Vida' 프로그램을 통해 식량안보와 기후 회복력이라는 MIKTA 공동 의제의 핵심 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한편, 삼각협력은 이러한 경험과 교훈을 중남미를 넘어 다른 지역과도 공유함으로써 남남협력과 지역 간 협력을 동시에 강화하는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선과제들은 또한 MIKTA가 대화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각국의 경험을 공동 목표와 조화시킴으로써, 협력이 실제 변화를 만들어내는 구체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Q 제5차 고위급 회의에서 'MIKTA 공동사업 모델(Joint Project Model)'이 논의됐습니다. 이 모델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또 향후 MIKTA 회원국 간 협력의 발전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공동 프로젝트 모델은 '공동의 책임(Shared Responsibility)'이라는 원칙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MIKTA 회원국들은 자원과 전문성을 결합해 더 큰 영향력과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멕시코는 이 모델을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개발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실천으로 옮기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협력이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개별 프로젝트를 넘어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파트너십으로 발전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실질적인 사례입니다.

Q 멕시코는 MIKTA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에서 어떤 비전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또한 이러한 비전이 MIKTA 개발협력 워킹그룹의 활동 등을 통해 어떻게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멕시코는 연대, 포용, 그리고 혁신의 비전을 바탕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MIKTA 내에서 우리는 기후변화, 보건, 디지털 전환과 같은 글로벌 의제에 대한 공동 대응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더 넓은 차원에서 멕시코가 추구하는 비전은 여러 나라가 영향력을 고루 나누고 공정하며 공동 번영을 중시하는 21세기의 현실을 반영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발협력이 자선이 아니라, 연대와 공동 책임의 실천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비전은 MIKTA는 물론 그 밖의 국제무대에서 멕시코가 추구하는 협력의 방향을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국제개발협력이 일부 국가의 이해가 아니라, 모든 지역의 열망과 현실을 반영하는 진정한 글로벌 협력으로 자리 잡도록 하는 것입니다.

Q 코이카는 신흥공여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삼각협력, 혁신적 금융, 그리고 원조 효과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멕시코에 코이카는 어떤 파트너라고 생각하십니까?

코이카는 멕시코에 조화로운 협력 파트너입니다. 양국은 연대에 기반한 협력이라는 공통 가치를 공유하며, 각자의 상호 보완적 경험을 함께 나누는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코이카의 기술 전문성과 멕시코의 중남미 지역 내 네트워크는 삼각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견고한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양국은 이러한 비교우위를 결합해 단순히 효과적인 수준을 넘어 협력국의 발전 구조를 변화시키는 사업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혁신 역량과 멕시코의 지역적 경험이 결합될 때, 다른 지역에도 영감을 주는 새로운 협력 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Q AMEXCID가 추진하고 있는 신규 사업이나 프로젝트 중에서 한국과의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네, 여러 협력 분야가 있습니다. 멕시코는 카리브해 지역에서 진행 중인 재생에너지 사업, 중미에서의 식량안보 프로그램, 그리고 아시아와의 학술 교류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한국의 개발협력 우선순위와 맥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멕시코와 코이카는 기후 회복력 강화, 디지털 협력, 여성 역량 강화 등에서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여지가 큽니다. 이러한 분야는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구축하는 데 핵심적이며, 양국의 협력은 그 가능성을 한층 넓힐 수 있을 것입니다.

Q 국제개발협력의 맥락에서 앞으로 한국과의 파트너십에 대해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나요? 특히 더 발전시키거나 강화하고 싶은 분야나 협력 체계가 있을까요?

멕시코는 한국과의 협력이 단순한 양자 관계를 넘어 더 심층적이고 전략적인 파트너십으로 발전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국은 함께 중남미 지역에서 삼각협력 사업을 확대하고, 혁신적 금융 메커니즘을 공동 개발하며, MIKTA 의제를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멕시코와 한국은 신흥공여국들이 글로벌 해법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모범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파트너십은 두 나라 간 협력을 넘어, 공유된 가치와 혁신적 접근이 국제사회를 움직이는 힘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K







코이카는 지금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세상을 지향하다”

김은미 유엔여성기구 대한민국 초대 친선대사 인터뷰부터
팔레스타인 서안지구 공공 재활치료센터 건립 및
역량 강화 사업 소식까지 국내외에서 종횡무진 활약하는
코이카의 활동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 유엔여성기구 대한민국 초대 친선대사인 김은미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명예교수는 여성이 빠진 개발은 효율과 성과 면에서 실패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김은미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명예교수·이화학당 이사장 인터뷰

“여성 소외시킨 개발협력은 지속 불가능”

2025년은 1995년 열린 중국 베이징 세계여성대회 30주년을 맞는 해였다. 30년 전, 전 세계는 ‘여성의 권리는 인권’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나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AI) 확산 등 새로운 환경 속에서 성평등은 여전히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유엔여성기구(UN Women) 대한민국 초대 친선대사인 김은미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명예교수(전 이화여대 총장, 현 이화학당 이사장)는 “베이징 행동강령의 정신을 오늘에 맞게 재해석하고, 새로운 성차별에 대응하는 국제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개발도상국의 정치 경제를 연구해 온 김 교수는 국제개발협력 현장에서 ‘여성을 배제한 개발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 믿음은 그가 지난 수십 년간 학계와 국제개발 현장을 오가며 쌓아 온 활동의 출발점이자 핵심이다.

Q 사회학자로서 개발도상국의 정치 경제 발전을 연구해 왔는데, 젠더 분야에 발을 들인 계기는 무엇입니까?

미국에서 석사·박사 학위를 따고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USC)에서 교수 생활을 하다가 1997년 귀국했습니다. 당시 ‘국제개발협력학’이라는 분야를 일구면서 정부의 중요 자문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의에 나가 보면 ‘젠더’ 관점은 전혀 없었습니다. 문제를 그 시각에서 바라보거나, 해결책을 젠더 관점에서 고민하는 경우가 없었죠.

그러다 2006년 국무총리실 산하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결정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3조 ‘기본정신과 목표’ 제1항에는 ‘국제개발협력은 개발도상국의 빈곤 감소, 여성·아동·장애인·청소년의 인권 향상, 성평등 실현, 지속 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개발도상국과의 경제 협력 관계를 증진하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것을 기본정신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본법에 여성의 인권 향상과 성평등 실현을 위한 원조를 해야 한다고 명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업과 예산 편성에서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제가 “예산 배정이 왜 이렇게 적냐”고 묻자 당시 정부 측 관계자가 “한국도 성평등에서 아직 갈 길이 먼데, 어떻게 우리가 개발협력 사업에서 본격적으로 젠더 사업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더군요. 여성 관계자의 말이었기에 더 충격이었습니다.

Q 개발협력 현장에서 여성의 역할이 왜 중요합니까?

처음에는 정치경제학과 젠더를 완전히 별개의 분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느낀 건, 여성을 소외시키면 그 어떤 개발 프로그램도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식수 지원 사업을 해도, 물을 길어 오는 주체는 대부분 여성입니다. 위생 교육을 해도 가정에서 실천하고 아이들에게 전하는 역할 역시 여성 몫입니다. 여성이 빠진 개발은 효율과 성과 면에서 실패 확률이 높습니다.

Q 2025년은 1995년 베이징 세계여성대회가 열린 지 30주년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베이징 세계여성대회는 국제사회가 ‘여성의 권리는 인권’이라는 명제를 보편규범으로 채택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를 계기로 유엔 공식 문서와 회의에서 ‘섹스(sex)’ 대신 ‘젠더(gender)’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죠. ‘섹스’가 생물학적 성별이라면, ‘젠더’는 사회·문화적 역할과 규범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성차별을 바라보는 시각을 구조적·제도적 차원으로 확장한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Q 기후변화나 분쟁 같은 위기 상황에서 젠더 이슈는 어떻게 드러납니까?

불행하게도 재난과 위기는 여성과 소녀들에게 더 가혹합니다.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보고서’를 보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을 가리지 않고 여성의 실직률과 돌봄노동 부담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 세계 취업 여성의 약 40%가 팬데믹의 직격탄을 맞은 산업, 즉 숙박·음식·서비스·도소매·제조업 등에 종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예로, 2014년 아프리카에서 에볼라 바이러스가 창궐했을 때는 소녀들의 임신율이 급등했습니다. 전염병과 소녀 임신율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이유는 학교가 문을 닫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학교에 가지 못한 소녀들이, 특히 부모까지 잃은 경우에는 성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됐습니다. 학교는 배움의 장소일 뿐 아니라 보호막이자 울타리였던 겁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식수 문제나 농업노동 부담도 여성에게 집중됩니다. 재난은 사람을 가리지 않지만 그 피해는 성별에 따라 달랐습니다.



• 2008년 이화여자대학교와 코이카가 함께 진행한 학위연수 프로그램 리더십 워크숍에서 김은미 교수(왼쪽에서 두 번째)가 유학생들과 전통 의상을 입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Q 개도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모범 사례일 것 같습니다. 한국 ODA의 강점은 무엇일까요?

'메시지와 경험'에 있다고 봅니다. 한국은 60여 년 전만 해도 1인당 GDP가 100달러도 안 되는 최빈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과 안보위기 속에서도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뤘습니다. 개도국 입장에선 자원이 풍부한 영국이나 미국보다, 자기네보다 못살던 나라가 단기간에 선진국 반열에 오른 사례가 훨씬 현실적이고 와닿는 거죠. 우리는 수원국의 설움을 경험했기에 그들의 주인의식(Ownership)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동지'와 같은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이죠.

Q 기억에 남는 한국형 젠더 ODA 사례가 있다면요.

코이카가 2012년부터 2024년까지 유엔인구기금(UNFPA)과 함께 추진했던 코트디부아르 여성 누공 치료 및 예방 사업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누공은 난산으로 인해 대소변이 새는 여성에게는 치명적인 질환입니다. 조기 출산, 산파에 의한 전통적 출산 방식, 여성 할례, 열악한 모성보건 시스템 등이 주된 원인입니다. 수술로 치료할 수 있지만, 평소 정결하지 않았다거나 저주를 받았다고 여기는 잘못된 시선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가정과 지역공동체에서 쫓겨나 빈곤에 빠지곤 했습니다.



• 김은미 교수는 2024년 유엔여성기구 친선대사에 임명됐다.

다행히 코이카의 지원으로 수술받은 여성들은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고, 직업을 구하고 마을에서 리더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단순한 의료 지원을 넘어 사회적 낙인을 극복하고 존엄을 회복한 사례입니다. 우리나라의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 모델인 '해바라기센터' 운영 노하우를 베트남에 전수한 사례도 대표적인 한국형 젠더 ODA 사업으로 꼽힙니다. 의료·법률·심리·취업 지원을 한 공간에서 원스톱으로 제공함으로써 피해자의 회복과 사회 복귀를 효과적으로 지원해 2021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우수성과사업으로도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Q 마지막으로 향후 SDGs와 연계한 젠더 ODA의 전략적 방향은 어떻게 설정되어야 한다고 보나요?

젠더는 'SDG 5(성평등 달성)'라는 독립된 목표이면서 모든 분야를 관통하는 교차 이슈입니다. 기후, 교육, 기술, 평화 어디에도 젠더가 빠져서는 안 됩니다. 여성 참여율을 높이는 것을 넘어 권력 구조와 규범을 바꾸는 '젠더 변혁적(Gender-Transformative) 접근'이 필요합니다. K



• 네팔의 축산업은 전체 GDP의 약 9%를 차지할 만큼 네팔인에게 중요한 생계 수단이다. 사진은 네팔 신둘리 마을의 여성들이 우유통을 들고 마을로 향하는 모습이다. / 헤퍼코리아 제공

네팔 카말라마이시 소농 커뮤니티의 디지털 및 그린 전환을 통한 낙농 생산성 향상 지원 사업

"아이들 급식비를 제 손으로 낼 수 있어 좋아요"

네팔 신둘리 마을의 스리자나(13)는 매일 새벽 4시 집유소로 향한다. 작지만 부지런한 손으로 젖소의 우유를 짜고, 그렇게 짠 우유는 마을 유통망을 통해 인근 시장으로 전달된다. 매일 아침 젖소를 통해 얻는 수입은 432루피(약 4,420원)로 한 달 기준 약 13만원에 달한다. 그녀가 기르는 소의 이름은 '드림(Dream)'이다. 특별한 계기로 만난 드림이는 단순한 가축이 아니라 가족의 꿈과 희망을 상징하게 됐다. 스리자나는 "젖소는 마을의 미래에 무척 중요한 자산"이라며 "이제는 꽃목걸이를 걸어줄 만큼 가정의 든든한 버팀목이 됐다"고 말했다.

스리자나 가족의 변화는 우연이 아니다. 2023년 4월, 코이카가 '네팔 카말라마이시 소농 커뮤니티의 디지털 및 그린 전환을 통한 낙농 생산성 향상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이 사업은 한국의 축산 경험과 기술을 통해 신둘리 마을을 비롯한 카말라마이시 지역 소농들의 낙농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네팔은 농업 의존도가 매우 높은 나라다. 네팔 국가통계청(NSO)의 2023년 통계에 따르면 네팔 전체 가구의 61.91%인 413만 가구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특히 농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총 GDP에서 26.27%에 달하며 이는 세계 평균(4%)에 비해 약 6배 높은 수치다. 농업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축산업의 경우도 GDP의 약 9%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축산업은 네팔인에게 중요한 생계 수단이다.

이처럼 네팔에서 농업과 축산업은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산업군이다. 하지만 낮은 생산성이라는 한계에 직면하고 있었다. 네팔 농림축산개발부(MoALD)의 2023년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착유 소 288만 마리의 연간 우유 생산량은 25만 6,000톤(2억 5,600만 리터)으로 한 마리당 평균 하루 우유 생산량은 약 2.45리터다. 이는 세계 평균 수치인 6~8리터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비영리 국제개발 기관 헤퍼인터내셔널(Heifer International)의 한국 지부인 헤퍼코리아는 2022년 한국농림축산식품부, 농협중앙회 등과 협력해 낙농 사업 활성화

를 위해서 총 108마리의 한국형 순종 홀스타인 종모우와 착유소(우유를 얻기 위해 기르는 소)를 지원했다. 26마리 젖소는 네팔 농림축산개발부 산하 낙농 전문기관에, 나머지 80마리는 신둘리 카말라마이시 51가구에 전달됐다. 집유소, 냉장 보관 시스템 등 낙농 기초 시설도 함께 마련됐다. 낙농 기초 시설을 통해 주민들의 경제활동과 식생활 등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다. 이를 통해 가정에 안정적인 수입원을 마련하고, 여성과 아동의 권리 증진, 공동체의 유지 등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가축 보급 넘어 선진 축산 시스템 전파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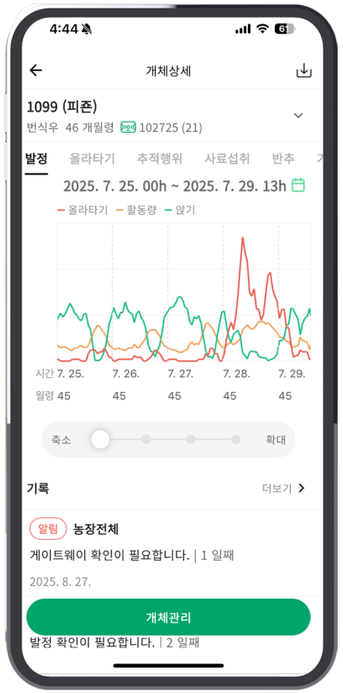
네팔 신둘리 마을에 전달된 소는 단순히 가축이 아니라 한국 축산업의 기술력과 농장주들의 현장 경험이 집약된 살아있는 기술 이전의 상징이다. 코이카는 헤퍼코리아와 함께 '네팔 카말라마이시 소농 커뮤니티의 디지털 및 그린전환을 통한 낙농 생산성 향상 지원 사업'을 통해 한국의 체계적인 축산 관리 방식과 지속 가능한 낙농 시스템을 네팔 농촌 지역에 적용했다. 단순한 가축 보급을 넘어 한 마을, 한 지역의 낙농업 구조 전반을 변화시키는 시도였다.

특히 코이카와 헤퍼코리아는 네팔 신둘리 마을의 생산성 향상을 핵심 목표로 삼았다. 젖소의 개체별 건강과 균형 잡힌 사료 배합, 위생적인 젖 짜기 기술 등 한국 농장주들의 오랜 경험과 낙농 기술을 전파했다. 또한 일대일 사육 컨설팅, 공동 집유소 운영, 품질 검수 체계 등을 도입해 하루 우유 생산량이 7리터에서 13.27리터으로 약 2배 증가했고 한국 젖소를 보유한 51개 농가는 하루 평균 우유 생산량이 22리터로 3배 이상 증가했다.

또 이번 사업은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성 확보라는 시대적 과제에도 발을 맞췄다. 특히 히말라야 인근 농촌 지역인 신둘리 마을은 기후위기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곳이어서 기후위기 대응은 생존과도 직결된 문제다. 이를 위해 우사 내 선풍기 및 자동 스프링클러를 설치해 젖소들의 고온 스트레스를 완화했다.



• 네팔 신둘리 마을의 여성들이 국내 기업 바딧(Bodit)이 개발한 '파머스 핸즈' 앱을 이용해 가축의 질병 여부를 확인하거나 사료 효율성 등을 분석해 가축을 과학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헤퍼코리아 제공



• 국내 스타트업 기업 바딧이 개발한 '파머스 핸즈' 가축 관리 화면

가축의 분뇨를 처리하기 위한 바이오매스 시스템도 설치됐다. 바이오매스 시스템은 가축 분뇨를 친환경적으로 처리해 환경 부담을 줄였고, 네팔 신둘리 마을 농가의 가구 소득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기존 사용하던 LPG 가스의 일부분을 바이오매스 에너지로 활용하면서 농가의 가구 소득이 향상됐다. 가축 분뇨를 통해 생산된 바이오매스는 한 달에 약 7kg으로, 약 7달러 이상의 에너지 비용을 절약했다.

이혜원 헤퍼코리아 대표는 "바이오매스 시스템은 네팔 신둘리 마을 주민들이 기후위기 대응 중 특히 큰 효과를 체감한 부분"이라며 "처음에는 필요 없다던 주민들도 도입을 원해 약 120가구가 바이오매스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말했다.

코이카와 헤퍼코리아는 단순한 가축 지원을 넘어 디지털 기술 교육을 통해 낙농업의 구조적 전환을 시도했다. 네팔 카말라마이시 지역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기반 낙농 관리 시스템 '파머스 핸즈(Farmers' Hands)'를 도입한 것이다. 국내 스타트업 기업 바딧(Bodit)이 개발한 '파머스 핸즈'는 조달청과 코이카 협력으로 추진된 '2025년 혁신제품 수출선도형 시범구매(해외실증) 사업'에 선정돼 2025년 6월 네팔 농가 18곳에 100대가 보급됐다. 소 목에 달린 기기와 연결된 '파머스 핸즈' 앱 알림을 통해 농민들은 가축의 이상 징후를 확인해 질병에 조기 대응하거나 사료의 효율성을 분석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경험에 의존하던 기존 사육 방식에서 벗어나 과학적이고 계획적인 가축 관리가 가능해진 셈이다.

디지털 전환은 농민들의 지식 역량을 키우는 교육 혁신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앱 사용법부터 백신 주기, 발정기 관리, 위생적 착유법까지 현장 중심의 교육이 병행됐다. 농가 내 유선 인터넷 환경이 구축된 점도 중요한 성과다. 특히 디지털 전환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변화한 것이다. 기존 가사노동과 보조적인 축산 업무만 하던 여성들이 디지털 기기 사용과 집유소 운영 교육을 받고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자 주체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파머스 핸즈를 통해 젖소의 건강 상태를 기록하고, 우유 생산량을 정리하며, 마을 회의에 의견을 자발적으로 제출하는 등 실질적인 낙농 전문가로 성장했다.

Mini Interview

"주민이 수혜자에서 마을 변화 주도하는 주체로 성장해"

이혜원 헤퍼코리아 대표

Q 사업을 추진하며 현장에서 만난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가요?

사람의 변화입니다. 처음엔 낯선 기술에 주저하고 말 한마디 하기 어려워했던 분들이었는데, 지금은 마을 회의를 주도하고, 협동조합을 직접 운영하세요. 마을 주민 중 인디라 포크렐 씨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항상 저희에게 '학교에 다니는 기분'이라고 하셨거든요. (웃음) 예전에는 배울 기회가 없었는데, 지금은 자신이 속한 여성낙농협동조합의 운영진으로 활동하고 계세요. 인디라 포크렐 씨가 네팔 정부 관계자와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많은 사람 앞에서 당당히 조합의 목표를 발표하셨을 땐 저도 울컥했습니다.

Q 기술 도입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었나요?

좋은 기술이 있어도 그것을 현지에 그대로 가져다 놓았을 때 제대로 작동할 것인가는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파머스 핸즈라는 애플리케이션과 스마트 축산기기를 도입했는데,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겐 매우 낯선 도구였거든요. 축산 관련 정보를 처음엔 수기로 적어두고 나중에 애플리케이션에 입력하는 분들도 많았어요. 그래도 꾸준한 교육을 통해 변화가 생기고 점점 '직접 디지털로 기록하고 확인하는 게 편하다'는 인식이 자리 잡았어요.

Q 마을에도 변화가 생겼나요?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주목한 건 '공동체'입니다. 마을 주민 모두가 사업 비전과 운영 상황을 공유하며 협력하고 있습니다. 여성들도 달라졌어요. 처음엔 눈도 안 마주치시던 분들이 지금은 "우리가 받은 도움을 언젠가 다른 마을에 돌려주고 싶다"고 말씀하세요. 또 협동조합 회원들이 정부에 제안서를 작성해 분뇨 활용 농작물 재배를 위한 비닐하우스 기자재를 따로 확보한 일도 있었어요. 단순히 수혜자가 아니라 지역 변화를 주도하는 주체로 성장한 거죠.

Q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 있다면요?

한 여성이 "아이들 급식비를 제 손으로 낼 수 있어서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한마디에 진행 중인 지원 사업의 모든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소는 단지 매개일 뿐이고, 진짜 변화는 사람이 만들어 내는 거니까요. 여성의 권리, 가족의 변화, 공동체의 회복까지 모두요. 저는 이것이야말로 ODA의 본질이고, 지속가능성이라고 믿습니다. K



• 이혜원 헤퍼코리아 대표(오른쪽)가 네팔 신둘리 마을의 낙농 사업 활성화를 위해 한국농림축산식품부, 농협중앙회 등과 협력해 지원한 착유소 '시돌이'와 신둘리 마을 여성과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 헤퍼코리아 제공



• 교실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코이카 직원들과 파키스탄 난민촌 학생들

팔레스타인 서안지구 공공 재활치료센터 건립 및 역량 강화 사업 외

“깨끗한 물 마시고, 재활치료 받으며 건강한 일상 되찾았어요”

매년 9월 21일은 유엔(UN)이 지정한 세계 평화의 날이다. 코이카는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지구촌 곳곳에서 분쟁과 기후변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계층을 지원하고 희망을 전하고 있다. 파키스탄과 팔레스타인에서 펼치고 있는 여러 지원 활동은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증명한다.

급수 시스템 설치로 깨끗한 물 확보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먹는 것도, 씻는 것도 사치였죠. 하지만 코이카 덕분에 이제 언제든 깨끗한 물을 쓸 수 있습니다.”

사미 울라 씨 가족은 2021년 탈레반 집권 이후 파키스탄으로 피신해 북서부의 다르가이 난민촌에서 살고 있다. 그들에게는 깨끗한 물을 구하는 것이 매일 겪는 골칫거리였다. 마을에 우물이 없기에 그의 어린 딸들은 무더위를 견디며 물을 구하러 먼 거리를 걸어야 했다. 하지만 코이카가 다르가이 난민촌에 급수 시스템을 설치하면서 상황이 확 바뀌었다.

“더 이상 딸들이 먼 곳까지 가지 않아도 됩니다. 덕분에 공부할 시간이 생겼어요.”

사미 울라 씨와 이웃들은 이제 집 마당에서 작은 정원까지 가꾸는 행복을 누리고 있다.

코이카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유엔난민기구(UNHCR)와 협력해 ‘파키스탄 내 아프가니스탄 난민 및 수용 공동체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한 가지로 난민이 밀집한 카이베르파크툰크와주 전역에 수원지 14곳을 발굴하고, 이 중 8곳에 대형 정수 및 저수 시스템을 설치했다. 당초 대형 저수 시스템 2개를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소규모 저장소 8개로 분산 설치한 것은 주민 의견을 반영해 유연하게 대처한 전략으로 평가받는다.

파키스탄 공공 의료기관에 첨단 의료 장비 도입

코이카는 식수 문제뿐만 아니라 보건·교육 분야에서도 파키스탄 지역사회를 폭넓게 지원하고 있다. 카이베르파크툰크와주와 발루치스탄주의 공공 의료기관 16곳에 의료 장비와 태양광 발전 장비를 설치했다. 특히 발루치스탄주의 주도 퀘타에 자리한 신장비뇨기병원에는 산소 발생 장치를 도입해 중증 호흡기 환자의 회복률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6곳의 난민촌에 있는 모자보건센터의 시설을 보수하고 장비를 지원했다. 이들 보건센터는 24시간 분만실을 운영하고 긴급 이송용 구급차를 갖춰 임산부와 신생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최전선에 있다. 2024년 한 해에만 코이카의 지원으로 약 14만 명의 난민 환자가 기초 진료를 받았고 약 15만 명이 결핵 검진을 받았다.

교육 분야도 폭넓게 지원하고 있다. 코이카는 여성 난민 아동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여중생 3,000여 명에게 교통비를 지원했다. 이를 통해 여학생들은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학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여성의 조혼 예방과 사회 참여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아동들을 위해서는 ‘가정 기반 대안 학습 프로그램’을 도입해 교육의 끈을 놓지 않도록 했다. 또한 디지털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교사들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교육 방식에 대한 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학생들에게 태블릿PC를 제공해 효과적인 디지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있다.

코이카는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활동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난민과 사업 기관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하는 ‘커뮤니티 봉사자’를 통해 난민들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현장에서 바로 파악하고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또한 성소수자와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해 NGO 단체와 함께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성폭력 대응 전략도 마련했다.

팔레스타인에 재활치료센터 개소

“평생 걷지 못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코이카 덕분에 과거의 일상을 되찾았어요.”

코이카의 인도적 지원은 대표 분쟁 지역인 팔레스타인에서도 큰 변화를 일으켰다. 카바티아에 사는 19세 청년 아흐마드 아베드 씨는 약 1년 4개월 전, 이스라엘 공습 중 오른쪽 머리에 로켓 파편을 맞아 심각한 외상성 뇌손상을 입었다. 즉시 중환자실에 입원했지만 무려 22일간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다. 왼쪽 팔다리가 마비됐고 오른쪽 눈도 보이지 않아 다른 이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다.

카바티아에 있는 재활치료센터로 옮긴 그는 물리치료를 받았고 3주 만에 상태가 좋아졌다. 걷는 동작이 훨씬 안정적이고 자연



• 코이카가 팔레스타인 라말라에 세운 재활치료센터에서 수혜자의 재활치료 과정을 보호자와 치료사가 지켜보고 있다.

스러워져 스스로 바닥에서 일어나고 계단을 오르는 등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

물리치료와 함께 4주 동안 작업 치료도 병행했다. 덕분에 양손으로 식사·목욕·옷 입기·세수 등 일상생활을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회복됐다. 기억력과 인지기능이 좋아지면서 하루의 일정을 스스로 계획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외모 변화와 부상에 대한 충격으로 심리적으로도 불안과 사회적 고립 등을 겪었지만, 꾸준한 심리치료를 통해 안정과 자신감을 되찾았다. 현재 아흐마드 씨는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고 있다. 일도 다시 시작했다. 스스로 운동을 하며 재활하는 것도 잊지 않고 있다.

아흐마드 씨가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게 도운 카바티아 재활치료센터는 코이카의 지원으로 지어졌다. 코이카는 2025년 4월 28일 요르단강 서안지구에 있는 라말라와 카바티아에 재활치료센터 2곳을 열었다. 이는 코이카가 세계보건기구(WHO)와 함께 202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서안지구 공공 재활치료센터 건립 및 역량 강화 사업'의 일환이다.

지역 공공병원을 리모델링해 새로 문을 연 재활치료센터 내에는 작업치료실, 물리치료실, 언어치료실, 정신건강상담실 등이 들어섰다. 특히 가상현실(VR)을 기반으로 한 보행·균형 훈련 시스템, 인지 재활에 활용되는 3D 인터랙티브 장비 등 최신 장비들을 갖춰 기존 물리치료에 국한되었던 것에서 벗어나 작업 치료, 심리사회적 지원, 사회 재활 등의 통합 치료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들 치료센터는 2년 가까이 무력 충돌로 고통받고 있는 팔레스타인 서안지구 주민들이 한국의 지원으로 전문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중동 지역 상생 협력 실현할 것

코이카는 각종 분쟁과 갈등, 테러, 국가 체제의 불안정성 등으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거나 열악한 환경 아래 기초생활 여건이 부족한 국가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며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국제기구, 시민사회 등 다양한 국내외 파트너와 협력해 팔레스타인의 평화 구축을 위한 인도적 지원 사업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대표적 사례로 유니세프와는 2021년부터 '팔레스타인 서안지구 통합적 교육 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 장기간에 걸친 분쟁으로 인해 영향받는 지역사회의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교육 환경을 개선했다. 팔레스타인 대표 NGO 중 하나인 '사와(Sawa)'와는 분쟁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민종 코이카 팔레스타인사무소장은 "이스라엘과의 분쟁 발발 이후 유엔 등 다양한 파트너와 협력해 팔레스타인에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며 "코이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분쟁을 극복하고 평화 정착과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들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K



• 코이카와 WHO가 팔레스타인 서안지구 공공병원을 리모델링해 문을 연 재활치료센터 내부



• 코이카가 2025년 6월 26일 경기도 성남 코이카 본부에서 '코이카 개발협력 평가 포럼'을 개최했다.

코이카 개발협력 평가 포럼

'무엇을 했나'에서 '무엇이 바뀌었나'로… 영향평가, 개발협력 사업의 차원을 높이다

개발협력 사업이 진행됐다고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는 건 아니다.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짓고, 기술을 전수하는 등의 개발협력 사업은 겉으로 드러나는 성과보다 사업 자체가 주민의 삶에 어떤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왔느냐로 평가돼야 한다. 이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성과 너머 그 안에서 일어난 변화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활동이 바로 '영향평가(Impact Evaluation)'다.

영향평가는 단지 산출(Output)이 아닌 성과(Outcome)와 영향(Impact)에 주목한다. 주민의 행동 변화, 삶의 질 향상, 사회 구조의 변화를 추적하고 '그 변화가 이 사업 덕분인가'를 묻는다. 영향평가는 단순한 기법이 아니라 개발협력 사업으로 인한 변화의 '깊이'와 '지속성'을 데이터로 설명하는 도구다. 특히 다양한 변수가 작용하는 오늘날의 복합적 환경에서는 물량 중심의 성과 지표만으로는 개발협력 사업의 성과를 올바르게 측정하는 데 무리가 있다. 사업이 끝난 후 유사한 개발협력 사업의 설계와 정책 결정에도 실질적 교훈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영향평가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여겨지고 있다.

코이카는 조직 전략 전반에 영향평가를 도입하고 있다. 2023년부터 세계은행, 유니세프, 월드비전 등과 협력해 실무진 대상 영향평가 교육을 하고 있다. 2025년은 자체 교육 과정을 개설해 영향평가 내재화에 본격 착수했다. 이 가운데 코이카는 2025년





• '코이카 개발협력 평가 포럼'에는 여러 패널들이 연단에 올라 영향평가의 가치를 다양한 관점에서 조명했다. (왼쪽부터) 원지혜 코이카 평가실장, 서희권 세계은행 개발영향본부 박사

6월 26일 '데이터 기반 평가의 시작: 영향평가'라는 주제로 경기도 성남 코이카 본부에서 '코이카 개발협력 평가 포럼'을 진행했다.

'진짜 변화'를 묻는 영향평가, 코이카 개발협력 평가 포럼 개최

코이카 실무진은 물론 세계은행, 유니세프 등 주요 파트너 기관의 전문가들이 함께한 이 포럼은 단순한 기법 공유를 넘어 코이카가 어떤 철학과 실천 전략으로 영향평가를 사업 구조에 적용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이정표였다.

기조 발제를 맡은 원지혜 코이카 평가실장은 왜 지금 코이카가 영향평가에 주목하는지를 세 가지 이유로 설명했다. 첫 번째는 ODA(공적개발원조) 예산이 계속 늘어나면서 함께 커지는 성과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기 위함이다. 두 번째는 사업이 점점 더 커지고 복잡해지는 가운데 어디서 어떤 효과가 일어나는지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다. 마지막은 코이카가 영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 근거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원 평가실장은 설명했다.

원 평가실장은 처음으로, 평가실 주도로 5개의 영향평가 과제를 선정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으로는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평가를 함께 설계하고, 그 결과를 실제 정책과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계획이다.

첫 번째 세션에서 김부열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교수가 영향평가의 핵심을 '이 사업이 정말 변화를 만들었는가'라는 질문으로 요약했다. 단순히 '좋은 결과가 있었는가'를 넘어 '그 결과가 이 사업 덕분이었는가'를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그는 코이카가 가나에서 시행한 식수위생 사업, 말라위 장학금 사업, 캄보디아·미얀마 농촌공동체 개발 사업 등 다양한 사례를 소개했다. 김 교수는 "캄보디아와 미얀마에서 마을의 생활 환경 개선, 소득 증대, 교육과 보건 서비스 접근 확대 등을 목표로 진행된 사업의 효과를 준실험적, 실험적 영향평가 방법론을 통해 평가했다"며 "이를 통해 어떤 요인이 실제로 변화를 만들었는지 과학적으로 밝혀낼 수 있다"고 전했다.

서희권 세계은행 개발영향본부 박사는 영향평가가 필요한 세 가지 상황을 설명했다. 첫째, 사업이 현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들여다봐야 할 때다. 겉보기엔 문제없어 보여도, 자세히 보면 여러 문제가 얽혀 있을 수 있다. 둘째, 사업을 둘러싼 정부, 시민사회, 국제기구 등 다양한 관계자 사이에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가장 효과적인가'에 대해 의견이 엇갈릴 때다. 이럴 때는 평가를 통해 실제 어떤 방식이 효과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는 부룬디에서 세계식량기구(WFP)와 함께 학교 급식 사업을 했던 경험을 예로 들며, 데이터에 기반을 둔 평가가 이해관계자 간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셋째, 단기적인 숫자 성과를 넘어 정말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는지 알고 싶을 때다. 서 박사는 현재 코이카와 함께 진행 중인 '페루 쿠스코의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 사업'을 예로 들며 단순히 '재활용률이 올랐다'는 결과보다 그 변화가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나 정책에 어떤 구조적인 영향을 줬는지를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발표를 맡은 즈라타 브루카프 유니세프 박사는 아동과 보건 분야에서 수행된 두 가지 사례를 통해 영향평가가 복잡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소개하며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위한 사업일수록, 감이 아닌 증거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조윤호 월드비전 미래아동연구소 책임연구원은 NGO의 시각에서 영향평가가 왜 중요한지를 짚었다. 그는 "영향평가는 복잡한 기술보다 신뢰의 문제"라고 강조하며 "현장과의 관계, 파트너와의 협업이 평가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조 박사는 "평가란 숫자만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다"라며 "사업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진짜 의미 있는 변화가 드러난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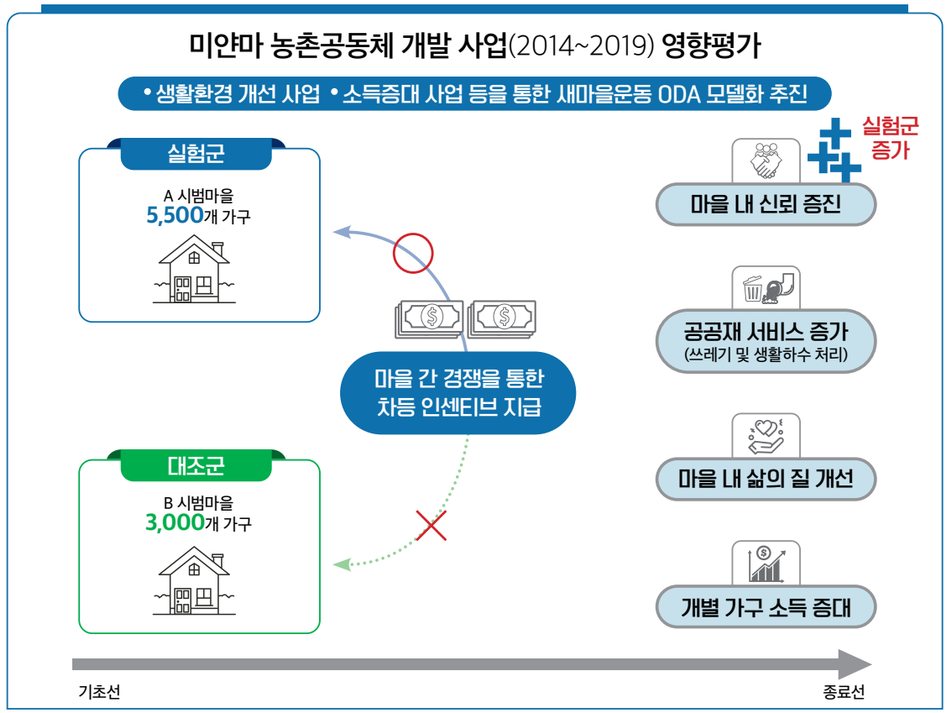


• 조윤호 월드비전 미래아동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영향평가의 핵심은 현장과의 관계와 파트너와의 협업에 있다고 강조했다.

코이카, 변화를 설계하다

코이카는 영향평가를 단순히 성과를 뒤쫓는 도구가 아니라 개발협력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디딤돌로 삼고자 다양한 변화를 모색 중이다. 앞으로 사업 첫 단계부터 평가를 통합하는 방식을 실현하기 위해 평가실이 주도하는 영향평가 과제를 사업 기획 단계부터 실시하고 영향평가를 정책 결정과 예산 편성, 파트너 선정 등 핵심 의사결정의 근거로 삼을 계획이다. 또 공공행정, 환경, 디지털 전환처럼 구조적 변화가 요구되는 분야에도 영향평가를 적용함으로써 매년 여러 건의 과제를 정례화하는 체계를 준비하고 있다.

코이카는 영향평가를 통해 '정답'을 좇는 기관이 아니라 '변화를 설계하는 기관'으로 나아가는 중이다. K



코이카 국제기구 진출 지원사업 참가자 인터뷰

“지속 가능한 국제기구 취업 지원, 청년들 커리어에 큰 도움”

국제기구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코이카가 영프로페셔널(YP)과 다자협력전문가(KMCO), WFK 코이카 봉사단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코이카는 이 프로그램들이 단발성에 그치지 않도록 국제기구에 취업한 청년들이 취업을 연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 중이다. KMCO 사후지원 프로그램과 국제기구 협력사업 한국인 채용 제도를 통해 국제기구에 진출한 청년들을 만났다.

권정화 GGGI 필리핀 사무소 프로그램 담당관

“KMCO 사후지원 프로그램으로 국제기구 채용 확률 높여”



• 권정화 GGGI 필리핀 사무소 프로그램 담당관이 민다나오개발청의 홍보 영상에 출연해 필리핀 수리가오 맹그로브 생태계 디지털 모니터링 사업을 설명하고 있다.

Q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글로벌녹색성장기구(Global Green Growth Institute·GGGI) 필리핀 사무소에서 프로그램 담당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권정화입니다. GGGI는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국제기구로, 저는 필리핀 정부 및 국제 파트너와 협력해 필리핀의 기후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담당하는 업무는 신규 사업 기획과 제안서 작성, 파트너십 구축, 사업 이행 모니터링 및 평가 등 프로그램 전 과정에 걸쳐 있습니다. 특히 필리핀의 복잡한 기후, 사회, 경제적 환경 속에서 정부, 개발 파트너, 민간 기관과 함께 현실적인 솔루션을 도출해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가 단위의 기후 대응 전략과 지역사회를 연결한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Q GGGI가 낯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GGGI는 2012년에 설립된 국제기구로, 본부는 서울 정동에 있으며 50여 개 국가 사무소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회원국과 함께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동시에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책 자문과 기술 지원은 물론, 실제로 회원국이 녹색 투자 유치와 제도 정비를 추진할 수 있도록 돕는 ‘녹색성장 파트너’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각국이 지속 가능한 발전목표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Q 코이카 다자협력전문가(KMCO)로 선정돼 GGGI 필리핀 사무소에서 근무를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코이카 KMCO(KOICA Multilateral Cooperation Officer) 프로그램은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 및 개발협력 분야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2013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유엔 기구, GGGI 등 파견 MOU를 체결한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우리나라 인재를 파견하고 있습니다. 파견 기간은 1년이며 평가를 통해 추가 1년 연장이 가능해 총 2년간 근무할 수 있습니다.

저는 2022년 KMCO 13기로 선발돼 2년간 GGGI 필리핀 사무소에서 근무했습니다. 파견 기간 동안 GGGI의 사업 구조, 코이카의 국제기구 협력사업, 국제기구의 의사 결정 및 협업 방식 등을 깊이 이해할 수 있었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2025년 2월 GGGI 직원으로 전환됐습니다. KMCO는 우리나라의 인재들이 국제기구 현장에서 일하며 전문성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코이카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입니다. 파견 기간 동안 코이카 사업 외에도 정부 협력, 국가전략 수립, 현장 모니터링 등 국제기구 고유의 다양한 실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매우 효과적인 프로그램입니다. 파견 종료 후에는 평가를 통해 코이카의 KMCO 사후지원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 반기문 GGGI 의장(가운데)과 GGGI 필리핀 사무소 동료들. 맨 오른쪽이 권정화 담당관이다.

Q 2025년 초에 KMCO 사후지원 프로그램 대상이 되셨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KMCO 사후지원 프로그램은 2년간의 활동을 종료한 파견자가 국제기구 직원 전환의 기회를 얻게 될 경우, 코이카와 국제기구의 평가 및 선발 과정을 거쳐 코이카가 해당 국제기구에 일정 금액의 인건비를 보조해주는 제도입니다. 국제기구 입장에서는 이미 현장에서 검증된 인력을 채용하면서 코이카의 보조를 받을 수 있고, 개인은 채용 과정에서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채용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 역시 2025년 이 제도를 통해 국제기구에 더욱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었고, 예측 가능한 커리어 계획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Q 현재 미국 국제개발처(USAID)의 자금 동결 사태로 국제기구를 둘러싼 많은 환경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환경 변화 속에서 KMCO 프로그램이 국제기구 진출 과정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미국 원조 중단의 영향으로 필리핀에서도 일부 프로젝트가 보류되거나 관련 기관의 인력 축소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제개발협력 환경이 불확실해졌다는 것을 체감합니다. GGGI 필리핀 사무소는 미국의 자금에 직접적으로 의존하지 않아 재정 충격은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상황을 보면서 한국 청년들이 비교적 안정적인 환경에서 국제기구 커리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설계된 KMCO 프로그램의 가치를 느꼈습니다. 불확실한 환경일수록 경력의 흐름이 쉽게 흔들릴 수 있는데, KMCO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2년간 안정적으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파견 기간 동안 안정감을 가지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었고, 더 자신있게 역량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Q GGGI 소속으로 기후위기와 관련해 대중들이 꼭 알았으면 하는 이야기나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까요?

필리핀은 7,000여 개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로 기후위기의 영향을 가장 먼저, 그리고 크게 받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최근 몇 년간 극한 기상 현상이 더욱 빈번해지고 기후 패턴이 변화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필리핀의 건기인 11월에 발생한 슈퍼태풍 우완(Uwan)으로 약 750만 명이 피해를 입었고 주택 27만여 채가 손상되는 등 농업과 생계 기반에도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반복되는 피해에도 회복에 걸리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인프라 부족, 재정 여력 부족, 대응 체계의 한계 등 다양한 요인이 결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후위기 대응에서 회복력 강화가 예방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필리핀은 한국의 정책 경험, 재난 대응 역량, 녹색기술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양국이 함께 구축할 수 있는 협력 모델이 매우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양국간 교류 협력 기회가 더 많아지길 바랍니다.

Q 이런 불확실한 국제 환경 속에서 국제기구에 진출하고 싶은 후배들이 어떤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국제기구 진출’은 멀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국제기구에 진출해보면 각자의 경험과 연결되는 부분이 정말 많습니다. 특정 전공이나 경력이 ‘정답’이라기보다, 자신의 경험을 국제기구 의제 및 가치와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또한 규모가 작은 국가사무소에서는 업무 범위가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성과 더불어 여러 역할을 소화할 수 있는 멀티플레이어 역량과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 현지 업무 방식과의 균형, 파견국에 대한 관심과 적응력도 꼭 필요합니다.

김재휘 WFP 캄보디아 사무소 모니터링 및 평가 팀장

“정규 채용절차 통해 국제기구 정식 직원 대우 받아”



• 김재휘 WFP 캄보디아 사무소 모니터링 및 평가 팀장

Q 자기 소개와 처음 국제기구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를 알려주세요.

세계식량기구(WFP) 캄보디아 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재휘입니다. 현재 조사 및 모니터링, 평가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영어 배우는 게 좋아서, 혼자 팝송이나 CNN 뉴스를 들으며 외교관의 꿈을 키웠습니다. 제가 고등학생일 때 소위 ‘한비야 바람’이 불었고, 국내에서 세계화 붐도 일어 제 개인적 경험과 시대상이 맞물려 자연스럽게 국제 개발분야로 커리어를 시작했습니다.

Q 코이카와 첫 인연은?

제가 석사 논문을 쓰면서 실제 프로젝트에 기반한 논문을 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코이카 영프로페셔널(YP)로 한국국제개발연구소에서 6개월간 일했던 게 코이카와의 첫 인연이었습니다.

이 연구소에서 조사보조역으로 일하며 파라과이와 엘살바도르의 코이카 모자보건센터 건립 사업 평가 용역을 도왔고, 주로 현장 사업 평가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했습니다.

Q 국제기구 협력사업 한국인 채용 제도를 통해 WFP에 근무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제도인가요?

국제기구 협력사업 한국인 채용제도가 이전 한국 정부의 국제기구 한국인 진출 사업들과 다른 점은 채용 자체를 국제기구를 통해서 한다는 점입니다. 외교부의 국제기구 초급전문가(JPO)나 유엔자원봉사단(UNV), 코이카의 다자협력전문가(KMCO) 사업들은 한국 정부가 한국인을 선발해 국제기구에 추천하는 방식이라면, 국제기구 협력사업 한국인 채용제도는 국제기구에서 공개 경쟁 절차를 통해 한국인을 선발합니다. 가장 큰 차별성과 강점은 국제기구의 정규 채용 절차를 통해 채용되기 때문에 정직원이나 일반 컨설턴트 직원과 다를 바 없는 계약 조건을 누리게 된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하면 ‘외부 인력’이 아니라 ‘내부 인력’으로 인정받아 조직 내 업무의 중요성과 책임도가 높아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국제기구 협력사업 한국인 채용제도뿐 아니라, JPO나 KMCO 사업 모두 한국 정부에서 국제기구에 더 전략적으로 ‘내부 인력’으로 혹은 그에 준하는 지위로 채용해줄 것을 어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JPO 프로그램이 이미 몇 년 전 국제기구 직접 채용으로 전환된 점은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Q 국제기구 협력사업 한국인 채용 제도의 수혜자가 된 과정을 알 수 있을까요?

아프리카 등지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다 보니 사업지가 가족이 있는 한국에 더 가까이 있으면 하는 생각이 참 크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커리어 전략으로 아시아 피보팅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WFP 캄보디아 사무소에서 코이카 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관련 한국인 인력 채용 수요가 있었고, 사무소에서 한국인 채용을 위해 미래 국제 인재 풀(Future International Talent Pool·FIT Pool)을 찾아보셨던 것 같습니다. 2022년에 제가 이 인재풀에 모니터링 및 평가(M&E) 전문관 급으로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WFP 캄보디아 사무소에 바로 채용될 수 있었습니다. 이 풀에 들어가 있어도 국가 사무소나 본부에서의 공고 수요가 없으면 아무 기회로 연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코이카 국제기구 협력사업 한국인 채용 제도가 인재풀로 연결돼, 타이밍도 좋았던 케이스였던 것 같습니다. 또한 제가 WFP 캄보디아 사무소에서 맡고 있는 코이카 사업이 1·2차에 걸쳐 원활히 진행돼 한국인 채용 예산도 안정적으로 확보된 상황이어서 업무 지속가능성도 높일 수 있었습니다.

Q WFP 소속으로 식량 문제와 관련해 대중들이 꼭 알았으면 하는 이야기나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까요?

제가 꼭 이야기하고 싶은 메시지는 기후위기가 곧 식량위기라는 점입니다. 현재 82개국에서 3억 5,000만 명의 사람들이 급성 식량 불안정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하지만 식량 생산/공급 시스템에서는 전체 생산량의 20% 이상이 폐기되고 있습니다. 식량도 충분하고, 기술도 충분하고, 지식도 충분한데, 왜 전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굶주려야 할까요? 결국 식량위기는 생산의 문제를 넘어, 분배의 문제, 정의의 문제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식량위기를 해결한다는 것은 더 많은 음식을 생산하는 것만이 아니라,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공평한 분배를 이루며, 공정한 시스템을 만드는 일에 기여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후 행동이 곧 식량 정의를 위한 행동입니다.

Q 국제기구를 경험하고 싶은 후배들이 어떤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지난 세기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무역과 민주주의의 가치가 세계 질서를 이끌며, 다자주의가 강화된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다자주의에 균열이 생기고, 새로운 국제 구도가 형성되는 전환기가 올 거라 생각합니다. 국제기구는 다자주의에 기반한 규칙과 규범, 가치를 조율하고 실행을 돕는 역할을 하는데, 이 전환기에 있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다시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국제기구, 사기업, 컨설팅 업계, 학계)’에 집중하기보다는 ‘왜(어떤 가치, 문제의식)’ 중심으로 미래를 계획하고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후배들뿐 아니라 현직에서 일하고 있는 모두가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국제기구에서 일하면서 ‘나의 미래 커리어를 어떻게 키울까’, ‘어떤 경쟁력을 통해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지 않은 순간이 없었습니다. 또한 국제기구 직원은 항상 해외에서 일하고, 국제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이 국제기구에서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성격과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도 고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Q 국제기구에 진출하는 데 있어 어떤 경험이 가장 중요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국제기구나 국제개발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께 꼭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 직접 부딪혀 보세요.” 그 경험 속에서 이 일이 자신에게 맞는지, 혹은 다른 길을 찾아야 하는지를 하루하루의 생생한 경험을 통해 훨씬 더 명확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국제기구의 일과 역할은 AI의 발전, 업무 자동화, 유엔(UN) 개혁 등으로 인해 눈에 띄게 변화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전문가가 점점 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AI는 일반적인 업무를 빠르게 대체할 것이고요.

고도의 사고력, 기획력, 그리고 전문 분야의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이니셔티브를 설계하는 일은 그때도 사람의 몫일 것입니다.



• 김재휘 WFP 캄보디아 사무소 모니터링 및 평가 팀장(왼쪽에서 첫 번째)이 부임 후 갔던 첫 현장 방문. 시엠립 주의 급식을 운영하는 학교 선생님들 및 지역 관계자들이 함께 했다.



• 조소희 코이카 엘살바도르사무소 소장(왼쪽에서 세 번째)은 2023년부터 엘살바도르에서 다양한 코이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2025년 엘살바도르 국립보건교육센터 착공식에 참석한 모습

조소희 코이카 엘살바도르사무소 소장 기고

엘살바도르 경제 재건을 돕는 손길

지구 반대편 엘살바도르에서 생활한 지 3년 차가 됐다. 커피를 좋아하는 이들에겐 뛰어난 품질의 커피 산지로 알려져 있지만 대다수 사람들에게 엘살바도르는 생소한 나라다. 나 역시 남미 파라과이에서는 근무해봤지만 중미에 위치한 엘살바도르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 그래서 이곳으로 발령이 났을 때 검색도 해보고 전임자에게 이것저것 물어보며 낯선 나라에 대해 공부했다. 알면 알수록 중남미 나라들은 대부분 치안이 불안정한 터라 내심 걱정이 커졌다.

2023년 2월, 현지에 도착해보니 우려와 달리 사람들이 자유롭게 거리를 활보하며 경계심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다. 치안이 많이 개선된 모습을 보며 코이카 엘살바도르사무소가 중점적으로 진행해온 치안 역량 강화 사업이 치안 개선에 크게 기여한 것을 체감할 수 있었다.

엘살바도르는 원래 갱단이 연루된 사건·사고가 심각한 곳으로, 코이카는 엘살바도르 정부와 협의해 현지 경찰의 범죄예방과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3차에 걸친 사업을 통해 200여 대의 방범 카메라와 관리 인력을 양성했으며 2024년에는 CCTV 관제센터가 문을 열어 CCTV 치안 시스템을 안착시켰다. 또한 여성 범죄 전담 수사 인력과 디지털 포렌식 역량 강화 인력을 1,000명 이상 배출해왔다. 그 결과, 엘살바도르 사람들이 더욱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내가 봐온 엘살바도르 사람들은 누구보다 근면하고 성실하다.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고 보통 토요일 오전까지 근무를 한다. 자원이 풍부한 다른 남미 국가들에 비해 엘살바도르는 환경이 척박하고 자원이 부족해 열심히 일해서 삶을 일궈야 했을 것이다. 이 점이 우리나라와 참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전쟁의 폐허에서 오로지 맨손으로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뤄낸 우리 민족처럼 부지런히 살아가는 현지인들이 친근하게 느껴져 금방 정이 들었다. 현재 코이카 엘살바도르 사무소에는 나를 포함해 12명의 한국인과 10명의 현지인이 함께 근무하고 있다. 코스타리카, 벨리즈, 파나마, 니카라과 등 주변국까지 관리하느라 바쁘지만 모두 한 가족처럼 서로를 챙기며 엘살바도르 발전을 위한 여러 사업을 수행해 가는 중이다. 그중에서도 '역동적 소상공 개발 사업'을 빼놓을 수 없다.

제조업이 취약한 엘살바도르는 경제인구의 대부분이 영세 소상공인이다. 엘살바도르 인구가 630만 명 정도인데 초소형 기업이 100만 개인 것을 보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소규모 자영업에 종사한다고 볼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여성 한 명이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면서 액세서리도 만들어서 팔고, 채소도 떼어다 판매하는 식이다. 이곳 사람들은 배움은 짧더라도 하루라도 빨리 자신의 가게를 연다. 엘살바도르를 '자영업자들의 나라'라고 일컫는 이유다.

그런데 식당이나 카페 같은 소규모 사업으로는 국가 경제를 크게 성장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코이카는 역동적 소상공 개발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고부가가치 창업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예를 들어 예비 창업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창업자금 지원 경진대회를 통해서 우수 사업 아이템을 발굴한다. 이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사업을 관리할 수 있도록 디지털 분야의 교육도 실시한다.

2024년 문을 연 디지털 창업센터에서는 3D 프린터를 활용해 시제품을 만들고 드론을 활용해 홍보 영상을 촬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D프린팅의 경우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이 빠르고 정밀하게 시제품을 제작할 수 있어 비용 절감과 시간 단축 측면에서 호응이 좋다. 디지털 창업센터는 개소



• 현지 경찰의 범죄 예방과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코이카가 2024년 엘살바도르에 CCTV 관제센터를 지원했다.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큰 호응을 받으며 벌써 1기 수료생을 배출했다. "코이카 덕분에 창업의 꿈에 한 발 더 가깝게 다가서게 돼 한국 국민들에게 정말 감사드린다"고 활짝 웃으며 말하던 한 수료생의 모습이 기억에 남는다.

보통 코이카는 본격적인 사업을 착수하기 2년 전부터 계획을 수립한다. 철저한 준비를 거쳐 양국 간에 사업 약정을 체결하고, 사업이 본궤도에 올라 이정표를 하나하나 찍어갈 때의 보람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지난 2년간 엘살바도르에서 치안 역량 강화 사업, 역동적 소상공 개발 사업 등 여러 프로젝트가 현실화되고 코로나로 중단되었던 '월드프렌즈코리아' 봉사단을 4년 만에 재개해서 봉사단원들이 파견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감회가 새로웠다. 우리의 노력으로 엘살바도르 사람들의 삶이 더 나아졌다고 생각하니 뿌듯함과 함께 막중한 책임감도 느꼈다.

2025년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있다. 엘살바도르 국립보건교육센터와 엘살바도르 버스 정보 모니터링 센터가 완공되고 중미공학교육원(ICTA)에 혁신센터 공사도 첫 삽을 뜨게 된다. 코스타리카에서 하는 중미 3개국 건조회랑지역 시설원에 역량 강화 삼각협력 2차 사업에 착수해야 하고 코스타리카 국립대학과 함께하는 기술혁신 기반 창업 및 산학협력 지원사업을 마무리해야 한다. 또 현재 사업들과 연계해 신규 사업들도 열심히 구상하고 있다. 지난 2년 동안 엘살바도르를 비롯한 중미 지역을 이해하게 되었고 중미에 특화된 사업을 발굴하고자 노력했다.

앞으로도 내게 맡겨진 다양한 업무를 차질 없이 처리하고 늘 믿음직한 식구들이 모두 건강하고 무탈하게 보내기를 바란다. K



• 엘살바도르 소상공인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24년부터 디지털 창업센터가 운영됐다. 사진은 3D 프린터로 제작한 티셔츠를 확인하는 모습이다.

조숭호 코이카 평가실 과장 기고

‘아프리카의 진주’ 우간다에 종자를 심다

아프리카는 한국에서 1만km 이상 떨어져 있다. 사람의 왕래도 많지 않고 교역량도 적다. 2025년 1~7월 한국의 아프리카 수출액은 55억 6,359만 달러로 전체 수출의 1.4%에 불과하다. 방문객 숫자도 아시아, 미주, 유럽에 비할 바가 못 된다.

2022년 7월 코이카 우간다사무소로 발령 났을 때 주변사람들의 첫 반응은 “어디라고?”였다. 우간다의 빅토리아 호수에서 발원한 물이 이집트까지 흘러가는 나일강이 된다고 하면 겨우 알아들을 정도로 그들에게 우간다는 낯선 국가였다. 나 역시 부임하기 전까지는 우간다에 대해 알고 있는 내용이 손에 꼽을 만큼 적었다.

우간다가 어디야?

코이카 사무소는 아프리카 대륙에 16개나 있다. 코이카의 전체 해외사무소 47개 가운데 34%, 3분의 1이 아프리카에 있다는 의미다. 그만큼 코이카 업무에서 아프리카 대륙은 비중이 큰 지역이다. 어쩌면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유엔이 지정한 최빈개도국(Least Developed Country·LDC) 44개 가운데 32개가 아프리카에 몰려 있다. 특히 우간다는 최빈국이면서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률 세계 1위, 아프리카 내 난민 숫자도 약 160만 명으로 1위이다.

우간다는 경제인구 7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한다. 연평균 1인당 소득은 약 1,000달러. 한국 돈으로는 140만 원이니 한 달 소득은 10만 원 남짓하다. 우간다는 ‘아프리카의 진주(Pearl of Africa)’라고 불리는데 진주처럼 아름답다는 뜻이겠으나 개발이 덜 됐다는 뜻이기도 하다. 보석 가운데 오직 진주만 생물(조개)에서 나온다. 금, 은, 다이아몬드와 달리 세공도 하지 않는다. 좋은 의미로는 사람의 손이 닿지 않았다는 뜻이고 나쁘게 보면 잠재력을 키우지 못해 자연 그대로 방치돼 있다는 뜻도 된다.

우간다 경제가 농업에 의지하는 것에 비해 농업기술(농법)은 매우 뒤처져 있다. 특히 육종을 포기하다시피 했다. 육종이란 농작물의 수확량과 품질을 높이기 위해 품종을 개량하는 것을 말한다. 좋지 못한 종자(씨앗)에서는 좋은 수확물이 나오기 어렵다. 안타깝게도 우간다 농민 대부분은 종자를 구분하지 않는다. 고구마를 심을 때 호박고구마인지, 밤고구마인지 모른 채 심는 식이다. 종자마다 재배 방법이 다른데 종자를 모르니 제대로 재배하기 어렵고, 어떤 고구마가 나올지 모르니 품질관리도 안 된다. 제값을 받고 팔 수도 없다. 우간다 농민의 소득이 낮은 이유 중에 하나다. 육종을 제대로 못해 우수한 토종 종자가 드물고 수입 종자는 가격이 비싸다. 우간다 농민들로서는 비싼 수입 종자는 쓸 수 없으니 구할 수 있는 아무 종자나 심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 코이카 우간다사무소가 진행 중인 ‘주요 채소작물 종자 가치사슬 역량 강화 사업’ 사업지 현장. 연구자들이 육종 중인 여러 작물들의 생장을 점검하고 있다. 뒤쪽으로 한국형 온실 모습도 보인다.

우간다 최초의 우간다 토종 채소 종자 개발하기

특히 우간다는 토종 채소 종자가 없다. 코이카 우간다사무소가 2022년부터 ‘주요 채소작물 종자 가치사슬 역량 강화 사업’을 시작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코이카 사업을 통해 우수한 토종 채소 종자를 육종하고 이를 보급해 농민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토마토, 호박, 양파, 고추 등 일상생활에 꼭 필요해서 수요가 많은 작물을 대상으로 정했다.

코이카 우간다사무소는 한국형 온실을 대규모로 우간다에 공급했고 트랙터와 육종 기자재도 제공했다. 한국 전문가를 파견해 육종 교육을 진행 중이다. 우간다 연구진을 한국에 초청해 육종 연수도 매년 진행한다. 이 사업으로 육종이 완료되면 우간다 최초의 토종 채소 종자가 등록돼 지적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다. 종자가 보급되면 농민 소득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이다. 수출까지 꾀할 수 있다. 육종 연구와 신규 품종등록 과업을 수행하면서 우간다 전문가들의 역량도 글로벌 수준으로 올라갈 것으로 기대된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흘러가지는 않았다. 온실 자재인 파이프, 비닐을 한국에서 수입할 때 통관절차와 비용부담을 놓고 갈등이 있었다(한국산 자재의 성능이 탁월해 수입 자체에는 이견이 없었다). 왜 자신들을 위해 온실 자재를 수입하는 데 협조하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개발도상국 담당자들은 코앞의 이해득실만 처다보는 근시안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당장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내 나라를 위한 원조 사업이라 해도 무관심하기 일쑤다.

한국 사회도 한때 그랬으니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대규모 ODA(공적개발원조) 사업을 한국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데 그에 비하면 소액인 통관비용을 해결하지 않아서 사업이 지연될 때면 자괴감이 들었다. 실제로 ODA 사업은 한국 측이 성실히 임무를 수행하는 것만큼이나 수원국이 얼마나 충실히 분담 사항을 이행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린다.

다행히 ‘주요 채소작물 종자 가치사슬 역량 강화 사업’은 우간다 농촌진흥청(National Agricultural Research Organisation·NARO)이라는 좋은 파트너를 만나 여러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육종의 성과가 손에 잡히기 시작하면서 우간다 연구진 사이에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다. 육종은 여러 시즌을 거치며 종자의 고유 특질이 제대로 발현되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반복하는데 시즌이 거듭되면서 새로운 우량 종자 후보들이 쌓여갔다. 그러자 그동안 ‘예산도 없고, 기자재도 없어 채소 종자 육종은 힘들다’고 생각했던 연구진들이 “가능하다”라며 자신감이 붙기 시작했다. 한국이 제공한 최신 장비 덕분에 제대로 검사와 연구를 진행하면서 ‘당장 내 주머니에 돈이 생기지는 않지만 해볼 만하다’는 의욕을 보이는 연구자들도 생겨났다. 심지어 적은 액수지만 자기 돈을 들여 온실 토양을 개선해 사업에 도움이 돼 보려는 경우도 있었다. 우간다에서는 정말 드문 일이다.

내가 근무하던 2022~2025년 3년 동안 우간다가 엄청나게 달라졌다고 말하기는 조심스럽다. 어쩌면 지금 모습 그대로 수년간 머물 수도 있다. 그래도 육종 연구자들처럼 변화의 싹은 보였다. 한국도 소득이 우간다 정도인 1인당 GDP 1,000달러일 때가 있었다. 1977~1978년이었는데 그때의 자료화면들을 한번 찾아보시라. 헐벗고 굶주린 모습이 지금의 우간다보다 낫다고 하기 어렵다. 민주주의도 숨막히던 시대였다. 그랬던 한국이 GDP 3만 6,000달러 규모의 경제대국이자 민주주의 국가가 됐다. 한국이 가능했다면 우간다도 가능하지 않을까?

나는 우간다도 한국만큼 성장하면 좋겠다. 소득뿐 아니라 민주주의가 진전되고 사회 여건도 좋아지면 좋겠다. 그래서 모기에 물려서 죽는다는 걱정, 살 곳을 잃고 떠도는 난민이 될 것이라는 걱정 없이 꿈을 키우면 좋겠다. 그 과정에 코이카의 개발협력 사업이 많은 도움이 되면 좋겠다. 한국은 그런 역량을 갖춘 나라이고 그렇게 도울 의지도 갖춘 국가라고 나는 믿는다. K



• 우간다는 연중 24℃ 내외의 안정적인 기후와 일조량, 충분한 강수량, 그리고 비옥한 토양으로 농사를 짓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좋은 종자까지 보급된다면 농업 종사자들의 소득증대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 2024년 10월 코이카 우간다사무소에서 진행한 ‘연수생 총동창회’ 참석자들의 모습

가장 나다운 자기개발, 가장 우리다운 개발협력!

고익하, 잇츠마이플레저!(KOICA, It's my pleasure)

2024년 탄생한 '고익하'는 코이카가 처음 진행한 브랜드 캠페인 주인공이다. 코이카는 국제개발협력이 공공기관을 넘어 '국민 모두'의 참여로 이루어진다는 의미를 담아 '고익하를 찾습니다'를 첫 브랜딩 캠페인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고익하는 곧 국제개발협력에 뜻을 모으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우리 국민 모두'를 일컫는 상징으로 널리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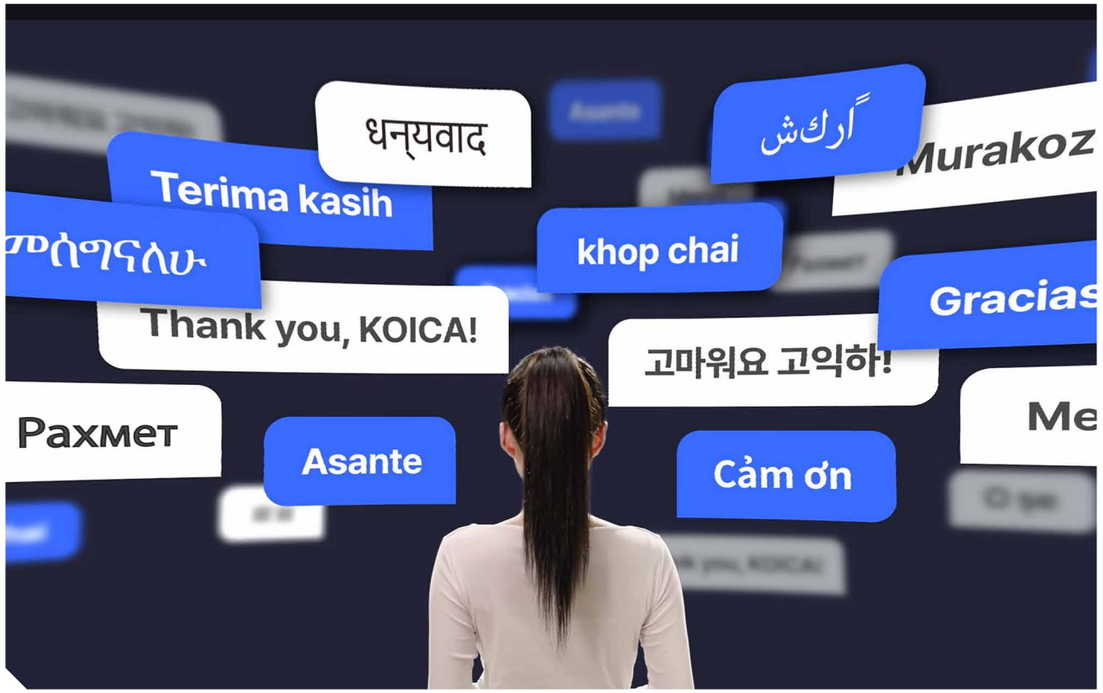
'고익하를 찾습니다'에 이은 코이카 2025 브랜드 캠페인 슬로건은 '고익하, 잇츠마이플레저(KOICA, It's my pleasure)'다. 2024년 세계 각국에서 전해온 "고마워요, 고익하(Thank you, KOICA)"에 대한 화답이자 국제개발협력 관점에서 대한민국이 여러 나라를 돕고 협력하는 것이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자 '나의 기쁨', '나의 자긍심'임을 나타낸 표현이다. 이에 각자의 위치에서 봉사와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5명의 고익하를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시리즈 영상으로 제작했다. 2025년 11월부터 12월 초까지 인스타그램·유튜브 등 코이카 공식 채널에 순차적으로 영상을 업로드하면서 '고익하, 잇츠마이플레저' 캠페인이 본격 전개됐다.

가장 나답게! 가장 우리답게!

'고익하, 잇츠마이플레저'는 버스, 지하철 등 오프라인 광고를 시작으로 코이카 공식 SNS 채널에 올린 티저 영상을 통해 캠페인 기대감을 높였다. 티저 영상은 공개 일주일 여 만에 조회 수 21만 회를 기록할 만큼 큰 관심을 받았다. 미스터리한 영상 속 인물 '고익하'가 '잇츠마이플레저'라고 말한 메시지의 의미를 맞히는 국민 참여형 퀴즈 이벤트가 호기심을 끌었다.

'고익하, 잇츠마이플레저' 캠페인 시리즈 본 영상에 등장할 고익하에 대한 궁금증이 커질 무렵, 고익하 5인의 인터뷰 영상이 공식 채널에 차례로 업로드되며 캠페인의 열기를 더했다.

약 50초 분량의 영상에는 방송인 겸 모델 정혁, 코이카 봉사단원 출신 사회탐구영역



• 전 세계로부터 감사 인사를 듣고 있는 미스터리한 인물 고익하가 그에 대한 화답으로 남긴 '잇츠마이플레저'의 의미가 무엇인지 퀴즈 이벤트를 진행해 브랜드 캠페인의 기대감을 높였다.







• 일흔 넘어 첫 해외 봉사에 도전한 코이카 시니어 봉사단원 심재화 씨는 최고령 봉사단원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하게 전직 기자다운 도전정신을 발휘, IT 분야 자격증을 취득한 후 미얀마, 우즈베키스탄에서 IT 교육을 담당했다.

강사 이도, 코이카 시니어 봉사단원 심재화, 사회적기업 대표 장미지, 코이카 글로벌 서포터스 출신 NGO 활동가 이승재 씨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 중인 5명의 고익하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모습이 담겼다. 그 어떤 시선이나 편견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신념에 따라 묵묵히 가고자 하는 길을 걸으며 행복과 도전, 나눔의 가치를 경험한 고익하들의 생생한 이야기가 울림을 전했다. '가장 나다운 자기개발'이 '가장 우리다운 개발협력'으로 이어져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영상 속 키 메시지도 인상적이었다.

영상으로 만나본 고익하 5인의 '잇츠마이플레저'

'고익하, 잇츠마이플레저' 시리즈 영상의 포문은 방송인 겸 모델 정혁이 열었다. 2024년 코이카 '일일 홍보수석'으로 활동하며 솔직담백한 모습으로 사랑받았던 정혁은 어린 시절 넉넉하지 못한 가정형편 때문에 주변의 도움을 받고 자랐다고 밝혔다. 영상을 통해 '나다움을 찾는 고익하'라고 자신을 정의한 정혁은 "이제는 내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행복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큰 보람"이라고 전했다. 팬카페 회원들과 꾸준히 봉사활동을 하며 도움이 필요한 곳에 따뜻한 손길을 내밀고 있는 그는 "봉사야말로 가장 나답게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넷플릭스 연애 프로그램 〈모태솔로지만 연애는 하고 싶어〉에 출연한 사회탐구영역 강사 이도 씨는 '어디서나 행복한 고익하'다. 그녀는 코이카 봉사단원으로 2018년과 2019년 방학 기간 세 차례 라오스 비엔티안에 다녀왔다. 낯선 언어와 예기치 못한 상황에 당황하기도 했지만 라오스 첫 방문 이후 라오어 공부를 시작할 만큼 남다른 열정을 보였다. 라오스 주민이 그녀의 행복







• 시리즈 영상 2편은 코이카 봉사단원으로 라오스에 교육 봉사를 다녀온 후 라오어를 배울 만큼 봉사에 진심인 이도 씨가 장식했다. 현재 사회탐구영역 강사로 활동 중인 그녀는 강단에서 자신이 보고 느낀 해외 봉사의 경험을 수강생들에게 전하고 있다.

을 염원하며 손목에 채워준 실팔찌의 따스함과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교육 봉사 속에서 보람을 느낀 그녀는 5개 국어로 세상과 소통하며 라오스와의 연을 이어갔다. 현재 사회탐구영역 강사로 강단에 선 이도 씨는 시리즈 영상을 통해 "내가 경험한 세상의 이야기를 학생들에게 전하며 그들의 시야를 넓혀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밝혔다.

코이카 시니어 봉사단원이자 전직 기자, 《밍글라바: 70세 청년의 새로운 도전》의 저자인 심재화 씨는 '도전을 즐기는 고익하'다. 71세였던 2014년 미얀마로, 81세였던 2024년에 우즈베키스탄으로 해외 봉사를 다녀온 그는 매 기수 봉사단원 중 최고령이었다. 첫 해외 봉사지였던 미얀마에서 IT 교육을 하기 위해 엑셀, 파워포인트, 포토샵 자격증 시험에 도전했고, 당당히 합격해 미얀마 만달레이 컴퓨터대학교에서 IT와 한국어를 함께 가르쳤다. 우즈베키스탄에서도 IT 분야 교육을 맡았다. '젊은 사람들의 속도를 맞출 수 있을까? 해외 험지에서 생활할 수 있을까?' 하는 주변 걱정이 무색하게 오랜 기자 생활로 다져진 도전정신을 마음껏 발휘했다. 은퇴 후에도 배움의 끈을 놓지 않은 심재화 씨는 자신이 다진 지식을 통해 다양한 세대, 다채로운 세상과 연대하는 것이 삶의 큰 기쁨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글로벌·로컬 요리 교육 기획 전문 브랜드이자 사회적기업 '어밀리티(Ameality)' 대표로 '문제를 해결하는 고익하' 장미지 씨와, 코이카 글로벌 서포터스 위코(WeKO) 5기로 활약 후 현재 국제비영리단체인 (사)굿네이버스 인터내셔날에서 활동가로 일하는 '꿈을 발굴하는 고익하' 이승재 씨가 가장 나답게 세상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이야기가 캠페인 시리즈 영상을 통해 전파됐다.

5인의 고익하 영상과 함께 셀카 영상, 셀프캠 등을 통해 자신이 고익하임을 인증한 일반인 참여자들의 영상이 어우러져 최종 영상이 완성됐다. 코이카는 국민(고익하)과





• 사회적기업 어밀리티 대표인 장미지 씨(위)와 코이카 글로벌 서포터스 위코 5기로 활동한 후 NGO 활동가로 일하고 있는 이승재 씨의 브랜드 캠페인 시리즈 영상까지 코이카는 2025 브랜드 캠페인 '고익하, 잇츠마이플레저'를 통해 가장 나다운 방식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야말로 '나와 우리 모두의 큰 기쁨'임을 알렸다.

함께 만든 '고익하, 잇츠마이플레저' 최종 영상을 통해 '가장 나다운 방식으로 세상을 바꾸는 기쁨을 맛보자'는 메시지를 확산하는 한편, 이 땅의 모든 고익하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더 큰 자부심과 자긍심, 기쁨을 느끼길 기대하고 있다.

2년차를 맞은 코이카 브랜딩 캠페인 '고익하, 잇츠마이플레저'는 2025년 12월 5일 최종 영상 공개로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지만 코이카는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더 많은 '고익하'들을 찾아 이들의 사연을 들려주는 작업을 계속해서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브랜딩 구축에는 꾸준함이 생명인 만큼 코이카가 앞으로 '고익하' 캠페인을 또 어떻게 진화, 발전시켜 나갈지도 기대된다. 그 힌트를 지난 캠페인 최종 영상의 쿠키에 등장한 모델 정혁의 말에서 엿볼 수 있다. "함께 할래요? Shall we?"

코이카 2025 브랜딩 캠페인 '고익하, 잇츠마이플레저' 고익하 5인의 영상이 궁금하다면?



• 2025년 12월 5일 경기도 성남시 롯데시네마에서 코이카 글로벌 서포터스 위코(WeKO) 7기 성과공유회 '위코랑 함께 고익하씨네'가 열렸다. 참석자들이 객석에 앉아 단체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고익하 브랜드 필름 시사회 & 코이카 글로벌 서포터스 위코 7기 성과공유회

고익하와 위코 7기가 만났다! '위코랑 함께 고익하씨네'

2025년 12월 5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롯데시네마 1관에서 '위코랑 함께 고익하씨네'라는 이름으로 아주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2025년 8월 발대식 후 5개월간 활동을 전개한 코이카 글로벌 서포터스 '위코(WeKO)' 7기의 성과공유회와 '가장 나다운 자기개발, 가장 우리다운 개발협력'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진행한 2025 코이카 브랜드 캠페인 '고익하, 잇츠마이플레저' 최종 결과물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고익하'는 2024년부터 코이카가 진행한 브랜드 캠페인의 가상 인물로 '우리 국민 모두'를 지칭한다. 코이카의 개발협력 사업을 홍보하고, 협력국 현장을 취재해 창의적인 콘텐츠를 만들어낸 위코 7기 역시 고익하라는 점에서 세계관이 하나로 연결된다. 위코 7기와 브랜드 캠페인 영상 속 주인공 '고익하'들의 만남, '위코랑 함께 고익하씨네'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보자.

위코 7기, 나답게 세상을 바꾸는 고익하!

관교 롯데시네마 로비가 4인의 고익하, 위코 7기와 지인들, 코이카 임직원들로 붐볐다. '위코랑 함께 고익하씨네' 행사 참석자들은 진짜 영화를 보러 온 듯 팝콘과 음료를 들고 극장 안으로 들어갔다. 극장 로비에는 ODA 보드 게임, 피코 포토카드, 역조공 이벤트 상품 등 위코 7기의 홍보 콘텐츠



• 2025년 8월 발대식과 함께 5개월간 코이카 개발협력 사업 홍보 프로젝트를 실행한 위코 7기들이 코이카 소통 캐릭터 '피코(PeKO)' 응원봉을 흔들며 행사를 즐기고 있다.

성과물도 전시돼 있었다. 행사는 크게 고익하 브랜드 필름 시사회, 위코 7기 성과공유회로 나눠 진행됐고 42개국에 분포한 글로벌 위코들도 온라인으로 행사에 참여해 의

미를 더했다.

1부 브랜드 필름 시사회는 2025 코이카 브랜드 캠페인 '고익하, 잇츠마이플레저' 필름 속에 등장하는 사회탐구영역 스타 강사 이도 씨가 무대에 올라 '나다움(Be myself)'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강연 후에는 '브랜드 필름 GV(Guest Visit) 토크쇼'가 이어졌다. 위코 5기 활동 후 NGO 단체 활동가로 일하는 이승재 씨, 코이카 시니어 봉사단으로 활동하며 도전정신을 보여준 심재화 씨, 온두라스에서 활동 경험을 사회적기업 창업으로 연결한 장미지 씨, 강연을 마친 이도 씨가 나와 자기개발이 개발협력으로 이어졌던 생생한 경험담을 위코 7기와 나눴다.

해외 봉사를 가능하게 한 원동력이 '꿈'이라고 말한 심재화 씨는 한국어강사로 해외 봉사에 도전하고 싶다는 새로운 꿈을 전하며 "마음껏 꿈꾸고, 마음껏 도전할 것"을 당부했다. 이승재 씨는 "일상에서 ODA(공적개발원조)와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이 지구 반대편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첫 번째 손길이라고 생각한다"며 NGO 활동가다운 말을 남겼다.

이 자리에서 최초로 공개한 약 1분 30초 분량의 '고익하, 잇츠마이플레저' 최종 영상에는 고익하 5인의 이야기와 위코 7기 인터뷰, '나도 고익하' 이벤트에 참여한 국민 1,165명의 댓글이 담겼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자기개발과 개발협력을 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세상을 바꾸는 고익하라는 영상 마지막 문구가 울림을 남겼다.



• 코이카 2025 브랜드 캠페인 주인공 중 한 명이었던 사회탐구영역 스타 강사 이도 씨가 '나다움(Be myself)'을 주제로 강연하는 모습. 이도 씨는 "코이카 봉사단 활동을 통해 어떠한 상황에 있든 행복한 사람이 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라고 전했다.



• '고익하, 잇츠마이플레저' 필름 속 주인공들과 함께한 '브랜드 필름 GV 토크쇼' 시간. (왼쪽부터) 스타 강사 이도 씨, NGO 단체 활동가 이승재 씨, 사회적기업 대표 장미지 씨, 코이카 시니어 봉사단 심재화 씨가 나와 자기개발이 개발협력으로 이어졌던 살아 있는 경험담을 전했다.

기획서를 넘어 현실로, 아이디어를 넘어 실행으로!

행사 2부는 자신의 강점과 취향, 경험에서 출발해 개발협력을 각자의 언어로 잘 해석하고 표현한 위코 7기의 성과물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나다움이 자기개발로 이어지고, 나의 성장이 우리다운 개발협력으로 확장되는 여정을 훌륭히 수행한 위코 7기들은 자신들이 만든 홍보 콘텐츠가 화면에 등장할 때마다 뜨겁게 환호했다. 매달 주어지는 홍보 미션을 수행하는 가운데 팀미션까지 완수하며 그 누구보다 뜨겁게 5개월의 여정을 보낸 위코 7기들은 창의적 아이디어를 내는 것을 넘어 프로젝트를 직접 실행하며 완성도 높은 결과물까지 만들어냈다. 그 결과 총 콘텐츠 제작 및 업로드 수 2,767건, 총 콘텐츠 노출 수 5,239만 회, 총 콘텐츠 반응 수 2,107만 회 등을 기록해 코이카와 개발협력에 대한 대국민 관심을 이끌어내는 데 일조했다.

총 11개 팀이 참가한 국내 서포터스 대상 팀미션에서는 '마법진 활용, 당신이 만드는 마법 같은 개발협력'을 주제로 온라인 캠페인을 제작한 '옥남정' 팀이 대상을 수상했다. 몽골에서 온 제보자를 따라 '마법진'을 찾는 여정 속에서 코이카와 ODA의 가치를 발견한다는 특색 있는 콘셉트와 완성도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우수상은 '코이카 몰입 오디오 체험 프로젝트'를 주제로 가나 현지 여성과 청소년의 하루를 따라가며 그들의 일상을 오디오 다큐멘터리로 제작한 '아코(AKO)' 팀이 차지했다. 팀미션 시상뿐만 아니라 국내·글로벌 서포터스를 구분한 개인 시상도 있었다. 글로벌 서포터스 개인 부문 대상은 파라과이의 루아나 프리실라 하트만 다 실바 씨가, 국내에서는 전바다 씨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참석자들은 우리 모두의 고민이 만들어낸 일상



• 위코 7기 성과공유회에 참석한 글로벌 서포터스들이 코이카 2025 브랜드 캠페인 보드에 '나는 사람을 돕는 고익하' 등 스스로를 정의한 다양한 문구를 적어 보여주고 있다.

속 변화에 감사하며 세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개발협력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충분히 공감했다. 위코 7기 박현진 씨는 "현장 경험이 중요한 개발협력 분야에서 코이카 ODA를 통해 삶의 긍정적 변화를 겪고 있는 현지 수혜자들을 만날 수 있어 너무나 뜻깊었다"며 "활자로만 보았던 곳을 직접 방문하고 그곳 사람들을 만나며 살아 있는 현장 속에 함께할 수 있어 감사했다"고 위코 7기 활동 소감을 전했다.

행사 마지막으로는 김동호 코이카 경영전략본부 이사의 격려사가 이어졌다. 김동호 이사는 "여러분이 만든 오늘의 성과는 단순한 5개월의 기록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과 연결되어 완성한 아주 값진 결과"라며 "여러분이 가진 시선과 경험, 창의력과 열정이 개발협력의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힘이 될 것"이라고 응원의 말을 전했다. 코이카는 앞으로도 전 세계 청년들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해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협력을 알리는 한편, 브랜드 캠페인을 통해 개발협력 참여와 확산 문화를 전개할 계획이다.



• "5개월의 여정이 순식간에 흘러간 것 같다"며 아쉬움을 토로한 위코 7기들은 앞으로도 코이카와 코이카의 개발협력 사업을 뜨겁게 응원할 것을 다짐했다.



• 색색의 피코 응원봉을 든 위코 7기들은 '나 자신'의 컬러를 잃지 않으면서도 세상을 더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Mini Interview

위코 7기 팀미션 대상 수상 '옥남정' 팀_김옥비·김남희·이정빈 씨

"캠페인으로 표현한 마법 같은 개발협력 사업"



• 국내 서포터스 팀미션 부문에서 수상한 옥남정, 아코(AKO), 위시월드 팀이 김동호 코이카 경영전략본부 이사(왼쪽에서 여섯 번째)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Q 옥남정은 어떤 팀인가요?

마케팅에 관심 많은 김옥비와 김남희, 개발협력 관련 커리어를 희망하는 이정빈, 이렇게 세 사람이 모여 발로 뛰고 부딪히며 다양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팀입니다. 눈치채셨겠지만 각자 이름에서 한 글자씩을 가져와 팀명을 정했어요. 저희는 위코 7기 활동 전부터 사회적기업 창업 동아리에서 함께 일하며 호흡을 맞춰왔습니다.

Q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했나요?

'마법진 활용, 당신이 만드는 마법 같은 개발협력'을 주제로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했어요. 수혜국에 마법 같은 변화를 만들어내는 코이카의 개발협력 이야기를 '대학원생'이라는 콘셉트를 가져와 릴스, 페이크다큐 형식으로 풀어냈어요. 코이카가 하는 일들이 '누군가의 인생에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또래들에게 재미있게 알리고 싶어 수많은 밈과 콘텐츠로 소비되고 있는 '대학원생'이라는 표현법을 사용했어요. 또 관심이 지속되도록 마케팅 퍼널(Funnel) 이론(고객이 브랜드를 인식하고 구매·재구매로 이어지는 여정을 단계별로 분석·설계하는 프레임워크)을 바탕으로 캠페인을 진행했어요.

Q 팀미션 대상 수상 소감을 말씀해주세요.

전혀 예상하지 못해서 얼떨떨하면서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캠페인 진행 과정에서 많은 아이디어의 변경이 있었고, 시행착오도 많았거든요. 옥남정이 흔들릴 때마다 굳건히 잡아준 코이카 홍보관님과 주변 분들의 도움 덕에 대상을 수상한 것 같아요.

Q 위코 7기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캠페인 실행을 위해 몽골에 간 것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특히 각 사업지에서 만난 수혜자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으며 캠페인 안에 "코이카의 사업은 마법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에 확신이 들었어요. 또 개발협력이 해외 수혜자뿐 아니라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도우며 우리나라의 미래 경쟁력과도 연결되는 일이라는 것을 깊이 체감한 시간이었습니다. K

KOICA NEWS 모아보기

2025년 7월



WHO와 함께 우간다 보건소 28곳 새단장

코이카가 2025년 7월 4일(현지 시각) 우간다 동부 부소가 지역 이강가 지구에서 보건소 28곳 개보수 완료 준공식을 열었다. 이는 2020년부터 세계보건기구(WHO), 우간다 보건부와 함께 추진해 온 '우간다 동부 부소가 지역 성·생식·모자·청소년 보건 서비스 개선을 위한 보건 시스템 강화 사업'의 마지막 일정이다.

코이카와 WHO는 지역 내 28개 보건소를 개보수했다. 또한 의료 기자재를 공급하고 백신, 의약품 등의 품질 유지를 위한 저온 유통 체계(콜드체인)를 구축했으며, 관정 및 빗물 저장 시스템으로 깨끗한 물을 확보해 진료 환경을 개선했다. 앰뷸런스를 배치하고 운영위원회를 꾸려 응급 이송 체계도 마련했다. 보건 인력 160여 명에게 산모·신생아 진료, 응급처치 등 실무 교육을 실시하고, 청소년 2,400여 명과 교사 680여 명에게는 성·생식·보건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2025년 코이카 공공데이터·AI 활용 챌린지' 시상식 개최

코이카가 2025년 7월 3일 경기도 성남시 코이카 개발협력역사관에서 '2025년 코이카 공공데이터·AI 활용 챌린지'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챌린지는 참가자들이 코이카 공공데이터와 AI를 활용해 자유롭게 디지털 서비스를 개발하고, 데이터 기반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상은 거대언어모델(LLM) 기반으로 ODA(공적개발원조) 사업 기획 과정을 단계별로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맞춤형 플랫폼 아이디어 'ODA Quest'를 발표한 그린기린 팀이 수상했다.

우수상은 코이카 해외봉사 경험 데이터를 활용해 글로벌 역량 분석과 커리어까지 연계하는 플랫폼 아이디어 'GROW'를 낸 팀 오셜과 코이카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IBS),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CTS) 등의 파트너 협업 사업에 지원하고자 하는 민간 기업들에 맞춤형 제안서 작성을 지원하는 'GenAI 챗봇' 아이디어를 낸 AI4D 팀이 수상했다.



우즈베키스탄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험 첫 합격자 배출

2025년 6월 26일 한국 정부 지원으로 우즈베키스탄에서 최초로 도입된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험에서 첫 합격자가 탄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매년 약 50만 명의 청년이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있다. 이에 코이카는 우즈베키스탄 고용빈곤퇴치부와 협력해 국가기술자격 검정제도를 구축했다. 2025년 5월 첫 시험에서 자동차 정비·용접·전기 분야에 200여 명이 응시, 30명이 합격했다. 이날 샤흐리삽스 직업훈련원 졸업생 딜무라도브 라지즈벡이 1호 자격증을 받고 전기 기술자의 꿈에 한발 다가섰다. 이번 사업은 코이카가 2020~2026년 추진 중인 '우즈베키스탄 우르겐치 직업훈련원 건립 및 직업훈련제도 공고화 지원 사업'의 일환이다. 코이카는 우즈베키스탄에 다섯 번째 직업훈련원을 세우고 있으며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등 현지 정부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또한 타슈켄트에는 교사연수센터를 설립해 직업훈련 교사·강사의 전문성과 교수 역량을 체계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물난리 이제 그만" 인도네시아 홍수 예경보 시스템 지원

코이카가 2025년 6월 25일 인도네시아 반둥 찌따룸강유역관리청에서 '찌따룸강 유역 홍수 예경보 시스템 구축 2차 사업' 종료 기념식을 열고 12년에 걸친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찌따룸강은 자카르타 생활용수 80%를 공급하고 수도권 2,500만 명이 의존하는 중요한 강이지만 지형과 도시화, 산림훼손 등으로 상습 홍수가 발생해 왔다. 이에 코이카는 2014년부터 인도네시아 정부가 홍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으며, 1차로 상류 유역에 실시간 홍수 예경보 시스템을 구축한 데 이어, 2차 사업에서 하류까지 포함한 유역 전체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자동우량계, 수위계 등 85개 관측·경보 장비를 설치하고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실시간 수문 정보의 수집, 분석, 시각화를 가능케 했다. 또한 현지 공무원과 기술자를 대상으로 시스템 운영에 관한 연수와 훈련을 실시했으며, 주민 대상으로 대피훈련도 진행했다.



콜롬비아에서 '개발협력 파트너 데이' 개최

코이카 콜롬비아사무소는 2025년 7월 4일 수도 보고타에서 '2025 코이카 개발협력 파트너 데이: 협력의 초상'을 개최해 국제기구 및 정부 기관과의 협력 성과를 공유하고 관계를 강화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제이주기구(IOM),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유엔여성기구(UNWOMEN), 유엔개발계획(UNDP) 등의 국제기구와 정부 부처 및 산하기관 등 30여 개 기관이 참석했다. 이날 코이카가 UNWOMEN, 유엔인구기금(UNFPA)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콜롬비아 여성 역량 강화 및 성평등 증진 사업'이 성과 사례로 소개됐다. 또 콜롬비아의 푸투마요주에서 코이카와 UNODC가 코카잎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상품성이 높은 웰빙 곡물인 사차인치로 대체시키고 수익 극대화를 위한 유통구조를 개선한 사례도 소개됐다. 코이카는 이번 파트너 데이를 계기로 국제기구 및 공공 부문과 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협력 모델을 발굴해 콜롬비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2025년 8월



코이카 본부 내 장애인 편의점 오픈

경기도 성남시 소재 코이카 본부에 특별한 편의점이 생겼다. 코이카는 2025년 7월 25일 장애인 편의점 4호점인 'CU한국국제협력단점'의 문을 열었다. 장애인 편의점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장애인개발원과 BGF리테일이 3자 협약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매장에는 다양한 장애 유형을 가진 근로자가 총 5명 근무한다. 특히 모두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무장애 설계(Barrier-free Design)를 적용했다. 휠체어나 유아차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통로를 넓히고, 진열대는 1,200mm 이하로 설치했으며, 손이 닿지 않는 곳에는 도움벨을 비치해 편의를 더했다.



KDRT, 2025년 아세안 재난대응훈련 참가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 국제구조팀이 2025년 7월 22~24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아세안 재난대응훈련 2025(ARDEX-25)'에 참가했다. 이 훈련은 아세안 재난관리·인도지원 조정센터(AHA Centre)가 주관하고 아세안 회원국이 2년마다 돌아가며 주최하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국제 재난대응 모의훈련이다. 이 훈련에 KDRT가 초청받아 참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훈련에 참가한 아세안 회원국 및 파트너 국가들의 탐색구조팀, 의료진 등 현장 활동 인력 200여 명은 캄보디아에 홍수, 태풍, 건물 붕괴 등의 대형 재난이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현지에 파견돼 대응하는 모의 훈련을 진행했다. KDRT는 이번 훈련으로 대한민국의 선진 재난대응 역량과 현장 지휘 시스템을 아세안 국가와 공유하고 국제 공조의 실효성을 검증했다.



'5기 코이카 시민참여혁신단' 착수보고회 가져

코이카가 2025년 7월 11일 본부에서 '제5기 시민참여혁신단' 착수 보고회를 열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시민참여혁신단은 기관 혁신과 경영에 있어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고 반영하고자 운영하는 코이카의 대표 시민참여 프로그램이다. 2020년부터 운영돼 5기를 맞았다. ESG(환경·사회·거버넌스) 관점을 새로 도입해 각 분야별 10명씩 총 30명을 선발했다. 환경 분야는 기후변화 대응, 사회 분야는 교육·보건·성평등, 거버넌스 분야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주제로 제안 활동을 펼친다. 혁신단은 2026년까지 약 18개월간 활동하며 코이카의 전략·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한다. 또 코이카의 ESG 현장에도 직접 참여할 예정이다. 코이카는 이번 활동을 통해 ESG 세 축을 중심으로 더욱 효과적이고 책임감 있는 국제개발협력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코이카 국민참여 서포터스 위코 7기 출범

코이카로 하나가 된 청년들이 '가장 나다운 자기개발, 가장 우리다운 개발협력'을 실현할 반짝이는 아이디어 티켓을 갖고 여행에 나섰다. 2025년 8월 8일 경기도 성남 본부에서는 42개국 100명(국내 서포터스 40명, 글로벌 서포터스 60명)이 참여한 글로벌 서포터스 '위코(WeKO)' 7기 발대식이 열렸다. 이번 발대식은 '나다움을 찾기 위한 여행의 시작'을 주제로, 가상의 '플라이 위코(Fly WeKO)' 항공사 'K01 CA'편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떠나는 콘셉트로 진행됐다.

위코 7기는 12월까지 약 5개월간 온·오프라인에서 활동했다. 이번 기수는 개별 ODA 홍보 아이디어를 기획·실행하는 '성장형 서포터스'로 운영되었으며, 국내 서포터스는 홍보·마케팅 프로젝트를, 글로벌 서포터스는 해외 현장 취재를 맡았다. 위코 7기의 활동 소식은 위코 공식 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 틱톡 등에서 볼 수 있다.



'세계 인도주의의 날' 기념 팝업 행사 진행

코이카가 '세계 인도주의의 날'을 맞아 2025년 7월 19~26일 서울 여의도 IFC몰에서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외 국내 소재 14개 인도적 지원 비영리단체 및 국제기구들과 세계 인도주의의 날 캠페인 기념 팝업 행사를 성황리에 열었다. 행사는 '아주 보통의 하루: 일상을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인도적 위기 상황에 있는 전 세계 이웃들의 일상과 그들의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헌신하는 인도주의 활동가들의 노력을 조명하는 다양한 체험 공간으로 꾸며졌다. 인도적 지원 활동가 유형 테스트, 인도적 위기 현장 사진 및 활동가 영상 전시, 인도주의 네컷 포토부스 등 행사 주요 프로그램이 마련되었으며, 스탬프 투어 미션을 완성한 참가자에게는 캐릭터 굿즈 기념품을 증정했다. 현장 방문 SNS 인증 등 다양한 이벤트도 함께 운영해 인기를 끌었다.

2025년 9월



‘피코’ 2025 대한민국 지자체 공공캐릭터 페스티벌 입상

코이카의 기관 소통 캐릭터 피코(PeKO)가 ‘2025 대한민국 지자체 공공캐릭터 페스티벌’ 대상 공모전 본선에 진출해 ‘이벤트 혁신상’을 수상했다. 이번 공모전에서 피코는 전국 지자체, 공공기관 등 33개 캐릭터 중 대국민 투표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총 12개의 수상 대상 중 하나로 선정됐다. 2022년 SNS에서 카드뉴스와 인스타툰으로 데뷔한 피코는 이모티콘을 만들어 네이버 OGQ 마켓 스티커로 배포해 누적 2만 5,000건 다운로드를 기록하기도 했다. 2024년에는 ‘피코 평화의 숲’ 행사로 ‘팝업스토어 어워즈’에서 우수상을 받으며 팬덤 기반 캐릭터로 자리매김했다. 코이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에서는 매월 발행되는 피코의 모바일 배경화면, 밈 등 재기발랄한 모습을 만날 수 있다.



성남시 공공기관, AI 시대에 데이터로 하나되다

코이카가 주최·주관하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학중앙연구원이 공동 주관한 ‘2025년 성남시 공공기관 공공데이터 공동 설명회’가 9월 2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역 코사이어티 타운홀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성남시 지역 최초의 공공데이터 합동 행사로, 5개 공공기관 각자의 특화된 데이터를 소개하고 공공데이터 민간 활용 방안을 제시하는 취지로 진행됐다.

코이카는 개발협력 분야 데이터 활용 현황과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수상사례를 소개했으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사회적기업 포털’을, 한국석유관리원은 38종 데이터와 협업 사례를 발표했다. 외부 전문가 발표와 컨설팅 시간도 마련됐다. 제4회 고용노동부 공공데이터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신지현 씨의 MSDS 자동인식 서비스, 한국산업지능화협회 서진숙 센터장의 산업 데이터 민간 활용, 카카오 정형욱 수석의 Kanana 서비스 사례가 소개됐다. 성남시 공공기관 협의회 9개 기관은 데이터 협력체계 구축과 통합 공공데이터 개방을 추진하기로 했다.



DR콩고에서 40만㎡ 면적 폭발물 제거

코이카 DR콩고사무소는 2025년 8월 27일 유엔 평화유지국 산하 유엔지뢰행동조직(UNMAS)과 함께 추진한 ‘분쟁 피해 난민·국내 피난민 및 공동체를 위한 지속 가능한 지뢰 제거 사업(2022~2025)’ 종료보고회를 열었다. DR콩고는 풍부한 자원에도 불구하고 내전과 반군 활동으로 매설된 폭발물이 개발의 걸림돌이 돼 왔다.

코이카는 2018~2020년 1차 사업으로 약 19만㎡에서 폭발물을 제거한 후, 2022년부터 2차 사업을 추진해 폭발물 처리와 더불어 인력 양성, 폭발물 교육, 주민 인식 제고, 국가지뢰제거전담센터 전략회의 등을 진행했다. 약 40만㎡ 규모 지역에서 폭발물 450여 개, 소형 무기 탄약 9,248발, 대인지뢰 36개를 제거했고, 주민 21만 3,000여 명에게 폭발물 위험 교육도 실시했다. 덕분에 마을이 되살아나고 농업과 생계 활동이 재개되었으며, 주민들은 귀환의 희망을 되찾았다.



한-몽 수교 35주년… 장원삼 이사장 몽골 방문

장원삼 코이카 이사장이 한-몽 수교 35주년과 코이카 몽골사무소 설립 30주년을 맞아 2025년 8월 24~26일 울란바토르를 방문해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사업 현장을 점검했다. 장 이사장은 8월 25일 검버자브 잔당샤타르 몽골 총리를 만났다. 장 이사장은 한국 정부가 몽골의 ‘VISION 2050’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맞춰 ▲거버넌스 ▲도시개발 ▲교통 ▲농목축업을 지원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특히 몽골의 ‘10억 그루 나무 심기 캠페인’과 2026년 UNCCD COP17 유치 추진을 지지하며 기후변화 관련 사업 조사를 했다. 장 이사장은 볼드 자브흘란 재무부 장관과 ‘몽골 관세청 위험관리 및 수하물 관리 선진화 사업(2025~2028)’ 협의의사록을 체결했으며, 코이카는 이번 순방을 계기로 몽골의 개발 전략에 맞춘 ODA 수요를 파악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및 디지털·녹색 경제 협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방글라데시에 ‘첨단 교통관리센터’ 개소

대한민국의 지능형교통체계(ITS)가 방글라데시 교통안전 혁신에 새 전환점을 열었다. 코이카는 2025년 8월 20일 다카에 위치한 도로청(RHD)에서 방글라데시 최초의 교통관리센터(TMC) 개소식을 열었다. 코이카는 방글라데시 교통난을 해소하고자 한국도로공사·한국교통연구원·㈜수성엔지니어링 등과 함께 현지 교통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해 N8 고속도로 일부 구간에 ITS 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운영할 교통관리센터를 마련했다. 교통관리센터는 실시간 모니터링과 데이터 분석을 통해 혼잡 완화, 사고 예방, 신속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거점이다. 코이카는 현지 공무원과 기술자들에게 장비 활용과 유지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1년간 시범 운영했다. 코이카는 방글라데시와 교통 행정정보 전산화, 도시교통 마스터플랜, 도시철도 건설 등에서도 협력을 이어왔으며, 교량 안전관리 분야로 협력을 확대했다.

2025년 10월



제5차 믹타 개발협력기관 협의회 고위급 회의 개최

코이카가 주관한 ‘제5차 믹타(MIKTA) 개발협력기관 협의회 고위급 회의’가 2025년 10월 1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 서울에서 개최됐다. ‘복합위기 시대 믹타의 역할 강화: 공동협력 사업 모델 발굴’을 주제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멕시코·인도네시아·튀르키예·호주 등 중견 5개국이 참석해 다자협력 강화와 공동협력 사업 모델을 논의했다. 참가국들은 각국의 강점을 결합한 ‘삼각협력’이 믹타의 차별화된 협력 모델이 될 수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코이카가 진행 중인 ‘케냐 카지아도주 모성 및 신생아 보건 개선 사업’에 튀르키예 개발협력청(TIKA)이 태양광 설비를 추가로 지원한 사례가 우수 성과로 소개됐다.



동아프리카 권역 최초 6개국 기술교류회 열어

코이카가 2025년 10월 1~2일 우간다 수도 캄팔라에 있는 은틴다 직업훈련원에서 ‘동아프리카 기술교류회’를 개최했다. 이번 교류회는 코이카가 직업기술훈련 사업을 펼치고 있는 6개국(우간다, 에티오피아, 모잠비크, 케냐, 르완다, 탄자니아) 기술 인재들이 지식과 경험을 나누고, 지역 간 교육 협력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코이카가 국가별 지원을 넘어 동아프리카 권역으로 리더십을 확대해 개최한 최초의 기술 교류 행사다.

메인 프로그램인 학생 기능경기대회에서는 6개국 대표팀이 전기·용접·배관 기술을 활용해 친환경 소형 ‘에코하우스’를 제작했으며, 우간다 팀이 완성도와 협업 면에서 최고점을 획득해 최우수상을 받았다.

또 코이카는 직업훈련 프로그램 경험 공유 및 개선 논의 세미나도 열었다. 6개국 코이카 사무소와 산업계 전문가, 타 공여국 관계자 100여 명이 모여 사례를 공유하고 협력 가능성도 모색했다.



탄자니아서 ‘기후행동을 위한 인공지능(AI) 포럼 2025’ 공동 개최

코이카는 2025년 10월 8~9일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 탄자니아 정부와 함께 ‘기후행동을 위한 인공지능(AI) 포럼 2025(AI for Climate Action Forum 2025)’를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아프리카에서 처음으로 열린 AI 주제 국제행사로, 최빈개도국(LDCs)과 군소도서국(SIDS)의 기후변화 대응에 AI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은 총 7개 세션으로 구성됐으며, 세션1에서는 코이카의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CTS)을 지원받은 한국 스타트업 ‘WI.Plat’ 차상훈 대표가 AI 누수 감지 시스템 ‘NELLO’를 소개해 주목받았다. 포럼 후반부에는 AI 기술 국제 공모전 ‘기후행동을 위한 인공지능(AI) 어워드 2025(AI for Climate Action Award 2025)’ 시상식도 열렸다. 전 세계에서 총 634개 설루션이 접수됐으며, 우리나라 유역통합관리연구원(IWMI) 팀의 ‘SAFIR(Smart AI-based Farming & Irrigation for Resilience)’ 설루션이 우승을 차지했다. SAFIR은 실시간 기상·토양 데이터를 분석해 농민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AI 기반 농업 설루션이다. 코이카는 포럼 기간에 홍보 부스를 운영해 한국의 AI 기반 ODA(공적개발원조) 사업을 소개하고 설문조사도 실시했다. 응답자의 93.4%가 한국의 AI 기술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가장 높은 수요 분야로는 ‘농업기술’과 ‘물관리’를 꼽았다.



제5회 조달의 날 기념식에서 ‘혁신조달’로 국무총리상 수상

코이카가 2025년 9월 29일 서울무역전시장(SETEC)에서 열린 제5회 조달의 날 기념식에서 ‘혁신제품 공공조달 유공’ 부문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2010년부터 국내 혁신기술을 발굴해 개발도상국의 사회·경제적 문제 해결에 활용하고,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진출도 적극 지원한 공로다.

2022년엔 ‘동반성장추진단’을 출범해 혁신기업 발굴 및 인큐베이팅, ODA와 연계한 해외 실증, 유관기관 협력 등 종합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최근 5년간 48개국에 15개 혁신 제품을 보급해 약 800만 달러 수출 성과를 올렸으며 2025년에도 몽골, 알제리 등 8개국 ODA 사업 현장에서 국내 중소기업 우수 혁신 제품의 해외 실증을 진행하고 있다.

코이카는 또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등 국내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혁신 제품 실증 사업을 추진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등 국내외를 아우르는 상생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2025년 11월



2025 브랜드 캠페인: '고익하, 잇츠마이플레저' 시작

코이카가 2024년에 이어 두 번째 기관 브랜드 캠페인 '고익하, 잇츠마이플레저(KOICA, It's my pleasure)'를 시작했다. 2024년 '고마워요 고익하'가 국제개발협력의 주체가 우리 국민임을 알리는 메시지였다면, 이에 화답하며 2025년에는 개발협력이 국민 스스로의 기쁨과 자긍심이라는 의미로 확장했다. 캠페인은 온·오프라인 광고와 함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5명의 '고익하' 인물을 조명하는 시리즈 영상, 국민 참여형 이벤트 등으로 12월까지 진행한다.

코이카가 공식 SNS를 통해 공개한 첫 티저 영상은 일주일여 만에 조회 수 21만 회 이상을 기록하며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이어 모델 정혁과 봉사단원 출신 강사 이도 씨, 80대 시니어 봉사단원, 사회적 기업가, 코이카 서포터스 출신 NGO 활동가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약 중인 5명의 대표 '고익하'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모습을 영상으로 공개했다.



개발협력으로 여는 모두를 위한 AI '2025 기후 AI 포럼' 열어

기후변화와 기술혁신이 국제사회 핵심 의제로 떠오른 가운데, 코이카는 2025년 11월 24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2025 코이카 기후 AI 포럼'을 열었다. 행사에는 장원삼 코이카 이사장과 글로벌녹색성장기구, 유엔환경계획, 기후기술센터 네트워크 등에 관계된 국내외 전문가 200여 명이 참석해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과 개발협력에서의 AI 활용 방향이 논의됐다.

1부에서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과 함께 추진 중인 '기후 미래 파트너십(AI4ClimateAction)' 1차연도 성과를 소개했다. 또한 개발도상국 대상 AI 기후기술 국제 공모전인 'AICA 어워즈'의 심사위원과 우승팀(한국 유역통합관리연구원)이 나와 공모전 경험을 공유했다. 2부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AI 기술의 미래'와 '대한민국 AI 3대 강국 진입을 위한 모두의 AI(K-AI for All)'를 주제로 각 분야 전문가들의 주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한국의 아시아태평양 AI 수도 도약에 개발도상국의 AI 기반 구축, 인적 역량 강화 등 ODA(공적개발원조)가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과 아이디어가 나와 이목을 끌었다.



코이카 'AI 위원회' 공식 출범… '통합 AI 전략' 수립

코이카가 우리 정부의 '인공지능(AI) 대전환' 전략에 발맞춰 조직 내 AI 추진 기구를 설립하고, 임직원 AI 활용 역량 강화 노력에 박차를 가하는 등 기관 차원의 AI 전환(AX, AI Transformation) 고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코이카는 2025년 10월 29일, 경기도 성남시 코이카 본부에서 기관 AI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AI 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첫 회의에서 '코이카 중장기 인공지능(AI) 전략'을 심의했다.

코이카 중장기 AI 전략은 '모두의 AI' 전략을 K-ODA(한국형 공적개발원조)에 폭넓게 적용하는 전략을 담고 있다. 코이카는 ▲상생의 인공지능전환 기반 구축 ▲한국형 AI 글로벌 기여 ▲개도국 인공지능 역량강화 ▲선도적 AX 업무효율화를 4대 핵심가치로 설정해 기관 내 AI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최고 AI 책임관(CAIO)을 통해 전략을 이행할 계획이다.

코이카는 실무 중심의 AI 역량 강화와 참여형 혁신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으며, 실제 업무 개선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AI 아이디어톤 경진대회를 여는 한편, AI 전환의 자발적 참여 문화 확산을 위해 AX 퍼실리테이터 제도도 도입했다.



'K-볼룬티어 임팩트 주간(K-Volunteer Impact Weeks)' 개최

코이카는 2025년 12월까지 해외봉사를 주제로 'K-볼룬티어 임팩트 주간'을 운영하며 국민 참여형 행사들을 진행했다. 11월 7~8일 서울 레조네 홍대에서는 2025년도 하반기 해외봉사단 정기설명회가 '코스토랑-단원의 식탁' 콘셉트로 열려 상담, 체험, 시식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층의 높은 관심을 이끌었다. 7일 서울 서초구 글로벌인재교육원에서는 리턴 프로그램 성과공유회가 열려 6팀이 결과를 발표했고, 도예를 활용한 창업 아이디어를 선보인 베란다 팀이 대상을 수상했다. 14일 성남 코이카 본부에서는 월드 프렌즈 코리아(WFK) 봉사단 시행기관 정례협의회가 개최돼 8개 기관이 중장기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이어 15일에는 서울 글로벌인재교육원에서 'From KOICA to the World'를 주제로 귀국 단원과 WFK 장학생 등이 참여한 성과공유회가 열렸다.

K-볼룬티어 임팩트 주간은 12월 코이카 본부(경기도 성남시 소재)에서 '제20회 대한민국 해외봉사상 시상식'으로 대미를 장식한다. 2025년에는 총 9명에게 각각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코이카 이사장 표창 등이 수여된다. 대통령, 국무총리 표창 수상자 중 한 명은 '이태석 상'도 함께 받는다.

2025년 12월



제20회 대한민국 해외봉사상 시상식 열려

외교부가 주최하고 코이카와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가 주관한 '제20회 대한민국 해외봉사상' 시상식이 2025년 12월 5일 경기도 성남시 코이카 본부에서 열렸다. 대통령 표창자는 파푸아뉴기니에서 21년 이상 교육기관을 설립해 운영하며 모범학교로 발전시킨 최경옥 '예수의 까리따스 수녀회' 수녀가 선정됐다. 국무총리 표창자로는 케냐에서 24년여간 학교·보건·여성 인권 분야에서 통합 지원을 펼쳐 온 장세균 베다니 출애굽 선교회 선교사와 르완다에서 9년여간 각종 의료 활동을 펼치고 있는 박준범 나누리 메디컬센터 병원장이 각각 선정됐다. 박 병원장은 이태석상도 동시 수상했다. 또 외교부장관 표창에는 이명희·이운숙 코이카 해외봉사단원이, 코이카 이사장 표창에는 신주호 코이카 해외봉사단원과 최승국 월드프렌즈코이카 자문관이,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장 표창에는 하옥선 따뜻한동행 에티오피아 협력지부장과 박혜정 국제구호활동가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위코(WeKO) 성과 공유회 진행

코이카가 2025년 12월 5일 성남 롯데시네마 판교에서 글로벌 서포터스 '위코(WeKO)' 7기의 5개월 활동을 마무리하는 성과 공유회, '위코랑 함께, 고익하씨네'를 열었다. 위코 7기는 스스로 ODA 홍보 아이디어를 기획·발전시키는 '성장형 서포터스'로 운영됐으며, 총 2,767개의 콘텐츠를 제작해 5,239만 회 노출되었고 2,107만 회의 반응을 달성했다.

행사 1부에서는 코이카가 기획하고 위코가 함께 참여한 코이카 브랜드 캠페인 '고익하, 잇츠마이플레저'를 결산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표 '고익하' 5명의 이야기에 더해 일반 국민들의 참여와 메시지로 완성된 최종 영상을 최초 공개했으며, 대표 '고익하' 이도, 심재화, 장미지, 이승재 씨가 무대에 올라 관객과의 대화(GV, Guest Visit) 형태로 촬영 비하인드와 성장·개발협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2부에서는 위코 5,6기 선배들이 제작한 글로벌 음원 'ODA Song'을 다함께 합창했고, 활동 기록 영상 '위코멘터리'를 시사하며 참가자들의 여정을 돌아봤다. 시상식에서는 국내 개인·팀, 글로벌 개인 부문에서 대상·최우수상·우수상이 선정됐다. 국내 개인 부문 대상은 전바다(레쓰코에어), 팀 부문 대상은 옥남정 팀, 글로벌 개인 부문 대상은 파라과이의 루아나 프리실라 하트만 다 실바(Luana Priscila Hartmann da Silva) 씨가 각각 수상했다.



이라크에서 배움과 자립의 길 열었다

코이카가 분쟁 피해가 큰 이라크에서 난민 통합교육과 청년 고용 지원을 강화하며 중동 지역 안정화와 한국의 우호적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코이카는 2025년 11월 17일 이라크 아르빌주 아르빌시에서 한국 자이툰 부대가 2008년 건립한 자이툰 도서관 개보수 완료식을 열고, 노후된 시설을 정비해 지역 주민을 위한 교육·문화 공간으로 새 단장을 마쳤다.

19일에는 이라크 북부 니나와주 모술시 니나와 농업 전문 고등학교에서 취약계층 청년 직업훈련 사업 완료식을 개최했다. 모술은 2014년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IS)이 점령해 교육 기반이 붕괴됐다. 이에 코이카는 유네스코와 함께 직업훈련 교사 역량 개발, 교육과정 개선, 경력개발센터 설립 등을 지원해왔다. 그 결과 306명의 교사가 연수를 받고, 1,957명의 청년·학생이 태양광 설치·농경 기술·가구 제작 등 현지 수요 기술을 익혔으며 78건의 창업 사례도 나왔다.



화제의 웹드라마 <개발남녀> 시즌2 공개

코이카의 연애 웹드라마 <개발남녀>가 소개팅 콘셉트로 큰 인기를 얻은 시즌1에 이어 시즌2로 돌아왔다. 시즌1은 공개 일주일 만에 조회 수 175만 회를 기록하며 2024 앤어워드(A.N.D Award)에서 위너(Winner)를 수상한 바 있다.

코이카 유튜브 채널 '렛츠코(www.youtube.com/@Lets_KO)'에 총 4편으로 공개한 시즌2는 극 중 코이카 구성원인 여자 주인공 '익호'와 썸을 타는 IT 업계 개발자 '익하', 새로운 서브 남자 주인공인 코이카 사내 동료 '오대익'까지 세 인물이 그려내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담았다. 단순한 연애 스토리를 넘어 남녀 관계에서 흔히 벌어지는 타이밍과 오해, 질투 등 공감을 부르는 요소를 통해 등장인물들이 서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성숙해 가는 과정을 잘 그려냈다는 평이다. 여기에 IT 기업 소프트웨어 등의 '개발'과 ODA(공적개발원조) 사업 등을 일컫는 '개발협력'을 친근한 방식으로 풀어내며, 코이카의 활동을 대중에 쉽게 전달하고자 한 의도도 호평을 얻고 있다.

개발협력으로 ‘모두의 AI’의 실현과 기후위기 해결에 앞장설 것

안녕하십니까, 독자 여러분. 2025년은 그 어느 해보다 다사다난한 한 해였습니다. 자국중심주의가 확산하면서 주요 공여국들의 ODA(공적개발원조) 규모가 감소했고, 기후변화의 영향도 확대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AI 전환의 거대한 물결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새로운 기회와 도전 과제를 가져왔습니다.

2026년에도 기후변화와 AI 전환은 피할 수 없는 가장 큰 사회적 변동 요인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코이카는 AI가 기후위기 대응에 기여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이카는 2024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과 함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기후위기 대응 격차 완화를 위해 ‘기후 미래 파트너십(AI for Climate Action)’을 출범하고, 국제사회와의 기술협력을 강화해 왔습니다. 또한 2025년에는 UNFCCC와 함께 기후 AI 기술 공모전(AI for Climate Action Award)을 개최하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AI 담론을 주도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 개도국 현장에서 혁신적인 기술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한국 스타트업의 사례도 소개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2025년 UN총회와 APEC 정상회의에서 대한민국을 ‘세계 3대 AI 강국’, 그리고 ‘아시아의 AI 수도’로 도약시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비전은 기술개발을 넘어 주변 국가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술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 코이카도 다양한 측면에서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VOL.8에는 이처럼 혁신적인 기술로 기후위기를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는 코이카의 활동을 상세하게 담아 독자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2025년 9월 외교부와 공동 주최한 ‘국제개발 파트너십 주간 2025’ 소식도 함께 전해 드렸습니다.

코이카는 앞으로도 대한민국 무상원조 통합 플랫폼으로서 여러 파트너, 그리고 국제사회와 공조해 기후위기를 비롯한 다양한 글로벌 도전 과제를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지지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장

장원삼 드림

KOICA



코이카는 더 나은 내일입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과 상생의 개발협력을 통해 모두가 행복한 내일을
꿈꿀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코이카는 선진국형 ODA 사업을 실현하는
대한민국 무상 개발협력 대표기관입니다.

KOICA

등록일자 2026년 1월 30일
발간등록번호 홍보 2026-01-003
발행일 2026년 1월 30일

발행처 한국국제협력단
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
전화 1588-0434
팩스 031-740-0260
홈페이지 www.koica.go.kr

기획·편집 한국국제협력단 홍보실
제작 (주)조선뉴스프레스
인쇄 타라티피에스

MAGAZINE KOICA
2026 VOL.8

Download **MAGAZINE KOICA**

홍보자료 | 홍보 2026-01-003

이제 MAGAZINE KOICA를
AI 오디오 매거진으로도
만나보세요!